

TOMB MURALS IN GOGURYEO

#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연구와 최신 성과

일시 | 2017년 2월 23일(목), 13:00~18:00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 한성백제박물관



# 행사 일정

- 일시 : 2017년 2월 23일(목) 13:00~18:00
-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한성백제박물관

일정	시간	내용
<b>【개회식】</b> 사회: 이정빈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환영사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 관장)
<b>【발표】</b> 사회: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3:30~14:00	벽화고분을 비롯한 고구려 주요 유적의 분포 현황과 최근 성과 정동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14:00~14:30	최근 북한지역 고분벽화의 발굴 성과 정경일 (중국 延邊大學 교수)
	14:30~14:45	휴식
	14:45~15:15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 북조의 고분벽화 박이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5:15~15:45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사 복원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서용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15:45~16:00	휴식
	16:00~18:00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강현숙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순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b>【종합토론】</b> 사회: 노태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오늘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연구와 최신 성과” 학술회의를 한성백제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작년 12월부터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전시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을 기념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전과 학술회의를 저희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한성백제박물관 이인숙 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회의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노태돈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분 벽화는 고구려인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의 백미입니다. 그 자체로 뛰어난 예술작품인 고분 벽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벽화가 그려진 무덤 대부분은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실물을 접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구려 고분 벽화 특별전”은 벽화 고분의 실물 그대로를 재현한 모형과 생동감 넘치는 디지털자료를 보여주고 있어, 그간의 아쉬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 이래 지난 10여 년간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에 제공해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물 일부가 이번 전시에도 활용되고 있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특별전을 통해 전시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어떤 수준까지 연구되었으며 조사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는 자리입니다.

고구려인들의 일상 모습을 비롯하여 그들이 무덤을 조영하며 기원했던 염원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이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한껏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호 섭

# 목 차

- 벽화고분을 비롯한 중국내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과 최근 연구 성과 ..... 7  
정동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근 북한경내에서 새롭게 조사된  
고구려 벽화무덤의 현황과 과제 ..... 45  
정경일 (연변대학교 역사학부)
  
- 최신 발굴 자료들을 중심으로 본  
중국 위진북조 벽화의 특징 ..... 61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사 복원 ..... 83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 서용 (동덕여자대학교)

발 표

# 벽화고분을 비롯한 중국내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과 최근 연구 성과

정동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벽화고분을 비롯한 중국내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과 최근 연구 성과

정동민 (한국외국어대학교)

## 〈목 차〉

1. 머리말
2. 중국내 고구려 벽화고분의 분포와 조사 현황
3. 최근 발굴 조사된 고구려의 주요 유적
4.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
5. 맺음말

## 1. 머리말

삼국 가운데 하나인 고구려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 발흥하여 668년에 멸망할 때까지 약 700여년 동안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에 걸쳐 활동하였던 고대 국가이다. 漢四郡 가운데 하나인 현도군을 요동지역으로 축출하고 건국된 고구려는 국제 정세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삼국 가운데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축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지금 현재 고구려의 옛 영역에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 요령성의 환인, 길림성의 집안, 그리고 북한의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고구려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요동지역의 주요 요충지에도 성곽을 비롯하여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문헌 기록에서 알 수 없는 자료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고구려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 고분 가운데 석실 내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고분

벽화는 고구려 당대의 것으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 고고학, 생활문화사, 보존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재까지 중국내에 위치한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분포와 조사 현황과 더불어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 고구려 주요 유적에 대한 발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구려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고구려 벽화고분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알아봄으로써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중국내 고구려 벽화고분의 분포와 조사 현황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구려 고분은 121기이다.<sup>1)</sup> 이 가운데 중국내에 있는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1907년 프랑스인 학자 에두아르 샤반느(E. Chavannes)가 집안 산연화묘에서 벽화를 확인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중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고구려 벽화고분은 모두 38기로 알려져 있다.<sup>2)</sup>

이 가운데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요령성 환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창구 장군묘와 고구려 서쪽 변경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무순지역에 위치한 시가 1호묘를 제외하면, 모두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길림성 집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집안지역에는 현재 수많은 고구려 고분이 있고, 마선구 고분군·칠성산 고분군·만보정 고분군·산성하 고분군·우산하 고분군·하해방 고분군, 그리고 장천 고분군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칠성산 고분군을 제외한 모든 고분군에서 벽화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벽화고분은 마선구 고분군에서는 마선구 1호묘 1기, 만보정 고분군에서는 만보정 645호묘·만보정 709호묘·만보정 1022호묘·만보정 1368호묘 등 4기, 산성하 고분군에서는 왕자묘(산성하 332호묘)·동대파 365호묘·산성하 491호묘·산성하 725호묘·산성하 798호묘·연화묘(산성하 983호묘)·산성하 1020호묘·미인묘(산성하 1296호묘)·절천정묘(산성하 1298호묘)·귀갑묘(산성하 1304호묘)·산성하 1305호묘·산성하 1405호묘·산성하 1407호묘·산성하 1408호묘 등 14기, 우산하 고분군에서는 각저묘(우산하 457호묘)·무용묘(우산하 458호묘)·우산하 1041호묘·통구 12호묘(우산하 1894호묘)·산연화묘(우산하 1896호묘)·오회분4호묘(우산하 2104호묘)·오회분 5호묘(우산하 2105호묘)·사신묘(우산하 2113호묘)·우산하 2174호묘·삼실묘(우산하 2231호묘)·우산하 3319호묘 등 11기, 하해방 고분군에서는 모두루묘(하해방 1호묘)·하해방 31호묘·환문묘(하해방 33호묘) 등 3기,

1) 전호태, 2016 『고구려벽화고분』, 돌베개.

2) 정호섭, 2009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과제」 『고구려 벽화 연구의 현황과 콘텐츠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 전호태, 2016 앞의 책.

장천 고분군에서는 장천 1호묘·장천 2호묘·장천 4호묘 등 3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산성하 고분군에서 가장 많은 벽화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성하 고분군의 왕자묘·절천정묘·귀갑묘, 우산하 고분군의 각저묘·무용묘·통구 12호묘·산연화묘·오회분 4호묘·오회분 5호묘·사신묘·우산하 3319호묘, 하해방 고분군의 모두루묘·환문묘, 장천 고분군의 장천 1호묘·장천 2호묘·장천 4호묘 등은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오직 우산하 고분군의 오회분 5호묘만이 일반들에게 그 내부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벽화고분의 수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먼저 중국이 고구려 벽화고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 집안 오회분 1호묘와 오회분 3호묘에도 벽화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sup>3)</sup>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1997년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통구고분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측을 진행하였는데, 2002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만보정 고분군의 만보정 709호묘·만보정 1022호묘, 우산하 고분군의 우산하 2174호묘, 산성하 고분군의 산성하 491호묘·산성하 725호묘·산성하 1020호묘·산성하 1408호묘 등 7기는 벽화고분 목록에서 빠져 있다.<sup>4)</sup> 이 가운데 우산하 2174호묘·산성하 491호묘·산성하 0725호묘·산성하 1020호묘·산성하 1408호묘 등은 1997년 발굴조사를 진행한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이전 1993년에 벽화가 있다고 보고한 고분이다. 즉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1993년 벽화가 있다고 보고한 고분 가운데 일부를 2002년 보고서에서는 스스로 제외시킨 것이다. 이들 고분은 현재 벽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일부는 벽화고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추후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벽화고분 이외에 이러한 변수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한 벽화고분의 수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주지하였듯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1907년 사반느가 산연화묘에서 벽화를 확인한 후, 벽화고분이 계속해서 발견되었고, 벽화고분에 대한 발굴 및 조사, 그리고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 중국내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발굴 및 조사 현황, 그리고 보수 현황 등을 정리한 것이다.

3) 전호태, 2014a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50, 98~99쪽.

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洞溝古墓群 1997年調查測繪報告』, 18쪽.

〈표1〉 중국내 고구려 벽화고분 발굴, 조사, 보수 현황<sup>5)</sup>

지역	고분군	고분명	발굴, 조사, 보수 현황	
무순	시가구	시가1호묘	2000~2001년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무순시박물관이 벽화묘 확인.	
환인	미창구	장군묘	1984년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본계시박물관이 발굴. 1987년 본계시환인현문물공작대가 발굴조사. 1989년 보수. 1991년 요녕성문물고고연구소·본계시박물관·환인현문물보관소가 발굴 및 벽화모사.	
집안	마선구	마선구1호묘	1961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발견. 1962년 길림성박물관 집안고고대가 조사. 1963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72년 집안현문물보관소·길림성박물관이 발굴 및 벽화박락확인.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8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발굴조사.	
		만보정	만보정645호묘	1991년 집안시문물보관소가 벽화묘임을 확인.
	만보정709호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만보정1022호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만보정1368호묘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발견. 1982년 보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	왕자묘 (산성하332호묘)	왕자묘	1965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 발견,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실측. 1966년 길림성문물보관회가 발굴.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81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실측·벽화화학보호처리. 1982년 무덤문 폐쇄 및 보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동대파365호묘	1976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채색벽화편 확인.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	산성하491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725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798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5) 이 표는 기본적으로 벽화고분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앞의 책, 16~17쪽, 표10 ; 정호섭, 2009 앞의 논문, 19~21쪽, 표1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315~323쪽 부록 1 ; 전호태, 2014a 앞의 논문, 103~104쪽 표 3 ; 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4~7쪽을 참고하였다.

지역	고분군	고분명	발굴, 조사, 보수 현황
집안	산성하	연화묘 (산성하983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벽화발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66년 길림성박물관 집안고고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조사정리. 1981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보수·벽화모사·벽화화학보호처리. 1982년 봉분 등 보수 및 무덤문폐쇄. 1996년 조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산성하1020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가 벽화 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미인묘 (산성하1296호묘)	1913년 關野貞이 조사.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 조사때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근처에서 무덤간 축조에 사용된 돌무지와 채색흔이 있는 백회 조각 발견.
		절천정묘 (산성하1298호묘)	1909년 谷井濟一·栗山俊一이 조사. 1913년 關野貞이 조사. 1935년 池内宏·梅原末治가 조사하면서 ‘折天井墓’로 부름.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83년 집안시문물보사대가 조사. 1985년 孫仁杰 조사때 벽화조각 발견. 1988년 조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귀갑묘 (산성하1304호묘)	1909년 古井濟一·栗山俊一이 조사하면서 ‘龜甲墓’라 부름. 1913년 關野貞이 조사.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실측·조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93년 집안시박물관·집안시문물보관소가 보수 및 조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1305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1405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1407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산성하1408호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지역	고분군	고분명	발굴, 조사, 보수 현황
집안	우산하	각저묘 (우산하457호묘)	1935년 만주국 안동도호부 학교 감독이 발견. 池内宏·梅原末治 등이 조사. 1956년 나무문 설치.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1년 무덤문 폐쇄. 1962년 봉분 보수. 1963년 나무표지판 설치. 1964년 봉분 보수. 1965년 봉분 보수.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75년 보수. 1976년 묘도와 묘문 수리 및 벽화화학보호처리. 1981년 집안시박물관이 조사. 1982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 모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무용묘 (우산하458호묘)	1935년 만주국 안동도호부 학교 감독이 발견. 池内宏·梅原末治 등이 조사. 1956년 나무문 설치.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1년 무덤문 폐쇄. 1962년 봉분 보수. 1963년 나무표지판 설치. 1964년 봉분 보수. 1965년 봉분 보수.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76년 봉분 보수. 1977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묘도와 묘문 수리 및 벽화화학보호처리. 1981년 집안시박물관이 조사. 1982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 모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우산하1041호묘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에 의한 실측 조사때 편호. 1974년 太王公社 직원이 벽화를 발견.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조사하고 묘문 보호 조치. 1975년 집안시박물관이 벽화화학보호처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8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발굴조사.
		통구12호묘 (우산하1894호묘)	해방전 통화-집안 철도공사때 일본인이 '통구12호묘'로 부름. 1937년 黒田源次가 조사, '馬槽墓'로 부름. 1950년 조사. 1956년 집안현문화과가 조사·보수·묘문봉쇄.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1년 무덤문 폐쇄. 1962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조사·실측·벽화모사. 1964년 봉분 보수.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77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보수 및 벽화화학보호처리. 1997년 집안시문물보관소가 묘문 보수 및 실측.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산연화묘 (우산하1896호묘)	1907년 샤반느가 벽화 발견. 1909~1910년 古井濟一·栗山俊一이 '散蓮花墓'라 부름. 1913년 關野貞·鳥居龍藏 등이 조사. 1962년 길림성박물관 집안고고대가 벽화조사 및 모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 및 조사.
		오회분4호묘 (우산하2104호묘)	1909년 谷井濟一·栗山俊一이 조사. 1950년 李浴이 조사. 인민해방군 부대장이 무덤문을 열어 임의로 사용, 국가문화부 개입으로 무덤문 폐쇄. 1962년 길림성박물관 집안고고공작대·집안현문물보관소가 발굴. 1963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무덤문 폐쇄. 1965년 길림성박물관이 실측 및 벽화모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74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 수리 검토.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화학보존처리. 1988~1989년 길림성박물관이 보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지역	고분군	고분명	발굴, 조사, 보수 현황
집안	우산하	오회분 5호묘 (우산하2105호묘)	1913년 關野貞이 조사. 1950년 李浴이 조사, 인민해방군 부대장이 무덤문을 열어 임의로 사용, 국가문화부 개입으로 무덤문 폐쇄. 1956년 무덤에 나무문 설치.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2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조사 및 보수작업. 1962년 길림성박물관 집안고고대가 벽화 조사 및 모사. 1963년 나무설명표지판 설치. 1965년 벽화모사 및 고분실측.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우산하 편호. 1975년 보수. 1976년 보수. 1983년 벽화 보존을 위한 2차 화학처리 작업. 1988~1989년 길림성박물관이 보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사신묘 (우산하2113호묘)	1935년 齋藤菊太郎·七田忠志가 조사 및 벽화 모사, 묘문을 열면서 벽화 파손. 1935년 池内宏·梅原末治가 조사 및 실측. 1936년이 三上次男이 조사. 1938년 小場恒吉이 벽화 모사도 제작. 1950년 조사. 1956년 집안현문화과가 무덤문 폐쇄.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1년 무덤문 폐쇄. 1962년 보수. 1963년 나무설명표지판 설치.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우산하2174호묘	1993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삼실묘 (우산하2231호묘)	1909~1910년 谷井濟一·栗山俊一이 조사. 1913년 關野貞이 조사, “三室墓”라고 부름. 1935년·1936년 池内宏·濱田耕作·梅原末治가 조사. 1936년 三上次男이 조사. 1956년 집안현문화과가 무덤문 폐쇄.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1년 무덤문 폐쇄. 1963년 나무설명표지판 설치. 1972년 보수. 1975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재조사 및 벽화 화학보존처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1997~1998년 도굴.
		우산하3319호묘	1961년 길림성문물보사대가 조사. 1962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조사.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79년 집안시박물관이 조사. 1983년 집안시박물관 조직문물이 조사. 1984년 집안시박물관 조직문물이 인면 석각에 철제난간 설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벽화묘 확인. 2005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조사.
	하해방	모두루묘 (하해방1호묘)	1935년 伊藤伊八·齋藤菊太郎이 발견. 1935년 池内宏·梅原末治가 조사. 1936년 三上次男이 조사.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63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봉분과 묘문 등 보수. 1965년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78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화학보호처리. 1994년 보수.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하해방31호묘	1963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 확인. 묘입구 폐쇄.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83년 집안문물보사대가 조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지역	고분군	고분명	발굴, 조사, 보수 현황
집안	하해방	환문묘 (하해방33호묘)	1935년 池内宏·梅原末治가 조사. 1936년 三上次男이 조사. 1957년 길림성박물관이 조사. 1974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보수. 1976년 보수. 1978년 집안현문물보관소가 벽화화학보호처리. 1997년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장천	장천1호묘	1962년 발견. 1970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발굴하여 벽화확인. 1966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 조사때 편호. 1971년 조사. 1972년 보수. 1973년 벽화화학보호처리. 1978년 설명 표지판 설치. 1983년 조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이 실측·조사. 2000년 묘실벽화도굴.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장천2호묘	1962년 발견. 1972년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발굴하여 벽화확인. 1980년 벽화 화학보존처리작업 및 무덤문 폐쇄. 1983년 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장천4호묘	1962년 발견. 1983년 조사. 1984년 집안시문물보관소가 벽화확인. 1985년 집안박물관이 발굴. 1990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 문물보관소가 조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보수.

일본은 1894~1895년 청일전쟁과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만주 및 한반도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sup>6)</sup> 이때부터 해방 전까지 중국내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조사·소개되었다.

關野貞·谷井濟一·栗山俊一 등은 1909년부터 1915년까지 매년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방문 하면서 그 일대 유적들을 조사하였는데,<sup>7)</sup> 1909년~1910년에는 谷井濟一과 栗山俊一이 절천 정묘·귀갑묘·산연화묘·오회분 4호묘·삼실묘 등을 조사하였고, 1913년에는 關野貞·烏居龍藏 등이 미인묘·절천정묘·귀갑묘·산연화묘·오회분 5호묘·삼실묘 등을 조사하였다.<sup>8)</sup>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일본인들에 의한 조사가 다시 활발해지는데,<sup>9)</sup> 1935년에는 齊藤菊太郎·伊藤伊八이 모두루묘를 조사하였고, 池内宏·梅原末治가 절천정묘·각저묘·무용묘·사신묘·삼실묘·모두루묘·환문묘 등을 조사하였다.<sup>10)</sup> 또한 1936년에는 三上次男이 사신묘·삼실묘·모두루묘·환문묘 등을 조사하였고,<sup>11)</sup> 1937년에는 黒田源次가 통구 12호묘를 조사하였다.

당시 조사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조사한 내용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일본 문화정책의 홍보용

6)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38, 158쪽.

7) 양시은, 2010 앞의 논문, 159쪽.

8) 그 조사 내용은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 상에 기록되어 있다.

9) 양시은, 2010 앞의 논문, 165쪽.

10) 그 조사 내용은 池内宏 외, 1940 『通溝』 下에 기록되어 있다.

11) 그 조사 내용은 三上次男, 1990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에 기록되어 있다.

으로 배포한 것을 볼 때,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위한 지역 전반에 걸친 조사 및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사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당시 조사는 축조 과정보다는 유물 수습에 주안을 두는 등 제한적인 연구에 불과했고, 특히 조사 후에 고분을 봉하지 않고 묘도 입구에 문을 달아 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묘실 벽화의 인위적·자연적 훼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sup>13)</sup>

해방 이후에는 중국의 기관 및 중국인 학자들에 의해 벽화고분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1950년에 6.25 전쟁에 참전한 인민 인민해방군 부대장이 오회분 4호묘와 오회분 5호묘의 무덤 문을 열어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분 안에서 벽화가 확인되었다. 1957년 4월에는 길림성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각저묘·무용묘·통구 12호묘·오회분 5호묘·사신묘·삼실묘·모두루묘·환문묘 등이 조사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고구려 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벽화고분도 대거 조사되고 또한 대거 새롭게 확인되었다. 1961년과 1963년에는 집안현문물보관소에 의해 각각 마선구 1호묘, 하해방 31호묘가 벽화고분으로 확인되었다. 1962~1963년에는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문물관리소가 중심이 되어 통구고분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장천고분군이 확인되었고, 마선구 1호묘·통구 12호묘·우산하 3319호묘·산연화묘·각저묘·무용묘·사신묘 등 많은 고분들이 조사되었다. 1965년 4월에는 집안현문물보관소가 왕자묘에서 벽화를 확인함에 따라,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왕자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6월에 들어서는 길림성문물보관회·길림성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고분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연화묘에서 벽화를 발견하였다. 또한 산성하 491호묘·산성하 725호묘·산성하 798호묘·연화묘·산성하 1020호묘·미인묘·귀갑묘·산성하 1305호묘·산성하 1405호묘·산성하 1407호묘·산성하 1408호묘·오회분 4호묘·오회분 5호묘, 모두루묘 등의 벽화고분을 조사하였다. 1966년에는 길림성문물관리위원회·길림성박물관·집안문물보관소 등이 중심이 되어 통구고분군에 있는 모든 고분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편호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만보정 1368호묘에서 벽화를 확인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변기 속에서도 벽화고분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졌다. 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가 중심이 되어 장천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970년에는 장천 1호묘, 1972년에는 장천 2호묘에서 벽화를 확인하였다. 1974년에는 集安 太王公社 직원이 우산하 1041호묘에서 벽화를 발견하면서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문물보관소가 조사하였으며, 1976년에는 고분 95기를 조사·정리하던 중 동대파 365호

12) 양시은, 2010 앞의 논문, 161~162쪽 ; 강현숙, 2013 앞의 책, 23쪽.

13) 강현숙, 2013 앞의 책, 24쪽.

묘에서 채색 벽화편을 확인하였다.

1983년~1985년에는 市·縣 文物志 편찬 계획으로 인하여 집안지역 전체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선구 1호묘·만보정 1368호묘·산성하 983호묘·각저묘·무용묘·우산하 1041호묘·통구 12호묘·오회분 4호묘·오회분 5호묘·사신묘·삼실묘·왕자묘·모두루묘·하해방 31호묘·환문묘·장천 1호묘·장천 2호묘 등의 벽화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sup>14)</sup> 1985년에는 길림성박물관이 장천 4호묘를 발굴하면서 벽화를 확인하였고, 1991년에는 집안시문물보관소가 만보정 645호묘가 벽화묘임을 확인하였다.

1993년에는 국가문물국 승인 하에 길림성문물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통구고분군에 대한 비교적 큰 규모의 보수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벽화고분이 확인되었는데, 우산하 2174호묘·산성하 491호묘·산성하 0725호묘·산성하 798호묘·산성하 1020호묘·산성하 1305호묘·산성하 1405호묘·산성하 1407호묘·산성하 1408호묘 등에서 벽화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1997년에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통구고분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측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산하 3319호묘가 벽화고분임이 확인되었고, 주지하였듯이 일부 벽화고분은 벽화고분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위의 조사 내용을 보면 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벽화고분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1940년대 해방전까지 벽화고분으로 확인된 고분은 미인묘·귀갑묘·각저묘·무용묘·통구 12호묘·산연화묘·사신묘·삼실묘·모두루묘·환문묘 등 총 10기에 불과하다. 이후 1950년대에는 오회분 4호묘(1950년)·오회분 5호묘(1950년) 등 총 2기, 1960년대에는 마선구 1호묘(1963년)·하해방 31호묘(1963년)·왕자묘(1965년)·연화묘(1965년)·만보정 1368호묘(1966년) 등 총 5기, 1970년대에는 장천 1호묘(1970년)·장천 2호묘(1972년)·우산하 1041호묘(1974년)·동대파 365호묘(1976년) 등 총 4기, 1980년대에는 장천 4호묘(1984)·절천정묘(1985) 등 총 2기, 그리고 1990년대에는 만보정 645호묘(1991년)·우산하 2174호묘(1993년)·산성하 491호묘(1993년)·산성하 725호묘(1993년)·산성하 798호묘(1993년)·산성하 1020호묘(1993년)·산성하 1305호묘(1993년)·산성하 1405호묘(1993년)·산성하 1407호묘(1993년)·산성하 1408호묘(1993년)·우산하 3319호묘(1997년)·만보정 709호묘(1997년)·만보정 1022호묘(1997년) 등 총 13기가 확인되었던 것이다.<sup>15)</sup>

집안지역에 위치한 벽화고분은 발견 당시 봉분이 유실되거나, 봉분의 유실 혹은 도굴 등으로 인하여 천정석이 드러나거나 원래의 위치를 이탈하는 등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벽화 상당 부분이 습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거나 지워진 상태였던 고분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 조사와 더불어 보수 및 보존 작업도 같이 진행되었다. 고분에 대한

14) 그 조사 내용은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에 기록되어 있다.

15) 만보정 709호묘와 만보정 1022호묘의 경우 1997년에 확인되었다고 한다(耿鐵華, 2008 앞의 책, 18쪽).

보수 작업은 1950년 중반경부터 중국 기관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무문을 만들어 고분을 폐쇄하거나 고분 앞에 나무로 만든 표지판을 세우는 작업 등이 이루어졌고, 봉토묘의 경우에는 봉토에 흙을 본뜬 등의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집안현문물보관소를 중심으로 고분 벽화를 보존하기 위한 화학적 보호처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1973년에는 장천 1호묘, 1974년에는 오희분 4호묘, 1975년에는 삼실묘와 우산하 1041호묘, 1976년에는 각저묘, 1977년에는 무용묘와 통구 12호묘, 1978년에는 모두루묘와 환문묘, 1980년에는 장천 2호묘, 1981년에는 연화묘와 왕자묘, 1983년에는 오희분 5호묘 등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 속에서 연화묘·절천정묘·각저묘·무용묘·통구 12호묘·오희분 4호묘·오희분 5호묘·사신묘·모두루묘·환문묘·장천 1호묘·장천 2호묘·장천 4호묘 등에 대한 정비되었다. 벽화고분은 최근까지도 조사 및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6)</sup>

한편 환인에 위치한 미창구 장군묘의 경우 1984년에는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본계시박물관, 1987년에는 본계시환인현문물공작대, 1991년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본계시박물관·환인현문물보관소 등에 의해 발굴 및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991년 발굴때 벽화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무순에 위치한 시가 1호묘는 2000~2001년에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와 무순시박물관에 의해 벽화가 확인·조사되었는데, 시가 1호묘에 대한 보수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내 고구려 벽화고분의 유형 및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분구에 따라 적석묘와 봉토묘로 나눌 수 있다. 적석묘는 산성하 725호묘·산성하 798호묘·절천정묘·산성하 1405호묘·산성하 1407호묘·산성하 1408호묘·우산하 3319호묘 등 모두 7기인데, 모두 계단식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7기를 제외한 31기 모두 봉토묘이다.

벽화고분 매장부는 돌로 쌓은 석실구조인데, 고구려에 고분벽화가 유행하게 된 것은 석실묘라는 새로운 무덤 양식이 받아들여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 가운데 우산하 3319호묘는 석실 내부를 벽돌로 쌓은 전실묘이다. 현재까지 고구려의 전실묘는 우산하 3319호묘 이외에 마선구 682호묘가 있다.

고분의 내부 구조와 관련하여 먼저 연도가 하나 있는 동분동혈합장과 별개의 연도를 가진 동분이혈합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벽화고분 가운데 동분이혈합장으로는 만보정 645호묘·통구 12호묘·장천 4호묘 등 모두 3기가 있고, 그 나머지는 동분동혈합장이다. 석실 구조는 묘실의 수에 따라 단칸 구조, 측실이 있는 단칸 구조,<sup>18)</sup> 두칸 구조, 측실이 있는 두칸 구조,

16) 필자가 2016년 7월과 2016년 10월에 집안 산성자산성을 답사하였을 때 산성자산성 앞의 산성하 고분군에서 대규모의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7) 전호태, 2016 앞의 책, 13쪽.

18) 현실, 연도, 좌우 측실이 통로 없이 연결되어 있고, 천장가구를 공유하고 있는 고분 형태를 ‘유사두칸구조’라고 명명하기도 한다(강현숙, 2013 앞의 책, 85쪽).

여러칸 구조로 나누어진다. 시기순으로 본다면 대체로 단칸묘와 여러칸묘가 병존하다가 두칸묘가 유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단칸묘가 유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9)</sup>

천장 구조는 평천장, 궁륭 천장, 꺾음 천장, 평행고임 천장, 평행삼각고임 천장, 팔각고임천장, 궁륭삼각고임 천장 등이 있다.<sup>20)</sup> 이 가운데 평행삼각고임 천장이 가장 늦은 시기에 유행한 천장구조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방형의 현실에 중앙 연도를 가지고 평행삼각고임 천장을 한 고분이 가장 완성된 형태의 벽화고분으로 보고 있다.<sup>21)</sup>

벽화고분에 그려진 벽화의 경우, 만보정 709호묘·만보정 1022호묘·산성하 동대파 365호묘·산성하 491호묘·산성하 725호묘·산성하 798호묘·산성하 1020호묘·산성하 1305호묘·산성하 1405호묘·산성하 1407호묘·산성하 1408호묘·우산하 2174호묘 등 12기는 벽화가 있었던 것으로만 확인될 뿐, 벽화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고분 벽화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은 이들은 제외한 벽화만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벽화는 연도나 묘실 네벽·천정은 물론 관대에까지 그려지는 등, 내부 전체에 걸쳐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벽화의 제재를 보면 크게 생활 풍속 계열, 장식 계열(연꽃, 王자, 둥근 무늬 등), 사신 계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생활 풍속 중심 계열이 유행을 하다가 점차 장식 계열 중심으로 바뀌고, 마지막으로는 사신 계열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2)</sup>

한편 석실 내부에서는 관대, 휘장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돌기둥, 石床(石座)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관대는 마선구 1호묘·만보정 1368호묘·왕자묘·각저묘·무용묘·우산하 1041호묘·오회분 4호묘·오회분 5호묘·사신묘·우산하 3319호묘·모두루묘·환문묘·장천 1호묘·장천 2호묘·장천 4호묘 등에서 보인다. 이 가운데 만보정 1368호묘·왕자묘·무용묘·우산하 1041호묘·우산하 3319호묘·환문묘 등에서는 1개가 확인되고, 마선구 1호묘·모두루묘·장천 1호묘·장천 2호묘·장천 4호묘 등에서는 2개, 오회분 4호묘·오회분 5호묘·사신묘 등에서는 3개가 확인되고 있다. 휘장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은 마선구 1호묘·만보정 1368호묘·왕자묘·우산하 1041호묘·통구 12호묘·모두루묘·장천 1호묘·장천 2호묘·미창구 장군묘 등에서 확인된다. 돌기둥은 중국내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는 마선구 1호묘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묘실 중앙에 세워져 있다. 石床의 경우 오회분 4호묘·사신묘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제상 혹은 제단과 같은 제의와 관련된 시설물로 유교적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up>23)</sup>

19) 정호섭, 2009 앞의 논문, 38쪽.

20) 박아림, 2009a 「고구려 무용총 편년에 대한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 73쪽.

21) 정호섭, 2009 앞의 논문, 38쪽.

22) 정호섭, 2009 앞의 논문, 38쪽 ; 전호태, 2016 앞의 책,

23) 정호섭, 2009 앞의 논문, 40쪽 ; 강현숙, 2013 앞의 책, 90~91쪽.

### 3. 최근 발굴 조사된 고구려의 주요 유적

중국내 고구려 유적은 첫 번째 도성인 요령성 환인 그리고 두 번째 수도인 길림성 집안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고구려 유적은 20세기 초반 일본인들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해방 후에는 중국인과 중국 기관에 의해 전 지역에 걸쳐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된 고구려의 주요 유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구려의 주요 고분 조사 현황

고구려 고분의 경우 1966년 길림성문물관리위원회·길림성박물관·집안현문물보관소에 의해 전면적인 조사와 실측이 이루어졌고, 1983년~1985년에는 각 縣(市) 文物志 편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에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통구고분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에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의 일환으로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문물보관소가 중심이 되어 집안 지역의 대표적인 적석묘에 대해 대대적인 발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주지하였듯이 2000년대 초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의 일환으로 진행된 집안 지역의 적석묘 발굴 현황은 보고서가 간행되면서 잘 알려져 있다.<sup>24)</sup> 그리고 심양 석대자산성 주위의 고분 같은 경우에도 발굴과정에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발굴보고서가 간행되면서 발굴 내용이 잘 알려져 있다.<sup>25)</sup> 그러므로 이들 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분들의 조사 및 발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환인지역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환인지역에서는 망강루 고분군, 상고성자 고분군, 대전자서 고분군, 풍가고자 고분군, 용두산 고분군, 왕의구 고분군, 산두자 1호묘 등을 발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망강루 고분군은 환인현 雅河鄉 南邊石哈達村 북쪽의 산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빈번한 도굴로 인한 응급 발굴에 필요성에서 2004년 10월~11월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본계시박물관·환인현발굴대가 발굴을 진행하였고, 2006년에는 보충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을 통해

2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에 당시 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石臺子山城』 上·下, 文物出版社.

적석묘 6기를 확인하였고, 고분의 규모, 축조방식,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동기, 철기, 석기,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sup>26)</sup>

상고성자 고분군은 환인현 六道河子鄉 上古城子村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 9월~11월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부분적인 발굴을 진행하였다. 보호구역 안에 있는 22기의 고분(HSM1-HSM22) 가운데 HSM1-HSM4를 발굴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분의 유형, 규모, 구조 등을 파악하였고, 일부 고분에서 토기편 등을 발견하였다.<sup>27)</sup>

대전자서 고분군은 환인현 大甸子村 劉家大院屯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이 “東水西調”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 5월~7월에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고분 6기를 발견하고 HDM1~HDM6으로 편호하면서 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을 통해 내부 구조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5기가 봉토석실묘이고, 1기가 적석묘임을 확인하였다.<sup>28)</sup>

풍가고자 고분군은 환인현 華萊鎮 馮家堡子村 第5村民組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 9월~11월에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본계시박물관·환인현박물관이 총 10기를 발굴하였는데, 석개묘 2기, 적석석개묘 4기, 적석석광묘 1기, 방단석실적석묘 1기, 방단석광적석묘 1기 등을 확인하였다. 2007년 10월~11월에는 6기의 고분을 정리하였는데, 그 가운데 2기는 적석석실묘이고 그 나머지 4기는 대석개적석광실묘임을 확인하였다. 발굴 과정에서 내부 구조까지 파악하였고, 토기 5점과 석기 1점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sup>29)</sup> 보고자는 M3가 적석석개석광묘이고 M4가 적석석광묘로 고분 유형은 다르지만 동일 묘구에 분포하고 긴밀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고분형식 모두 고구려 초기 고분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M1과 M2는 고구려 중기 고분으로 그 석실 구조가 석봉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요동지역 석봉묘와의 계승성을 언급하고 있다.

용두산 고분은 환인현 華萊鎮 光復村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王義溝 유적을 발굴할 때 함께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발굴 과정에서 산의 암반을 뚫어 묘광을 만들고 대석 1매를 덮은 석개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기, 동제 팔찌, 불에 탄 인골, 목탄 조각 등이 출토되었다. 망강루적석묘와 고분입지나 묘광 축조과정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구려 초기유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30)</sup>

왕의구 고분군은 환인현 北甸子鄉 北甸子村 盛家街村民組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王義溝 유적을 발굴할 때 함께 발굴이 진행되었다. 2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적석석광묘와 방단적

26) 梁志龍·李新全, 2009 「本溪地區高句麗考古三十年」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李新全,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2009-1.

27) 梁振晶, 2008 「桓仁縣上古城子魏晉時期墓群」 『中國考古學年鑒』2007; 梁志龍·李新全, 2009 앞의 논문.

28) 梁振晶, 2005 「桓仁縣大甸子青銅時代及高句麗時期墓地」 『中國考古學年鑒』2004.

29) 樊聖英, 2009 「桓仁縣馮家堡子高句麗墓群」 『中國考古學年鑒』200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4 「馮家堡子墓地」 『遼海記憶-遼寧考古六十年重要發現(1954-2014)』, 遼寧人民出版社.

30) 梁志龍·李新全, 2009 앞의 논문.

석광실묘라는 고분 유형을 확인하였고, 고분의 규모 및 내부 구조 등도 확인하였으며, 동제 팔찌·토기·인골 등이 출토되었다.<sup>31)</sup>

산구자 1호묘는 환인현 北甸子鄉 北甸子村 盛家街村民組에 위치하고 있다. 2007년 王義溝 유적을 발굴할 때 함께 발굴이 진행되었다. 발굴을 통해 적석석개묘라는 고분 유형, 고분의 구조, 화장이라는 시신 매장 방식 등을 파악하였고, 토기·철솥 바닥 등이 출토되었다.<sup>32)</sup>

## (2) 집안지역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집안지역에서는 황니강대묘, 우산하 901호묘, 상활룡산서 고분군, 신흥촌 고분군, 호자구 1호묘, 통구지역 밖에 있는 고분군 등을 발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황니강대묘는 집안시 太王鎮 果樹村 9組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에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고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밑바닥을 훑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집안시박물관이 조사와 실측을 실시하였는데, 1966년 조사때 편호된 우산하 30호묘 대신 우산하 36호묘로 다시 편호되었다. 조사를 통하여 계단적석묘라는 고분 유형과 규모 및 계단 등을 확인되었고, 기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피장자 및 축조연대와 관련하여 장군총과 축조방식 및 규모가 유사하지만, 석재가 정연하지 않고 부속시설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5세기 중엽의 귀족 고분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3)</sup>

우산하 901호묘는 집안시 太王鎮 果樹場村에 위치하고 있다. 2008년 4~8월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발굴하였다. 발굴을 통해 계단적석적석광묘라는 고분 유형, 규모, 계단과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하였는데,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sup>34)</sup> 축조연대와 관련하여 고분 유형인 계단적석적석광묘가 3~4세기에 유행하고 고분 구축방식·계단형식이 우산하 992호묘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4세기 중엽으로 파악하고 있고, 피장자에 대해서는 고분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제대·묘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귀족의 무덤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흥촌 고분군은 집안시 太王鎮 新紅村 3組에 위치하고 있다. 요서북급수 프로젝트노선(遼西北供水工程路線) 길림구간 건설을 위해 2011년 6월~8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주변 지역을 조사하다가 고분군을 발견하고 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 과정에서 고분 32기를 확인하였는데, 무단무광적석묘·계단적석묘·계단적석광실묘라는 고분 유형과 고분 구조 등을 파악하였고, 일부 고분에서 道光通寶·철제 쟁기 잔편 1점·토기편 1점·동물뼈 등이

31) 梁志龍·李新全, 2009 앞의 논문.

32) 梁志龍·李新全, 2009 앞의 논문.

3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9 「黃泥崗大墓調查報告」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3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10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

출토되었다.<sup>35)</sup>

상활룡산서 고분군은 집안시 麻線鄉 上活龍村 山西4組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5월 새롭게 발견된 고분군이다. 고분 조사를 통해 모두 23기가 확인되었는데 유형은 모두 적석묘로 유단 적석석광묘 20기, 계단적석석광묘 2기 계단적석광실묘 1기이다. 고분군의 축조연대와 관련하여 유단적석석광묘의 시작 연대는 고구려 건국 전후, 계단적석광실묘는 3세기 말로 추정하면서 고구려 건국 전후에서 4세기초로 보고 있다. 또한 연접묘와 무덤 배열을 볼 때 가족묘지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6)</sup>

호자구 1호묘는 집안시 靑石鎮 蒿子溝村 2組에 위치하고 있다. 2004~2005년에 길림성장백 문화연구회와 집안시박물관이 조사를 하였고, 2008년에는 4월~8월에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을 통해 계장식적석묘라는 고분 유형과 더불어 규모, 고분 구조, 호분석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관 유적으로 제대를 발견하였고, 고분 동쪽에 있는 적석묘 5기를 발굴하면서 배장묘로 파악하였다. 고분 유형이 계장식이라는 점과 출토된 토기를 마선구 626호묘 및 칠성산 871호묘와 비교하면서 마선구 626호묘 및 칠성산 871호묘보다 늦으며, 임장묘보다 약간 이르거나 그 연대가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다.<sup>37)</sup>

한편 2004~2005년에는 길림성장백문화연구회와 집안시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통구분지 밖 집안지역, 임강, 장백지역의 고분과 고분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 기간에 발굴한 고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4~2005년 길림성장백문화연구회와 집안시박물관이 조사한 고구려 고분군<sup>38)</sup>

고분군명	위치	고분수	고분유형
고려묘구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古馬嶺村 高麗墓溝	15기	기단적석묘, 계단적석묘, 봉토석실묘
고마령장구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古馬嶺村		
대동구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大陽岔村 大東溝屯	4기	유단적석석광묘
노방구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大陽岔村 大陽岔4隊	4기	유단적석석광묘
대양차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大陽岔村	16기	유단적석석광묘, 봉토석실묘
대로촌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大路村	3기	유단적석석광묘

3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 「集安市太王鎮新紅村高句麗積石墓群發掘發掘」 『北方文物』 2012-3

36) 尙武, 2010, 「集安麻線上活龍山西墓群調查與研究」 『東北史地』 2010-4

37) 王志剛, 2010, 「集安市五座高句麗墓葬」 『中國考古學年鑑』 2009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10,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

38) 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鴨綠江上游右岸考古調查」 『東北史地』 2004-5

고분군명	위치	고분수	고분유형
파보촌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爬寶村	18기	유단적석석광묘
고지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高地村		적석묘, 봉토묘
정의촌고분군	집안시 大路鎮 正義村	11기	유단적석석광묘
동구고분군	집안시 榆林鎮 地溝村 東溝門	5기	계단적석석광묘, 유단적석석광묘
지구문고분군	집안시 榆林鎮 地溝村 9組 地溝門	20여기	유단적석석광묘, 유단적석석광연접묘, 봉토석실묘
관문립고분군	집안시 榆林鎮 地溝村 3隊	5기	유단적석석광묘
대고려묘구고분군	집안시 榆樹林河 高麗墓子溝門		적석묘, 봉토묘
대고려묘구고분군	집안시 榆林鎮 大朱仙溝村 小高麗墓溝門	17기	유단적석석광묘, 봉토석실묘
향양고분군	집안시 榆林鎮 向陽村	36기	적석묘, 방단적석묘, 봉토묘
판차구고분군	집안시 台上鎮 板岔溝村	9기	유단적석석광묘, 봉토석실묘
쌍흥고분군	집안시 財源鎮 雙興村 1·2隊	4기	계단적석석광묘, 유단적석석광묘
보마고분군	집안시 財源鎮 報馬村	33기	봉토석실묘
모배령고분군	집안시 財源鎮 泉眼村	18기	유단적석석광묘, 봉토곽실묘, 적석묘
금가고분군	집안시 頭道鎮 金家村	26기	계단적석석광묘, 유단봉토석실묘, 봉토석실묘
묘서고분군	집안시 頭道鎮 腰營村	20기	봉토석실묘, 봉토곽실묘
반가가고분군	집안시 榆林鎮 頭道鄉 潘家街	44기	유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묘, 봉토석실묘, 봉토곽실묘
피덕기둔고분군	집안시 麻線鄉 江口村 皮德記屯		유단적석석광묘, 봉토석실묘
태평구고분군	집안시 太平溝	74기	적석묘, 방단적석묘, 방단계단적석묘, 봉토동실묘
사구령고분군	집안시 麻線鄉 太平村	9기	유단적석석광묘
홍농교고분군	집안시 麻線鄉 興農村	11기	유단적석석광묘
양민고분군	집안시 良民		유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묘
추피구고분군	집안시 靑石鎮 秋皮村	469기	
석묘자고분군	집안시 麻線溝	40여기	유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연접묘, 봉토곽실묘, 봉토석실묘
초가구고분군	집안시 麻線鄉 肖家溝門	32기	유단적석석광묘, 봉토석실묘

고분군명	위치	고분수	고분유형
대청구남천고분군	집안시 大靑溝村	10여기	유단적석석광묘
입대고분군	임강시 6道溝鎮 砲臺子村	15기	기단적석묘
동전자고분군	임강시 6道溝鎮 東甸子村	30여기	기단적석묘, 계단적석총, 기단적석 연접묘
서마록포자고분군	임강시 6道溝鄉 西馬鹿泡子村	15여기	기단적석묘, 계단적석묘
용강고분군	임강시 6道溝鄉 西馬鹿泡子村	2기	기단적석묘
칠도구고분군	임강시 6道溝鄉	3기	기단적석묘, 봉토묘
합마천고분군	장백현 8道溝鎮 蛤蟆川村	2기	
십이도구고분군	장백현 12道溝鎮 12道溝村	2기	적석묘
하외자고분군	장백현 13道溝鎮 13道溝村	2기	기단적석묘
양종장고분군	장백현 13道溝鎮 干溝子村		기단적석묘, 계단적석묘
금화고분군	장백현 金華鄉 金華村	6기	적석묘

한편 2005년에 張福有·孫仁杰·遲勇 등이 집안 경내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다가 麻線鄉 石廟子村에 있는 석굴 근처에서 고구려 기와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기와가 분포하는 유적과 석굴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면서, 석굴이 고구려 제4대왕인 민중왕을 장례지낸 석굴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up>39)</sup>

### (3) 무순지역

무순지역은 고구려 서쪽 변경의 요충지로 고이산성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무순지역에서는 시가 고분군과 대서구문 고분군 등을 발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무순 시가고분군은 무순시 撫城區 撫順市衛生學敎에서 撫順市師範學校에 이르는 북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10월 무순시 박물관은 고분 도굴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요령성문물국에 보고하였고, 2000년 11월과 2001년 10~11월에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와 무순시 박물관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 발굴과정에서 41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봉토석실묘라는 고분 유형과 더불어 벽화묘 1기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발굴을 통해 고분 유형 이외에 고분의 규모 및 구조 등을 확인하였고, 금기·금동기·은기·철기·청동기·동기·석기·기와편·토기편·칠기편·인골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보고자는 고이산성의 부속 고분군으로 파악하고 있고, 유물 출토 양상을 토대로 고구려 후기~당대에 축조된 고분군으로 보고 있다.<sup>40)</sup>

39) 張福有·孫仁杰·遲勇, 2007 「高句麗王陵通考要報」 『東北史地』 2007-4 ; 2007 『高句麗王陵通考』, 香港亞洲出版社

대서구문 고분군은 무순현 救兵鄉 關門村 3組에 위치하고 있다. 關山댐 건설을 위한 과정에서 2003년 6월~9월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와 무순시박물관이 고분 14기를 정리하였는데, 대부분 파괴가 심한 상태였다. 봉토석실묘이라는 고분 유형과 더불어 고분의 구조 등을 파악하였고, 청동 팔찌·청동 반지·금동장식·금동귀걸이·토기 등이 출토되었다.<sup>41)</sup>

#### (4) 신빈지역

2007년 중국에서는 제3차 전국 문물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무순시박물관이 신빈 경내의 소자하·태자하·부이강 연안에서 많은 고구려 적석묘군을 발견·조사되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고구려 고분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3차 문물 조사 기간에 조사된 신빈지역 고구려 적석묘군<sup>42)</sup>

고분군명	위치	고분수	고분유형	비고
도독고분군	신빈현 榆樹鄉 都督村	70여기	석실묘, 석개묘	XB22-0311로 편호
마가보자고분군	신빈현 木奇鎮 下灣子村	70여기		
장경고분군	신빈현 木奇鎮 章京村	30여기	연접묘, 단실묘	
하만자고분군	신빈현 木奇鎮 下灣子村	30여기	적석석실묘, 연접묘	토기편이 출토
산성구문고분군	신빈현 紅廟子鄉 四道溝村 老黑溝屯組	17기	적석묘	근처 흑구산성 위치
후대자고분군	신빈현 紅廟子鄉 四道溝村 後臺子	30여기	무단적석묘	XB22-0108로 편호, 토기편 출토
후산고분군	新賓 紅廟子鄉 五道溝村 後山	20여기	적석묘	XB22-0120으로 편호
소황구고분군	신빈현 平頂山鎮 平頂山村 范家街組 小荒溝	20여기	방단적석연접묘, 단실석실묘	XB22-0130으로 편호
우가촌고분군	신빈현 葦子峪鎮 于家村 西嶺崗	20여기	석개묘, 적석묘	XB22-0143로 편호
석묘자구고분군	신빈현 下夾河鄉 雙河村 太子城組 石廟子溝	5기	방단석실석개적석묘	XB22-0223으로 편호, 주변에 태자성이 위치
석인구고분군	신빈현 木奇鎮 下灣子村 馬家堡組 石人溝		적석석실연접묘	XB22-0083으로 편호

4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7 「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 『考古』 2007-10

41) 肖景全·鄭辰, 2007 「抚顺地区高句丽考古的回顾」 『東北史地』 2007-2

42) 肖景全·鄭辰, 2009 「三十年來抚顺地区的高句丽考古發現與相關問題研究」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吉林大學出版社; 肖景全·鄭辰·金輝, 2014, 「新賓滿族自治縣近年來發現的高句麗積石墓」 『東北史地』 2014-5

고분군명	위치	고분수	고분유형	비고
장경고분	신빈현 木奇鎮 穆家村 章京 10組	1기	방단적석연접묘	XB22-0084로 편호
요가산고분군	신빈현 上夾河鎮 上夾河村 河北組 姚家山	11기	무단석광묘, 석실적석묘	XB22-0038로 편호
남대지고분	신빈현 紅升鄉 關家村 南大地	1기	방단석실적석묘	XB22-0097

### (5) 통화지역

통화지역은 고구려의 수도 인접지역인 만큼 많은 고구려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데, 하룽두 고분군과 남두둔 고분군을 발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하룽두고분군은 통화현 大都嶺鄉 下龍頭村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통화시문관회관공실이 발굴하였다. 46기의 고분을 확인하였는데, 계단석실적석묘·계단광실적석묘·적석연접묘라는 고분 유형과 규모 등을 파악하였다. 보고자는 고구려 초기 고분군으로 파악하였다.<sup>43)</sup>

남두둔고분군은 통화시 金廠鎮 江沿村 6隊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통화시문관회관공실이 발굴하였다. 50여기의 고분을 확인하였고, 계단석실적석묘·계단광실적석묘·연접묘 및 석봉묘라는 고분 유형과 규모, 구조 등을 파악하였다. 보고자는 각기 다른 고분 유형을 각기 다른 부족 간의 융합으로 보고 있다. 또한 江沿村 지역에서 고분군 이외에 거주지와 제사터 등이 발견된다고 하면서 졸본부여의 초기 거주지로 파악하고 있다.<sup>44)</sup>

### (6) 무송지역

무송지역에서는 대방(황)정자 고분군을 발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대방(황)정자 고분군은 백산시 무송현 大方村 대방정자산에 위치하고 있다. 2008년 제3차 문물조사 때 무송현 문물보관소가 대방정자산 정상에 있는 6기의 적석무지를 조사하고 편호하였는데 고구려 고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토기편 등을 수습하였다. 2011년 6월과 9월에는 吉林大學邊疆考古中이 조사하면서 무단석광적석묘라는 고분 유형과 규모 및 고분 구조 등을 파악하였다.<sup>45)</sup>

43) 通化市文管會辦公室, 2006 「通化江沿遺蹟群調查」 『東北史地』 2006-6

44) 通化市文管會辦公室, 2006 앞의 논문.

45) 馮恩學·馬天夫, 2012, 「抚顺大方(荒)頂子積石堆調查報告」 『邊疆考古研究』 11

## 2) 고구려의 주요 성곽 조사 현황<sup>46)</sup>

중국내 고구려 성곽 가운데 1940년대 무순 고이산성, 1970년대 집안 국내성, 1990년대 무순 고이산성, 환인 오녀산성, 심양 석대자산성, 그리고 2000년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환인 오녀산성, 집안 국내성, 산성자산성 등은 대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바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2005년~2015년 사이에 서풍 성자산산성, 등탑 백암성, 환인 고검지산성, 봉성 봉황산성, 통화 자안산성, 유하 나통산성, 개주 고려성산성, 길림 용담산성, 도문 성자산 등 고구려의 지방 거점성을 중심으로 발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5년 이후 조사·발굴되고 있는 고구려 성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요령성 지역

요령성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 가운데 환인 고검지산성, 봉성 봉황산성, 개주 고려성산성, 등탑 백암성, 서풍 성자산산성, 그리고 신빈 영릉진고성 등이 발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환인 고검지산성은 환인현 華來鎮 高儉地村 腰段組 동북쪽 산정상에 있는 고로봉식 산성이다. ‘山城保護北城牆維修加固工程’에 맞춰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본계시박물관·환인현 문물국이 2008년 9~10월, 200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발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성 북벽 서쪽구간의 북문지, 등성시설, 치 유적을 조사하였다. 또한 철기, 오수전 등 화폐,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축조방식 및 돌구멍 등을 토대로 고구려 초기 산성으로 보면서 토기 및 오수전을 근거로 장기간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sup>47)</sup>

봉성 봉황산성은 鳳城鎮 古城里 鳳凰山의 주봉인 攢雲峰과 맞은편 東大頂子峰을 둘러싸고 있는 고로봉식 산성이다.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2006년에 ‘遼寧省高句麗遺跡保護工程項目’으로 발굴한 후 2007년과 2010년에 계속 발굴이 이어졌다. 2006년 9월~11월에는 산성 북벽과 연결되어 있는 망대, 1호 문지, 2호 문지, 치, 초소, 돌구멍 등을 조사하였다. 2007년 7월~12월에는 성내 2호 요망대와 대형 건물지 등을 발굴하였다. 2010년 7월~11월에는 제3호 문지와 제4호 문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제3호 문지에서 탄화 목재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sup>48)</sup>

개주 고려성산성은 개주시 靑石嶺鎮 高麗城子村 동쪽 石城山(高麗城山)에 위치한 고로봉식 산성이다. 2013년 전국중점문물단위로 지정된 후, 개주시 정부는 문화재 보호와 관광개발 중점

46) 이 절은 성곽 관련 주요 발굴 보고서와 더불어, 백종우 2016 「중국내 고구려산성의 최근 발굴 현황과 성과」 『동아시아고대사연구학술회의』, 연변대학을 참고하였다.

47) 梁志龍·王俊輝, 2011 「遼寧省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 2011-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008-2009年遼寧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發掘簡報」 『東北史地』 2012-3

48) 李龍彬·司偉偉, 2008 「鳳城市高句麗鳳凰山山城」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사업구역을 조성하고자 모색하였는데, 2015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와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를 초청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 4월에 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개주시문물국 등이 고구려산성고고팀을 구성하고, 제1단계 5개년 발굴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2015년 12월까지 金殿山유적지 일부, 金殿山 동남측의 대형 건물지 일부, 4호 문지 일부 등을 발굴하였다. 금전산유적지에서 많은 기와편을 수습하였다. 金殿山 동남측의 대형 건물지는 길이가 약 100m이고, 재슬래그·작은 철덩이·목탄 등을 섞인 회토를 깔아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근처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수습하였다. 4호 문지 근처에는 웅성 흔적과 함께 연화문 와당 잔편을 수습하였다. 이 외에도 건물지·저수지·재구덩이·고분 등 고구려 시기의 유적과 기와편·토기편·철기·석기 등 고구려시기의 유물이 대거 출수하였다. 보고자는 축조연대를 5세기 초로 보고 있고, 성내에서 많은 절구가 발견되는 것은 흔치 않다고 하면서 산성의 성격 및 인구수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탑 백악성은 燈塔市 西大窪鄉 官屯村 관할 城門口村의 동쪽 산 정상에 위치한 사모봉식 산성이다. 발굴은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2009년 7월~11월에는 서쪽과 남쪽 절벽의 開口部와 성내 진입로 주변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고구려시기 성벽과 치, 요급 시기의 웅성 문지 등을 확인하였고, 고구려~요급시기의 토기·철기·동기·석기 등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2010년 5월~12월에 이루어진 발굴을 통해 동벽 북단의 1호 치 근처에서 문지 1곳, 서북벽에서 치 4곳을 확인하였고, 고구려~요급시기의 토기·자기·석기·동기·골기 등 300여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sup>49)</sup>

서풍 성자산산성은 서풍현 涼泉鎮의 성자산에 위치하고 있는 고로봉식 산성이다. 2007~2008년에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서문, 수문, 요망대, 주거지 등 발굴조사하였다. 서문에서 웅성구조와 더불어 계단 형태의 臺 흔적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벽 정상에서 남쪽으로 향한 완경사 지점에 있는 18기의 구덩이를 병영지로 추정하였고, 병영지 남쪽편의 수혈주거지에서 온돌을 확인하였다.<sup>50)</sup>

신빈 영릉진고성은 신빈현 서쪽 永陵鎮 동남쪽의 하곡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평지성이다.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여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다. 2004년 10월~11월에는 新賓縣赫圖阿拉城文物管理所와 함께 동벽 남북 양단에 대한 절개를 실시하였고, 2005년 9월~11월에는 1500평방미터를 발굴하면서 주요 성벽에 대한 절개를 실시하였다. 2006년 5월~11월에는 무순시박물관과 신빈현赫圖阿拉城文物管理所가 성내부에 5×5m의 피트 98개를 설치하면서

49) 蘇鵬力, 2011 「燈塔市燕州城址」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홈페이지 (<http://www.lnwwkg.com>) 田野考古 게시판

50) 周向永, 2009 「西豊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 2009-02; 周向永·許超,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2450평방미터를 발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기단부·주거지·재구덩이 등의 유구를 발견하였고, 암키와·수키와·와당 등의 기와를 수습하였다. 2008년 4월에는 동문과 서문을 발견하기도 하였다.<sup>51)</sup>

한편 2009년 춘계 전국 제3차 문물조사에서 몇 개의 산성이 고구려산성으로 비정되었다. 開原市 靠山鎮 龍灣村 용만소학교 근처에서 소형 산성이 발견하였는데, 고구려의 승문 기와편이 출토되면서 고구려성으로 판정되었고, 용만산성으로 명명되었다.<sup>52)</sup> 심양시 瀋北新区 馬剛鄉 鐵營子村 동쪽에 위치한 營盤山城의 경우 산에 의지하여 방어시설을 갖추고 낭떠러지를 충분히 이용하였던 점, 고로봉식 산성에 속한다는 점, 흙으로 성벽을 쌓음으로써 고구려 중후기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 망대가 발견된다는 점, 산성에서 출토된 토기와 돌절구가 고구려 유물의 특징을 갖추는 점 등을 들어 고구려산성으로 비정되었다.<sup>53)</sup> 심양시 瀋北新区 馬剛鄉 董樓子村 동쪽에 위치한 董樓子山城의 경우에도 산정식 산성이라는 점과 석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營盤山城과 같은 근거로써 고구려성으로 비정하고 있다.<sup>54)</sup>

## (2) 길림성 지역

길림성 지역에 고구려 성곽 가운데에는 통화 자안산성, 길림 용담산성, 유하 나통산성, 도문 성자산산성 등이 발굴조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화 자안산성은 통화시 江東鄉 自安村 5組의 북쪽 산에 위치한 고로봉식 산성이다. 2004년에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신청하면서 2004년 5~6월 약 40일에 걸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통화시문물관리공실이 중심이 되어 문지(1호), 배수시설(1·2호), 성내 남부의 소형 대지 등을 발굴하였는데, 발굴과정에서 주거지·재구덩이 등을 확인하였고, 철기·동기·토기 등의 유물 등도 수습하였다. 한편 자안산성이 2006년 『길림성 고구려 유적 보호 방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주도로 성벽, 성문지, 배수시설, 거주지 등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이 진행하였다. 보고자는 1호 성문은 웅성문, 2호 성문은 편문, 3호 성문은 문루가 있는 현문식, 4호 문지는 어긋문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자안산성에 대해 비록 고구려성이기는 하지만, 漢代의 특징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보면서 중원문화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전한시기의 제2현도군 고지였다고 파악하고 있다.<sup>55)</sup>

51) 呂學明, 2005 「新賓縣永陵漢代城址」 『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李新全·李龍彬, 2006 「新賓縣永陵漢城址」 『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熊增龍, 2007 「新賓縣永陵南城址」 『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李新全·蘇鵬力, 2008 「新賓縣永陵南城址」 『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李新全·蘇鵬力, 2009 「撫順市新賓永陵南城址」 『中國考古學年監』, 文物出版社

52) 周向永·許超,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53) 趙曉剛, 2013 「瀋陽營盤山山城和董樓子山城考古調查」 『東北史地』 2013-2

54) 趙曉剛, 2013 앞의 논문.

길림 용담산성은 길림시 龍潭區 북부 용담산공원 안에 위치한 고로봉식 산성이다. 2012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가 용담산-帽儿山 國家考古遺址公園 건설을 위해 발굴을 진행하였고, 2013년 10~12월에는 길림시문물관리처와 길림시박물관이 발굴을 진행하였다. 2013년 발굴에서는 동벽 절개와 서문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서문을 어긋문식 옹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sup>56)</sup>

유하 나통산성은 류하현 大通溝鄉과 聖水河子鄉이 접하는 지역에 있는 산봉우리에 위치한 고로봉식 산성이다. 2006년~2009년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通化文管辦·유하현문물보관소가 중심이 되어 단계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 2006년 10월~11월에는 사전 시굴조사로 서성내 저수지와 성벽에 대한 소규모 절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 6월~10월에는 서성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을 진행하여 지하매장 유구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산성 내 龍潭 북부 대지 및 남문, 서북 각루에 대하여 발굴을 진행하였다는데, 서성 용담 북측 대지에서 주거지 3곳을 발견하였다. 2008년 9월~10월에는 북문 북측 대지를 발굴하여 주거지 12기를 발견하였고, 2009년 7월~9월에는 2008년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북문 서측 대지 위의 주거지를 계속 발굴하면서, 주거지 12기의 선후 관계 등을 확인하였다. 발굴 과정에서 철기, 토기, 고리, 옥기, 자기 등이 수습되었다. 보고자는 비록 송금대 유물이 출토되고 있지만 성곽과 점장대의 형태가 집안 환도산성과 일치하다고 보면서 고구려 중후기의 산성으로 보고 있다.<sup>57)</sup>

도문 성자산산성은 도문시 長安鎮 磨盤村 山城里屯의 城子山에 위치한 고로봉식 산성이다. 현재는 磨盤村山城으로 개칭되었다. <吉林省图们市磨盘村山城保护规划>의 일환으로 2013년 9월~2015년 10월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延边州文物保护中心이 동문, 북문, 북문 동측 각루·성내 주거지·정원터를 발굴하였고, 성벽을 절개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동문에서 서남 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주거지 1곳을 발견하였고, 2014년에는 북문 동단 성벽을 발굴하였다. 발굴과정에서 철기·건축구재·돌절구·돌절긋공이·석기·송금대 화폐 등 수백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한편 輝南 휘발성의 경우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가 2010년과 2013년에 내성, 중성, 외성 성벽의 절개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내성 문지를 발굴하였고, 중성 내 300평방미터 면적에 대하여 시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거지 2기·재구덩이 10여기를 정리하였다. 발굴과정에서 동기·철기·토기·자기·골기·각기 등 200여점이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명대 유물이고

55) 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 『北方文物』 2010-3 ; 徐坤, 2011 『自安山城的考古收穫與調初步認識』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5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4 「2013年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考古發掘收穫」 『東北史地』 2014-3 ; 王綿厚, 2015 「扶余城, 扶余部與扶余川再考論」 『東北史地』 2015-6.

57) 李東, 2010 「羅通山城考古調查與試掘」 『中國考古學年鑑-2009』 文物出版社 ; 李東, 2011 「柳河縣羅通宋金時期山城」 『中國考古學年鑑-2010』 文物出版社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고구려산성이 아닌 명대에 초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58)</sup>

### 3) 고구려의 기타 유적 및 유물 조사 현황

고분과 성곽을 제외한 기타유적으로는 집안의 민주유적과 장군총 서남 건축유적지, 건강유적지 등이 발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유적은 집안시 太王鎮 民主村 三隊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크게 동측의 석주유적과 서측의 건물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요청으로 2003년 8월~11월에 석주유적 서측의 채소밭구역을 긴급 구조발굴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물지 3기, 석주 기초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건축 규모에 비해 건축 부재는 매우 적게 출토되었는데, 완성이 되지 못한 고구려 시기의 건물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건강유적은 집안시 麻線鄉 建疆村에 위치하고 있다. 通天포도주공장 건설과정에서 2010년 10월~11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공장부지내 1·2층 문화퇴적층에서 토기편과 기와편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구려시기 유적으로 파악하였다. 2011년 5월~8월에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이 발굴을 진행하면서 유적지의 연대·성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출토된 기와가 고구려 초기 왕릉인 마선구 2378호묘와 마선구 626호묘에서 출토된 기와와 비슷하다고 보면서 後漢 말보다 늦지 않는 고구려 초기로 보고 있다. 또한 유적지의 축조 연대나 기와의 특징이 유적지 북측에 위치한 마선구 626호묘와 유사하고, 많은 고구려 왕릉급 적석묘 주변에서 陵墓와 관련된 유적지가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마선구 626호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sup>59)</sup>

한편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 가운데 하나인 장군총의 서남쪽에서 건축유적지가 확인되고 있다.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가 2003년 8월~9월에 발굴을 진행하면서 벽체·散水·배수구·문지 등의 유적으로 조성된 고구려시기 대형건축지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 방대한 규모, 장군총과의 방향 부합 등을 토대로, 축조연대가 장군총에 근접하다고 보면서, 장군총의 제사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60)</sup>

2013년 1월에 한국학계를 흥분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집안에서 새로운 고구려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집안고구려비”로 명명된 이 비석은 2012년 7월 29일 집안시 麻線鄉 麻線村에 거주하는 馬紹彬이 포도나무 철선의 지주석으로 쓸 돌을 찾다가 麻線河에서 발견하였다. 그는

5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4 『東北史地』 2014-3

5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 「集安高句麗早期遺存研究新進展-集安建疆遺址考古發掘收穫」 『東北史地』 2012-4

6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1, 「集安將軍墳西南建築遺址的考古發掘」 『邊疆考古研究』 10

돌에 글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날 집안시문물국을 방문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석비는 납작한 장방형이고, 하부가 상부에 비하여 약간 넓으며, 윗부분은 圭形이다. 재질은 화강암으로, 남은 높이는 173cm, 너비는 60.6~66.5cm, 두께는 12.5~21cm, 무게는 464.54kg이다. 글자는 예서체로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세로로 썼다. 앞의 9행은 각각 22자, 마지막 행만 20자가 있는 등 원래는 218자가 있었는데, 일부 글자는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다. 집안 고구려비가 발견된 이후 2013년 1월 공식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156글자를 판독하였다. 그리고 비석을 세운 시기와 관련하여 7행 10~11자를 ‘戊子’로 판독하여 고국양왕 5년인 388년으로 설정하면서, 고국양왕대에 수묘제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광개토대왕이 세운 수묘비로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집안 고구려비가 출토된 지점은 출토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왕릉급 고분인 千秋墓의 守墓煙戶 거주지역이고 천추묘에 대해서는 고국양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sup>61)</sup>

### 3.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

고구려 벽화고분 및 고분 벽화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생활문화사, 보존과학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09년 이후 고구려 벽화고분과 고분벽화를 이용한 연구 성과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역사·고고학적 성과

먼저 벽화고분과 관련하여 고분의 편년이나 피장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학자들 간의 견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벽화고분의 편년은 주로 묘실 구조, 벽화 내용 그리고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시도해왔는데, 묘실 구조의 변천이나 벽화 내용의 변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면서 그 변화 시기를 어느 시기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최근에 벽화고분에 대한 편년을 시도한 연구 성과를 보면, 먼저 묘실 칸의 수와 벽화 내용의 조합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기타 여러 요소 등을 감안하여 편년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실분+인물생활풍속도(I-A)·다실분+장식무늬(I-B)·다실분+사신도(I-C)·이실분+인물생활풍속도(II-A)·이실분+장식무늬(II-A)·이실분+사신도(II-C)·단실+인물생활풍속도(III-A)·단실분+장식무늬(III-B)·단실분+사신도(III-C)·기타(IV)로 나누고, 선후 관계를 I-A·III-A → II-A·I-B·II-B·I-C·II-C → III-B·

61) 集安市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III-A → III-C 순으로 파악한 후에, 안정적인 편년을 가진 고분과 고분의 개별 요소, 그리고 유물 등을 고려하여 편년을 시도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벽화로 확인된 산성하 고분군의 적석묘에 대해서도 벽화가 있는 적석묘인 우산하 3319호묘를 참고하고 벽화 주제를 생활풍속도로 유추하면서 산성하 725호묘·산성하 798호묘·산성하 1408호묘는 5세기 전반, 산성하 1405호묘는 5세기 중반 등으로 추정하였다.<sup>62)</sup>

한편 고구려 벽화고분의 전통과 동아시아 고분 미술의 맥락을 중시하면서 고분의 편년을 비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비교적 초기 벽화고분으로 추정되는 무용묘에 대해 만보정 1368호묘와 각저묘 다음의 초기 고분이라는 점, 4세기 중국 고분 미술과 친연성이 강하면서 漢代 미술에 보이는 요소가 보인다는 점, 무용묘에서 보이지 않는 불교 및 전쟁 관련 주제가 집안 중기 벽화고분에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5세기보다는 더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sup>63)</sup>

고구려의 벽화고분 가운데 묘지명이나 목서를 통해 그 피장자를 알 수 있는 벽화고분은 안악 3호분, 덕흥리 벽화고분, 모두루묘가 있다. 이 가운데 안악 3호분과 모두루묘는 그 피장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덕흥리 벽화고분은 피장자인 유주자사 진의 국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악 3호분의 경우 피장자에 대해 동수, 미천왕, 고국원왕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두루묘에 대해서는 모두루, 염모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덕흥리 벽화고분의 피장자인 진의 국적에 대해서는 중국인, 고구려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안악 3호분의 피장자는 동수, 모두루묘의 피장자는 모두루, 그리고 진의 국적에 대해서는 중국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sup>64)</sup> 한편 덕흥리 벽화고분의 피장자인 진에 대해서 묘지명보다는 목서와 도상에 더 관심을 두면서 국적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막부관리도와 13군태수도를 주목하였는데, 막부관리도에는 복식 등 중국식 요소가 많고 목서에 보이는 관직이 남북조시기 막부에 보인다고 하면서 남북조시기의 막부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13군태수도에서 6군은 실제 다스렸던 유주를 나타내고, 제군은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허상으로 파악하면서, 6군이 일치하고 있는 후연이 진의 국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sup>65)</sup>

62) 정호섭, 2010a 「고구려 벽화고분의 편년에 관한 검토」 『선사와 고대』 33

63) 박아림, 2009a 앞의 논문.

64) 정호섭, 2010b 「고구려 벽화고분의 명문과 피장자에 대한 제문제」 『고구려발해연구』 36

65) 김근식, 2012 「덕흥리 벽화고분의 목서와 도상검토를 통해 본 진의 국적」 『동국사학』 52

## 2) 미술사적 성과

고구려 벽화고분에 있는 벽화들은 미술사적으로 큰 평가를 받고, 이에 관련한 연구 성과들도 대거 소개되었다. 그 동안 고구려 벽화고분의 미학적인 우수함을 드러내는 연구성과들이 소개되었는데, 최근에도 고구려 고분벽화 속 인물풍속도에 대한 미학적 특징과 더불어 그 우수성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의 인물풍속도 속에서 대상의 평면화, 원근법의 배제, 나열형의 구성, 자유로운 색채 사용, 인물의 비개성적 이상화, 공간 확장적 화면구성 등이 보인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선시대 민화에까지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sup>66)</sup> 미술사와 관련해서는 주제별, 사상적·상징적 측면, 고구려와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교류 등을 규명한 연구성과들이 소개되고 있다.<sup>67)</sup>

먼저 주제별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인물상, 문양, 日象과 별자리 등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이 눈이 띈다.

인물상과 관련해서는 안악 3호분과 덕흥리 벽화고분의 인물화를 토대로 사상적인 배경과 조형적 특징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상화 속에 개성과 특성을 포착하는 초상화 특유의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유교적 이상향의 전형성을 강조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담겨져 있다고 언급하였다.<sup>68)</sup>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는 문지기를 통해 고구려인의 사후관과 문화교류 양상을 규명하려는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지기의 표현은 문에 대해서 입구이자 다른 세계로의 경계로서 중요시했던 고구려인의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고, 5~6세기 불교형 요소들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역사형 문지기와 신장형 문지기는 북조를 통한 서역과의 직·간접적인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sup>69)</sup>

최근에 연구 대상이 되었던 문양으로는 연화문, 王자문, 나무 등을 들 수 있다. 연화문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삼분연화문을 세계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삼분연화문과 비교하여 그 고유성과 국제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성과가 있었다.<sup>70)</sup> 王자문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기존에는 그 의미에 대하여 부처의 상징화 혹은 왕이나 왕족 등의 표방이라는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고구려인들의 장례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제의적인 상징으로 보면서 王자문

66) 임두빈, 2012 「고구려 고분벽화의 미학적 해석」 『예술과 미디어』 11

67) 박아림, 2009b 「고구려 벽화고분의 미술사적 연구 성과」 『고구려 벽화 연구의 현황과 콘텐츠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97쪽.

68) 이광수, 2013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고대 동아시아의 조형의식과 표현」 『고조선단군학』 28 ; 2015 「고대 한민족 인물상의 조형적 특성」 『고조선단군학』 32

69) 김수민, 201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문지기에 대한 소고」 『한국고대사탐구』 8

70) 편무영, 2009 「고구려고분벽화 삼분연화화생의 국제성과 고유성」 『동아시아고대학』 20

錦帳의 실제 제작과 묘실 내 설치 가능성을 상정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sup>71)</sup>. 반면 “王”자문을 문양이 아닌 글자로 파악하면서 고구려의 태왕권과 연결시키려는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옥도리 벽화묘에 “大+王”의 조합이 나타나는 만큼 王자문을 문자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남포지역의 “王”자문이 있는 벽화고분은 평양 천도 이전에 축조된 것이고 환인·집안 지역에 위치한 “王”자문이 있는 벽화고분은 평양 천도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고구려왕의 수도에서 떨어진 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귀족들의 왕의 유지를 받는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sup>72)</sup> 그리고 고분벽화에 그려진 나무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 주목하기도 하였는데, 나무와 나무가 그려져 있는 고분 벽화의 내용을 서로 연관시켜 각 고분 벽화에 그려진 나무의 각기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sup>73)</sup>

日象과 관련해서는 먼저 日象의 형태를 분석한 다음, 그 형태를 고구려의 시대적인 상황 및 천하관의 변화를 연관시키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날개를 접고 서 있는 瑞鳥이 그려진 日象은 천명의 전달자인 瑞鳥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정치적 안정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반면 날개를 반원형으로 펼친 채 서 있는 瑞鳥가 그려진 日象은 瑞鳥가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치적 불안정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구려 천하관의 와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sup>74)</sup> 그리고 별자리와 관련하여 고구려가 중국이 채택한 28수의 배열과 별자리 모양을 채택하면서 그 방위 배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천문지식과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천문지식이 융합되어 있던 고대 천문학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연구 성과가 있었다.<sup>75)</sup>

고구려의 사상적·상징적 측면을 바라본 연구 성과들을 보면 주로 불교나 도교<sup>76)</sup> 등 종교적인 요소 혹은 이에 따른 내세관 등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보면 선·불적 혼합적인 내세관의 특징과 그 유입 경로,<sup>77)</sup> 선·불적 혼합적인 내세관 속에서 한국적인 이상향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반면<sup>78)</sup>, 도교적인 해석과 불교적 해석 등 중원적 시각에서 벗어나 타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해 고구려의 사후관을 살펴보려는 새로운 연구도 등장하였다.<sup>79)</sup>

71) 박아림, 2012 「고구려 벽화의 장식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72) 김근식, 2015 「고구려 ‘王’자문 벽화고분의 편년과 형성 배경」 『목간과 문자』 14

73) 장연경, 2013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나무의 기능과 표현」 『기조조형학연구』 14

74) 김주미, 2009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日象文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34

75) 박창범·양홍진, 2009 「고구려 고분 벽화 별자리와 천문 체계」 『한국과학사학회지』 31

76) 김일권, 2010 「고구려 벽화의 仙과 하늘의 상상력 실제」 『한국미술사학연구』 268

77) 김건희, 2013 「고구려의 대외정책과 고분벽화의 내세관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고조선단군학』 29

78) 김건희, 2012 「고구려 고분벽화에 내재된 선·불 혼합적 내세관을 통한 한국적 이상향의 원류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43

79) Andrea De Benedittis, 2012 「고구려인의 사후관념과 그 표현」 『한국사학보』 48

한편 고구려의 고분 벽화와 다른 지역 간의 고분 벽화의 비교를 통해 동서교류를 통한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국제적인 성격과 문물교류 양상, 그리고 고구려 특유의 색채를 규명하려는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연구 성과를 보면 먼저 북조의 고분벽화와의 비교를 통해 북조 -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물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 성과도 있었다.<sup>80)</sup> 중앙아시아와 연관성을 주목하는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는데, 먼저 고구려 초기 고분벽화와 중앙아시아의 고대 암각화를 비교하여 동질성을 찾아냄으로써 고구려 고분벽화가 중앙아시아 고대미술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보이는 불교관련 서역문화 요소를 주목하면서 고구려가 불교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북중국길 이외에 내륙아시아 초원길을 주목하기도 하였다.<sup>81)</sup> 또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의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역문화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소그드 미술이 아닌 소그드 미술을 통해 전달된 문화의 원류를 보아야 한다면서 소그드미술에 영향을 준 유적과 유물을 살피려는 연구도 있었다.<sup>82)</sup> 이들 연구성과 모두 기본적으로는 고분 벽화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 북조 - 고구려로 이어지는 문물교류양상을 인정하고 있다.

### 3) 생활문화사적 성과

한국 고대사 연구는 주로 정치사 혹은 사회경제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역사 연구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역사의 전체상을 상정하여 재구성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sup>83)</sup> 생활문화사 관련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 문화와 관련해서 의생활, 주거생활, 그리고 음악과 춤 등이 주목되었다.

먼저 고구려 생활문화사 관련 연구 분야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의생활 즉 복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문헌 기록 속에서는 고구려의 복식 문화와 관련한 기록이 매우 소략하지만, 고구려 벽화고분 속에 고구려인들이 복식을 착용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고분 벽화를 참고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고구려의 冠帽를 포함한 복식과 관련해서는 먼저 고분 벽화 속에서 연주·무용·수렵·교예 등 고구려의 놀이문화 속에 드러난 고구려인들의 복식 착용 모습 등<sup>84)</sup> 고구려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소개하고, 문양을 포함한<sup>85)</sup> 복식을 재현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sup>86)</sup> 또한 고구려의

80) 정병모, 2013 「중국 북조 고분벽화를 통해 본 진파리 1·4호분과 강서 중·대묘의 양식적 특징」 『강좌미술사』 41 ; 송준혁, 2015 「북위 평성시기 고분벽화와 고구려 고분벽화와의 연관성」 『선사와 고대』 46

81) 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82) 박아림, 2014 「고구려고분벽화와 북방문화」 『고구려발해연구』 50

83) 전호태, 2012 「고구려 생활문화사 연구론」 『역사와 현실』 83, 59~60쪽.

84) 임린·이태호, 2010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식」 『복식』 60

85) 임현숙, 2009 「고구려 복식 재현을 위한 장식문양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31

복식 속에서 고구려의 고유성과 외래성 혹은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면서 복식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복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요인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먼저 4세기~6세기 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벽화에 나타난 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중국의 복식과 비교·분석하여 고구려의 복식을 재현하면서 고구려 고유의 복식을 찾아내고 또한 고구려가 외래식 복식을 수용하는 과정을 소개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복식에 착용한 금동대, 좁은 간격으로 치마 끝까지 주름을 뺏뺏하게 잡아준 치마 등에 대해서는 고구려 고유성을 갖춘 복식으로 보았다. 또한 고위층들이 입었던 붉은 포의 경우 위진남북조 시기의 복색과 다르다고 보면서 외래식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고구려의 고유의 특색인 금동대를 착용하고 관모가 아닌 나관을 썼으며 폐슬 착용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고구려가 복식문화에 있어 고유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외래 복식 수용에 있어서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sup>87)</sup>

또한 평양지역 고분벽화에 그려진 묘주의 복식을 주목하면서, 그 복식에 담겨진 정치적·사회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연구 성과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평양지역 고분벽화 속 묘주가 입은 복식이 중국식이라는 견해는 부정하고 있다. 또한 묘주 대부분이 武冠 + 포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복식은 4~5세기 고구려의 관등제도 재편과정에서 등장한 服制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공복이고, 공복 제정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계층적인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88)</sup>

한편 집안지역·평양지역·남포지역·안악지역 등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지역별 복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를 가져 오게 된 요인을 정치·사회적 변동을 포함한 인문역사 환경적 측면에서 규명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집안지역은 절풍+좌임직령+원점 무늬장식+加襪+주름치마가 특색인데 반해, 평양지역은 여밈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무늬 없는 옷이 특색인데, 이는 낙랑문화에 집안식 고구려 문화에 더해져 나타난 특색으로 보았다. 또한 남포지역에서 절풍을 머리에 쓴 인물, 좌임이나 우임 저고리에 포를 걸친 인물, 원점문 장식 옷과 무늬 없는 옷을 입은 인물이 동시에 보이는 것은 집안식과 평양식의 복식 융합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적 경계지대였던 남포지역의 접이지대적 성격이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안악지역에서는 책, 좌임, 원점문과 무문의 조합과 공존을 보이는데, 이는 부분적 대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지대로 이행해 가던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sup>89)</sup>

86) 강인애·김효숙 201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자복식의 디지털 재현」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김효숙·강인애, 2012 「고구려시대 무용총 여자무용수 복식의 재현」 『한국디자인포럼』 35 ; 정완진, 2012 「고구려 백라관의 형태 비정」 『동양학』 51

87) 신혜성, 2009 「고구려 복식에 표현된 고유성과 자주성에 관한 소고」 『역사민속학』 31

88) 이경희, 2009 「평양지역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묘주복식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6

89) 전호태, 2015a 「고구려 복식문화 연구론」 『한국사연구』 170

고구려의 식생활 또한 복식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기록과 관련 유적 및 유물 자료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먼저 음식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주안을 두면서 고구려 음식문화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더불어 음식 문화의 변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4세기 이전 식량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밭농사로 오곡이 주식이었다가, 4세기 이후 고구려 영역이 요동지역과 대동강 평야지대로 확대되면서 농경지역이 확대되고 불교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차 문화 등 새로운 음식문화가 수용되고 음식의 조리방법 및 종류 등이 보다 다채로워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성지역이 밭농사지역이고 평양지역이 각각 밭·논 혼합농사지역으로 양 지역간의 문화 차이가 있는 만큼 음식문화에도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sup>90)</sup>

또한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식생활 공간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식사 풍습을 주목하면서 귀족층 주택에서의 부엌과 부속건물들의 배치, 고구려 특유의 식사 풍습 등을 살펴보는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 성과에서는 고분벽화 상에서 부엌 및 부속건물은 저택 오른쪽에 배치되었고 기능 분화로 별도의 동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집안지역에서는 높은 의자에 앉는 입식 풍습, 평양·안악지역에서는 낮은 평상이나 좌상에 앉아 식사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면서, 전자는 중앙아시아, 후자는 위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귀족들이 집안에서 평상이나 좌상 등을 이용한 것은 땅속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하기 위함이고, 일반 민과 달리 귀족층은 저택과 부엌이 독립된 만큼 난방과 취사가 별개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난로 같은 난방기구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sup>91)</sup>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전에는 “고구려인들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나라 안의 촌락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떼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서 고구려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음악과 관련해서는 현악기·관악기·타악기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악기를 소개하고,<sup>92)</sup> 그러한 악기를 재현하려는 시도나 고구려의 대표적인 악기인 거문고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

먼저 악기의 재현을 위해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보이는 악기의 모습은 물론 사료 해석, 같은 계통의 악기, 인접지역에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악기, 해당 악기에 대한 연구 등 관계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유추·복원하는 이른바 “도상기록악기복원(圖像

90) 전호태, 2013b 「고구려의 음식문화」 『역사와 현실』 89

91) 김경복, 2010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의 부엌과 식사 풍습」 『한국사학보』 39

92) 전호태, 2013c 「고구려의 음악과 놀이문화」 『역사와 경계』 88

紀錄樂器復原)”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다<sup>93)</sup>. 거문고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현악기들이 당시 중국에서 연주된 악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악기로 구체화되기 이전의 원시형 악기이고 고조선에서 箏篥 등을 연주되었음을 감안하여, 거문고가 고조선의 현악기를 참고로 해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기존의 전해인 臥箏篥 기원설과 七絃琴 기원설을 부정하였다.<sup>94)</sup>

한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주악도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고취악대의 성격을 주목하였다. 특히 행렬도에 보이는 고취악대에 대해서 생활풍속도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지배계층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 본 연구가 있었던 반면,<sup>95)</sup> 장송의 측면을 중시하면서 ‘장송형 길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소개되었다.<sup>96)</sup>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춤과 관련해서는 고분벽화에 나타난 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춤에 담겨진 의미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는데, 하늘 송배에 바탕을 둔 비천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97)</sup> 이러한 생활문화사 복원 연구는 고구려의 생활상을 규명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sup>98)</sup>

앞에서 언급한 연구 성과를 보면 대체로 각자 주제에 맞추어 여러 고분 벽화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고구려의 주요 벽화고분을 개별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후 당시 고구려의 정치적·국제적 정세와 연관시키면서 각 고분 벽화에 담겨진 고구려의 모습을 읽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먼저 덕흥리 벽화고분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는 무덤의 주인인 진의 불교신앙·승선적 혹은 계세적 내세관·한계 문화에 대한 애착·남포지역에 존재하던 다양한 문화색이 아울러지는 모습, 장천 1호묘와 통구 사신묘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는 5세기 전반~6세기 전반 고구려와 중국 북조 및 내륙아시아의 유목제국인 유연 사이의 문물교류 양상과 국내성 지역에서 불교로 대표되는 서방의 문화를 수용되고 소화하는 모습,<sup>99)</sup> 안악 2호묘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는 5세기 중반 漢계의 색채가 강하면서 고구려의 변방으로 남아 있던 안악지역이 평양 천도 이후 평양 문화권 안에 들어오는 모습,<sup>100)</sup> 쌍영총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는 5세기 말 평양 천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고구려의 사회 통합·문화 기반 확대 작업의

93) 배승문, 2010 「장천 1호묘 5현악기 복원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4

94) 최현, 2016 「고구려 거문고 연구 재검토」 『공연문화연구』 32

95) 노복순, 2015 「고구려 고분벽화 주악도에 나타난 공연문화 양상」 『공연문화연구』 30

96) 남성진, 2015 「고구려 고분벽화 주악도에 나타난 공연문화 양상」 『비교민속학』 60

97) 고경희, 2011 「고분벽화에 나타난 한국춤의 변모 양상」 『한국체육사학회지』 16 ; 2015 「고구려무용에 내재된 비천적 세계관」 『한국무용연구』 32

98) 강현숙, 2013 앞의 책, 44쪽.

99) 전호태, 2015b 「고구려 장천 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 전호태, 2011 「고구려 통구 사신총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1

100) 전호태, 2009 「고구려 안악 2호분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54

결실과 한계를 보여주었던 모습,<sup>101)</sup> 개마묘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서는 6세기 초 평양지역에서의 선·불 혼합적 내세관이 확산되는 모습,<sup>102)</sup> 진파리 2호묘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서는 6세기 중반 외적 안정과 변영 속에서 대립·분리·분열이라는 이면이 숨겨져 있는 고구려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sup>103)</sup> 등을 확인하였다. 비록 고분 1기가 담아내는 역사·문화적 정보가 역사적 실체의 편린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고분 자체가 분석과 이해의 대상이 된 시대가 남긴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sup>104)</sup> 개별 고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고구려 고분 벽화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은 역사학과 고고학 전공자 이외에도 복식사, 음악사, 체육사, 민속사, 교육학, 보존과학사 등 다양한 전공자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로서 계속 소개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구려사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보다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기존에 주제별 대상을 단순히 유형 분류하고 초보적인 분석을 가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고구려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그 변화 양상의 요인을 파악하거나 그 변화 속에 담겨진 의미를 규명하려는 등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4) 고구려 고분 벽화의 대중 보급 및 보존과학

고구려 고분 벽화는 학자들 간에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고구려 고분벽화의 아름다움과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복식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다양한 문양이나 사신도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계속 살아 숨쉬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sup>105)</sup> 또한 2000년 이후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고분벽화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sup>106)</sup>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3차원 가상현실 영상콘텐츠 개발을 통해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린 유물이나 고구려 고분벽화와 같은 현존하지만 물리적으로 볼

101) 전호태, 2013a 「고구려 쌍영총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6

102) 전호태, 2014b 「고구려 개마총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9

103) 전호태, 2015c 「고구려 진파리 1호묘 연구」 『역사와 현실』 95

104) 전호태, 2011 앞의 논문, 109쪽.

105) 정영호·김은정·배수정, 2009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기하학문양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시물레이션」 『한국복식학회지』 59 ; 한정인·유금화, 2009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한복문화』 12 ; 김성찬, 2012 「고구려 사신도 재해석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 특징을 주제로 한 개발 연구」 『정보디자인학연구』 19

106) 박진호, 2009 「고구려 벽화 디지털 콘텐츠 개발현황과 전망」 『고구려 벽화 연구의 현황과 콘텐츠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185쪽

수 없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제안도 있었다.<sup>107)</sup>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가지게 할 다양한 교육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다<sup>108)</sup> 이렇게 대중들에게 고구려 고분벽화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고분 벽화는 보존의 노력 없이 장기간 방치가 되면 박락되어 퇴색하기가 매우 쉽다. 특히 중국에 있는 고분 벽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분 벽화의 박락과 퇴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분 벽화의 박락과 퇴색을 멈추기 위한 보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분벽화 보존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정치적·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sup>109)</sup>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벽화의 제작 기법과 재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최근에도 석회 마감층 시료를 바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채색 안료 및 채색기법을 살펴보거나,<sup>110)</sup>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용된 회벽체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있었다.<sup>111)</sup>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노력도 중국의 협조 등 국제적인 공조가 없으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고분 벽화의 보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노력 이외에도 세계 보존 학계의 국제적인 공조, 유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 고구려 벽화고분의 기초적 정리와 연구의 활성화<sup>112)</sup>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107) 박소연, 2010 「고구려 고분벽화 3차원 가상현실 영상콘텐츠 개발」 『한국콘텐츠학회지』 8

108) 이지현 외, 2009 「고구려 고분벽화 무용총의 다시점 표현을 통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다문화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디자인포럼』 23 ; 이쌍재, 2011 「고구려 고분벽화의 다양한 감상수업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29

109) 이화수·한경순, 2014 「한국 고대 고분벽화 제작기술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14

110) 한경순, 2010 「고구려 고분벽화 채색기법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34

111) 임권웅, 2009 「고구려 고분벽화 회벽체의 재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112) 전호태, 2014a 앞의 논문.

#### 4. 맺음말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 벽화 및 고구려 주요 유적의 분포 현황과 조사 내용, 그리고 고분벽화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 보았다.

고구려 벽화 고분을 포함한 고구려 유적과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다소 존재한다. 먼저 현재 중국내 고구려 유적의 경우 대부분 한국학자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유적의 개방과 공동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의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분벽화와 관련해서는 주지하였듯이 많은 분야의 전공자들에 의해 고구려 고분 벽화가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데, 고분벽화는 그 특징상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학제 간의 연계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제 간의 이견을 줄어나간다면 고구려사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고구려 고분 벽화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분 벽화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대중들에게 고분벽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고분 벽화를 포함한 고구려 유적이 계속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로 보호되지 못하는 고구려 유적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고구려 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는 어느 때보다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유적에 대한 자료 수집 및 DB화 작업도 병행함으로써 그 기록을 계속해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 유적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학계 간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야만 할 것이다.

발 표

# 최근 북한경내에서 새롭게 조사된 고구려 벽화무덤의 현황과 과제

정경일 (연변대학교 역사학부)





# 최근 북한경내에서 새롭게 조사된 고구려 벽화무덤의 현황과 과제

정경일 (연변대학교 역사학부)

## 〈목 차〉

- I. 머리말
- II. 최근 고구려 벽화무덤 조사 성과
- III. 새롭게 조사된 벽화무덤이 남긴 과제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I. 머리말

지난 20세기 1980년대부터 근 20년 동안 북한 학계에서 고구려 발굴조사는 그 성과가 특기할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미진하였다. 그러나 새 천년인 21세기에 이르러 계획 있게 고구려 성곽을 조사하였는가 하면 태성리3호무덤, 송죽리벽화무덤, 옥도리벽화무덤, 천덕리벽화무덤을 비롯한 10여기의 고구려 벽화무덤을 새롭게 발견소식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 새기에 들어서서 북한학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구려 벽화무덤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요약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II. 최근 고구려 벽화무덤 조사 성과

새 천년에 새롭게 조사발굴된 고구려 벽화무덤을 발굴 시기로 보면 2001년에 태성리3호 무덤과 문화리벽화무덤, 2002년에 송죽리벽화무덤, 2009년에는 선후하여 민속공원1호벽화 무덤과 동산동벽화무덤 및 대성동34호무덤, 2010년에 옥도리벽화무덤, 2011년에 고산동1호 무덤, 2013년에는 호남리벽화무덤, 2016년에 천덕리벽화무덤 총 10기의 고구려 벽화무덤이 조사발굴되었다. 그 중에 종전에 발굴된 고산동1호벽화무덤의 재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9기는 모두 새롭게 발견되고 발굴한 것들이다.

### 1. 태성리3호무덤<sup>1)</sup>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2001년 봄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에서 고구려벽화 무덤인 태성리3호무덤을 포함한 5기의 고구려 석실봉토분을 새롭게 발굴하였다.

태성리3호무덤은 태성리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솟아 있는 해발 67m 되는 상직봉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무덤이 자리 잡은 지형을 보면 북쪽에 무학산, 동쪽에 서학산, 서쪽에 석천산으로 삼면을 둘러 싸고 있으며 남쪽은 충적벌이 펼쳐져 전망이 매우 좋은 곳이다. 태성리3호무덤 주변에는 이미 알려진 태성리1호무덤, 태성리2호무덤, 덕흥리벽화 무덤, 강서삼묘를 비롯한 10여기의 대형 고구려 벽화무덤들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 당시 태성리3호무덤의 봉분은 약 4m 정도 되었고 밑부분이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원래는 밑부분 한변의 길이가 32m 정도인 방대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은 반지하식의 무덤길, 문칸, 앞칸, 앞칸 동서좌우의 2개 곁칸, 안칸, 안칸의 서쪽과 북쪽에 만들어진 회랑, 그리고 북쪽 회랑의 동쪽 끝에서 무덤밖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보조통로로 이루어진 구조가 독특한 대형 석실봉토분이며 방향은 동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다.

무덤길은 남쪽으로 나 있으며 길이 10.6m, 너비 약 3m 정도이다.

무덤길에서 문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두께가 8cm 정도 되는 2장의 큰 화강암 판돌이 세워져 있고 앞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짝문 형식의 돌문이 있다. 앞칸의 크기는 남북 3.14m, 동서 3.34m이며 좌우에는 두개의 곁칸이 있다. 안칸은 동서로 놓인 화강암 대석과 그 위에 세워 놓았던 3개의 기둥들에 의하여 앞칸과 구분되는데 그 크기는 남북 길이 2.5m, 동서너비 2.1m이다.

태성리3호무덤은 천정과 벽체가 도굴로 크게 파괴된 관계로 주제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1) 고적발굴대, 2002.02, 「새로 발굴된 태성리3호고구려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2002년 제1호, pp.37~39; 조선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08, 「태성리3호무덤」, 『조선고고학총서33』 고구려의 벽화무덤(1), 사회과학원, pp.89~91.

다만 문칸의 서벽에 그려진 붉은색 기둥과 코신을 신고 품이 넓은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 부분, 동벽의 붉은색 기둥, 앞칸에 떨어진 벽화 파편 등만 남아있다.

무덤에서는 순금제 장식품들과 청동 팔찌, 붉은 구슬, 황록색 유약이 입혀진 도기그릇들과 쇠관못 그리고 주두, 소로, 첨차 등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건축부재들이 드러났다.

## 2. 문화리벽화무덤<sup>2)</sup>

북한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는 2001년 10~11월에 고구려유적을 조사하는 와중에 황해북도 연탄군 문화리에서 고구려 벽화무덤 1기를 발굴하였다.

무덤은 문화리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은 안길과 주검칸으로 이루어진 단실묘이며 방향은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발굴 당시 무덤무지는 많이 흘러 내렸음에도 방대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안길은 중심 안길인데 안길 입구나 천정부부는 거의 무너졌다. 안길의 크기는 길이 2.98m, 너비 0.85~0.9m, 높이 1.2m이다.

주검칸의 평면 생김새는 장방형이다. 주검칸 벽에 쌓은 돌들 사이에는 석회물림을 하고 그 위에 회미장을 하였다. 천정은 이미 무너져 사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주검칸 네 벽의 윗부분이 안기울임을 준 것으로 보아 궁륭천정으로 판단된다. 서벽에 잇닿아 길이 2m, 너비 0.8m, 높이 0.1m의 관대가 놓여 있었다.

무덤에서 수습된 벽화조각에는 검은 색과 붉은 색으로 그린 그림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 무덤이 벽화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검칸에서는 벽돌조각 1개와 사람뼈와 말뼈 등이 발견되었다.

## 3. 송죽리1호벽화무덤<sup>3)</sup>

북한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에서는 2002년 가을 황해도일대의 고구려무덤들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는 와중에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에서 여러기의 고구려 석실봉토분을 조사발굴하였다. 이 무덤들은 송죽리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송죽리1작업반의 북쪽 벌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의 약 1km<sup>2</sup> 범위안에 벽화무덤을 포함한 10여기의 석실봉토분이 분포되어

2) 고적발굴대, 2006.02, 「연탄군 문화리돌칸흙무덤」, 『조선고고연구』 2006년 제1호, p.42~43.

3) 김대영·김광철, 2013.11,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 발굴보고(1)」, 『조선고고연구』 2013년 제4호, pp.33~35; 김광철·안춘성, 2014.05,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 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014년 제2호, pp.33~39; 조희승, 2004.10,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pp.245~263; 정경일, 2016.04, 「송죽리 고구려 벽화무덤의 발굴 정형에 대하여」, 『전북사학』 48, pp.303~328.

있는데 그 중 송죽리벽화무덤(1호무덤)을 포함한 3기를 발굴정리하였다. 무덤 번호는 발굴 순서에 따라 달았다.

무덤은 무덤길, 안길, 앞칸, 사이길게 안칸으로 이루어진 반지하식의 석실봉토이실묘이며 무덤칸의 방향은 정남향이다.

안길은 앞칸의 남쪽에 나 있는데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으며 크기는 남북길이 1.2m, 동서너비 1.1m, 벽 높이 1.63m이다. 앞칸은 동서너비가 길고 남북길이가 짧은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북길이 1.4m, 동서너비 2.45m, 벽의 높이 1.62m이다. 안길과 안칸 사이에 놓인 사이길은 남북길이 0.98m, 동서너비 1.1m, 높이 1.7m이다. 안칸은 평면상으로 거의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 바닥은 강돌과 진흙을 섞어 펴고 다진 후 그 위에 솥을 깔고 회미장을 하였다. 안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2.73m, 동서너비 2.71m이며, 벽 높이는 1.7m이다.

무덤의 벽화는 미장한 회벽 위에 다채롭고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안길의 동, 서벽에는 무사대열이 그려져 있고 동벽에는 행렬도가, 서벽에는 수렵도, 남벽에는 문지기장수 등이 그려져 있다. 사이길에는 문지기장수를 대칭적으로 그렸고 안칸에는 인물과 수레, 평상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이 무덤에서는 금동가락지 1개, 은비녀 3개를 비롯하여 쇠관못과 관고리 손잡이 그리고 독, 동이, 단지 등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 4. 민속공원1호벽화무덤<sup>4)</sup>

민속공원1호벽화무덤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대성산 소문봉 남쪽 기슭의 구릉지대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평양민속공원이 건설되던 2009년 3~4월 사이에 발굴되었다.

무덤은 대성산 소문봉 서남쪽 기슭의 남쪽 구릉지대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무덤의 서쪽과 동쪽, 남쪽은 평탄한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에는 대성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무덤에서 210m 떨어진 곳에 안학궁성이, 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는 대성산성이 있다. 무덤 주변에는 고산동1호, 7호, 9호, 10호, 15호, 20호무덤, 안학9호무덤 등 고구려 벽화무덤들이 여러 기 분포되어 있다.

무덤무지의 평면생김새는 남북이 긴 타원형인데 발굴 당시 남아 있는 무덤무지의 크기는 남북길이 16m, 동서너비 13.5m, 높이 1.5m 정도 되었다.

무덤은 안길과 주검칸으로 이루어진 지상식의 석실봉토분이며 방향은 남향이다.

무덤안길은 주검칸 남벽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남북으로 길게 나 있다. 안길 서벽의 길이는 3.05m이고, 동벽은 북쪽 부분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남쪽 부분의 길이는 1.6m이다.

4) 고적발굴대, 2013.11, 「민속공원1호고구려벽화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3년 제4호, pp.31~32.

안길 천정은 이미 무너졌으므로 그 상태를 알 수 없다.

주검칸의 평면생김새는 정방형이다. 주검칸벽은 심하게 파괴되었는데 그 중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이 북벽이었다. 천정 역시 무너져 없어졌으므로 그 상태를 잘 알 수 없다. 주검칸의 크기는 남북 3.05m, 동서 3.10m이며 남아 있는 높이는 북벽 1.6m, 동벽 0.8m, 서벽 1.27m, 남벽 0.4m이다.

주검칸 회벽면 위에 위래 벽화가 그려져 있었던 것인데 대부분 회벽과 함께 심하게 떨어지고 아래의 밑부분에만 일부 남아 있었다. 벽화는 주검칸 벽체의 밑부분과 동북 모서리 그리고 서벽 중간 아래부분에 남아 있었다. 벽체의 밑부분에는 붉은 밤색의 띠가 돌려져 있으며 동북 모서리에는 붉은 밤색을 칠하고 검은 색 테두리를 그린 기둥 그림이 0.5m의 높이로 남아 있다. 이밖에 동벽 북쪽 아래부분에는 검은 색의 물방울모양의 그림이, 서벽 중간 아래부분에는 푸른색의 연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무덤은 이미 도굴당한 관계로 쇠활촉 1개, 쇠관못 1개, 토기편이 수습된 정도이다.

## 5. 동산동 벽화무덤<sup>5)</sup>

동산동벽화무덤은 평양시 중심부인 낙랑일대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동산동벽화무덤은 평양시 낙랑구역일대에서 제일 높은 동산(해발 39.1m)의 위에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11월에 발굴된 이 벽화무덤은 남북으로 길게 무덤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무덤칸을 마련한 반지하식의 석실봉토묘이다. 무덤무지는 회와 숯, 진흙 등을 층층이 서로 엮바꾸면서 다져쌓은 다음 윗부분은 붉은 진흙으로 다짐하여 만들었는데 회, 숯으로 다진 부분은 무덤칸 바닥으로부터 375cm이고 진흙 다짐한 부분은 지표면까지 168cm이다.

무덤은 무덤길, 안길, 앞칸, 앞칸의 좌우 곁칸,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졌다. 무덤길은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는데 그 크기는 남북길이 12.8m, 동서너비 2.2~2.4m이다. 무덤 안길은 앞칸 남벽의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나 있는데 크기는 남북길이 1.95m, 동서너비 1.36~1.44m이며 높이는 1.85m이다. 앞칸의 평면생김새는 동서로 긴 장방형이고 천정은 궁륭삼각고임식이며 크기는 동서길이 2.4m, 남북너비 2.1m, 높이 3.3m이다. 곁칸의 천정은 모두 평행고임 1단에 삼각고임 2단으로 이루어진 평행삼각고임천정이다.

안칸의 평면생김새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남북길이 2.76m, 동서너비 3.16~3.4m이다. 바닥에는 관대시설 3개가 있었으며 무덤에서는 3개체분의 인골과 함께 순금으로 만든 장식품과 금동장식품 그리고 자기류, 토기류, 쇠관못 등이 나왔다.

5) 고적발굴대, 2011.11, 「동산동벽화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1년 제4호, pp.28~30,43; 동북아역사재단, 2011.02, 「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 고구려 벽화무덤의 발굴 현황」, 『옥도리 고구려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pp.62~66.

이 무덤의 벽화는 회벽이 많이 떨어지고 회막이 형성되었으므로 제대로 알 수 없었으나 안길의 양 벽에서 행렬도, 앞칸 북벽에서 붉은색 기둥, 사이길에서 문지기장수, 안칸에서 기둥과 여러 가지 무늬들이 발견되었다.

무덤에서는 3개체분의 사람뼈와 순금으로 만든 꽃잎형 장식품, 반구형 장식품을 비롯한 장식품들과 쇠관못, 청자기, 도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 6. 대성동34호벽화무덤<sup>6)</sup>

대성동34호무덤은 2004~200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서 고구려 무덤떼를 조사하는 와중에 발견되었다. 2004년 8~10월사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벽화무덤인 34호무덤에 대한 발굴을 실시하였다.

벽화의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큰 새의 깃 같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신도나 인물 풍속 및 사신도일 가능성을 짐작하게 된다.

이 무덤에서는 고리자루 칼 장식물과 작은 금고리로 만든 바른 6면체 모양의 장식물, 가운데 부분이 굽고 양면으로 가면서 좁아진 관모양의 장식물 등 귀중한 유물이 조사되었다.

## 7. 옥도리 벽화무덤<sup>7)</sup>

옥도리벽화무덤은 최근에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 가운데서 고구려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벽화자료가 가장 풍부한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옥도리벽화무덤은 2010년 5월과 6월사이 남포시 용강군일대에서 역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발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굴되었다. 옥도리벽화무덤은 옥도리 소재지에 있는 황산(노루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안길, 앞칸, 앞칸 좌우의 두 감,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진 지상식의 감 있는 두칸무덤이다. 안길과 앞칸의 대부분 그리고 안칸의 천정은 이미 파괴되었다.

앞칸의 평면생김새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인데 크기는 남북길이 2.58m, 동서너비 1.85m, 남은 높이 1m이다. 감은 동, 서벽 가운데에 한 개씩 대칭적으로 있다. 안칸의 평면생김새는 방형인데 크기는 한 변의 길이 2.85m, 높이 2.28m이다.

벽화는 인물풍속 및 사신도로 추정된다. 안칸의 네 모서리에는 기둥과 두공이 그려져 있고

6) 리광희, 2014.08, 「김일성종합대학에서 2010년 이후 새롭게 발굴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 『2014두만강포럼』 DB; 리광희, 2016.05, 「대성동무덤떼에서 발견된 귀금속공예품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6년 제2호, pp.12~16.

7) 朴燦奎·鄭京日, 2011.02, 『玉桃里: 조선남포시용강군옥도리일대역사유적』, 香港亞洲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편(고광의 기획), 2011.02,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고적발굴대, 2011.11, 「옥도리벽화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1년 제4호, pp.31~32,39.

도리에 의하여 천정부분과 구분되어 있다. 북벽에는 무덤주인공의 장방생활도가 그려져 있다. 도리 아래에는 새모양의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장방지붕과 걷어 올린 휘장 밑에 주인공의 실내생활도가 그려져 있다. 장방안의 휘장에는 “王”자무늬와 “大”자무늬가 물결 무늬사이로 빼곡히 그려져 있다. 장방 안에는 주인공과 3명의 처첩들이 시중을 받으면서 앉아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장방도에 4명의 남녀주인공이 그려진 것은 이 무덤이 처음이다. 동벽에는 마주 서있는 남녀인물들과 춤을 추고 노래하는 남녀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서벽에는 사냥장면이 그려져 있고 천정부분에는 여러 가지 장식무늬와 함께 사신으로 보이는 환상적인 짐승들이 그려져 있다.

무덤에서는 쇠관뿔과 쇠관고리손잡이 등이 나왔다.

## 8. 고산동1호무덤<sup>8)</sup>

고산동1호무덤은 1936년에 일본인에 의해 발굴된 적이 있는데 2011년 10월에 북한과 일본이 공동으로 재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산동1호무덤은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궁성 서문에서 서북쪽으로 800m 떨어진 곳(현재 식물원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무덤의 주변에는 고산동7호, 9호, 15호 벽화무덤을 비롯한 수십기의 고구려 석실봉토묘들이 분포되어 있다.

무덤은 안길과 무덤칸으로 이루어진 단실묘이며 방향은 서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다.

안길은 주검칸 남벽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나 있다. 무덤칸의 평면 생김새는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다. 주검칸 동벽의 길이 3.36m, 북벽 3.06m, 서벽 3.28m, 남벽 3.1m이고 남은 높이는 동벽이 1.5m, 북벽이 1.53m, 서벽이 1.64m, 남벽이 1.55m이다.

종전의 발굴에 의하여 이 무덤이 인물풍속 및 사신도 주제의 벽화무덤임이 알려졌다. 북벽에는 무주한 쌍현무, 동벽에는 청룡, 서벽에는 백호, 남벽 좌우에 문지기 장수를 그렸다. 이밖에 연꽃무늬, 사신에 대한 묵서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번 재발굴을 통해 안길 동벽에서 한발을 들고 바깥쪽으로 걸어가는 누른색 몽통의 동물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이 온전치 않아 무슨 동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형태나 색으로 보아 개를 형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또한 주검칸 북벽 쌍현무 그림 위에서 “武”자의 묵서를 발견하였다. 원래는 “玄武”라는 글자가 씌였을 텐데 현재로서는 “武”자만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무덤은 심히 파괴되어 유물은 찾아 볼 수 없었다.

8) 2016.02, 「고산동1호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6년 제1호, pp.22-24; 조선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08, 「고산동일대의 벽화무덤」, 『조선고고학총서 33』 고구려의 벽화무덤(1), 사회과학원, pp.20~22.

## 9. 호남리18호벽화무덤<sup>9)</sup>

호남리18호벽화무덤은 2013년 8~10월까지 북한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와 중국 연변대학이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일대에 있는 고구려 무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발굴되었다.

무덤 주변에는 토포리대묘와 호남리사신총을 비롯하여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 무덤가운데서 과반수 무덤들이 분포되어 있다. 즉 서쪽으로 900m 정도 되는 곳에는 토포리대묘를 중심으로 16기의 무덤이 있으며,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호남리사신총을 중심으로 17기, 도합 33기에 달하는 무덤들이 있다.

호남리 고구려 벽화무덤은 안길과 주검칸으로 이루어진 지상식 석실봉토단실묘이다. 무덤 방향은 195°이다.

무덤길은 안길 입구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데 그 크기는 남북길이 2.5m, 동서너비 1.7m이다. 무덤 안길은 주검칸 남벽 중심에 나 있는데 턱시설과 문턱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주검칸은 평면이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생겼다. 남북길이 3.04m, 동서너비 2.5m이다. 주검칸 천정은 평행고임 2단 위에 삼각고임 2단 천정을 하고 그 위에 평평한 판돌을 덮었던 것인데 발굴 당시 마감천정돌이 유실된 상태였다. 주검칸 바닥에는 동벽과 서벽에 접하여 각각 관대가 하나씩 놓여 있다.

무덤에서는 사신그림과 함께 넝쿨무늬, 원무늬, 별그림, 고리무늬, 인동무늬, 꽃모양무늬 등이 확인되었다. 벽화무덤은 그 무덤의 구조형식과 벽화내용으로 볼 때 사신도 주제의 벽화 무덤으로 판단된다.

무덤은 오랜 전에 이미 도굴되어 쇠관못 7점만이 수습되었다.

## 10. 천덕리벽화무덤<sup>10)</sup>

천덕리벽화무덤은 2015~2016년 사이 북한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와 중국 연변대학이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에 있는 고구려무덤떼를 조사하는 와중에 발견되었다.

천덕리벽화무덤은 봉산군 천덕리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2km 떨어진 신대동고구려무덤떼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무덤에서 서남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마산리에는 휴류산성이 있고 12km 정도 떨어진 토성이에는 태봉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천덕리벽화무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지상식의 단실묘이며 방향은 210°이다.

안길은 안칸 남벽 중심에서 동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안길 동벽과 안칸의 동벽이 거의 일직

9) 박찬규·정정일, 2014.09, 「새롭게 발굴된 호남리18호벽화무덤에 대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2), 사계절, pp.530~547; 鄭京日, 2015.12, 『湖南里: 2013年平壤市三石區域湖南里高句麗古墳群2區發掘報告』, 香港亞洲出版社.

10) 鄭京日, 『天德里: 2015~2016年黃海북도봉산군천덕리신대동高句麗古墳群發掘報告』(待刊).

선상에 놓여있다. 안길은 동벽 길이 1.7m, 서벽 길이 1.8m인데 천정은 허물어져 그 형식을 알 수 없었다. 안칸의 평면 생김새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다. 길이 2.6m, 너비 1.98m, 잔존 높이 1.8m이다. 안칸 천정 또한 심하게 파괴되어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무덤 안칸에서 벽화가 발견되었다. 벽화는 회를 바른 벽면에서 선각채색의 장식무늬와 검은색을 칠한 줄무늬 그리고 베천무늬가 보인다. 선각채색의 장식무늬는 소용돌이무늬로 추정되는 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붉은 갈색을 칠한 것이다. 선각채색의 장식무늬는 안칸의 모든 벽면에 그렸는데 현재는 회벽이 떨어져 안칸 네 벽의 일부분에 남아 있다. 이러한 장식무늬는 고구려벽화무덤에서는 물론이고 기타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림이다. 검은색 줄무늬는 동벽의 밑에서 20cm 정도 올라간 곳에 10cm 폭으로 길게 나타나 있었고 베천무늬는 안칸 동벽 남쪽 밑부분에 조금 찍혀 있었다.

무덤에서는 깨어진 한 개채분의 토기와 못 머리부분에 은판을 씌운 관못 1개와 자리쇠가 나왔다.

### Ⅲ. 새롭게 조사된 벽화무덤이 남긴 과제

위에서 새 천년이래 북한 경내에서 새롭게 조사된 10기의 고구려 벽화무덤의 발굴정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구려사 연구에 새로운 풍부한 실물자료가 제시된 것이 고무적인 한편 수 많은 학술적 과제를 남겼다.

**먼저, 새롭게 나타난 벽화내용과 무덤구조, 출토유물 등 새 자료에 대한 진일보의 연구와 보다 합리적인 학술적 해명 문제이다.**

새로운 벽화내용의 경우 옥도리고구려벽화무덤에서는 “大”자와 “王”자가 처음으로 동반 출현하였고, 천덕리벽화무덤에는 지금까지 그 어느 지역에서나 찾아 볼 수 없는 새김소용돌이 무늬가 나타났다. 독특한 무덤구조의 경우 태성리3호무덤은 무덤길, 문칸, 앞칸, 앞칸 동서좌우의 2개 결칸, 안칸, 안칸의 서쪽과 북쪽에 만들어진 회랑, 그리고 북쪽 회랑의 동쪽 끝에서 무덤밖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보조통로로 이루어진 대형 벽화무덤이다. 출토유물의 경우 대성동34호무덤에서 출토된 2개체분의 고리자루 칼은 고구려 유물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동시대 가야 등 기타 주변 지역과의 물질적 교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이러한 난제들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다음으로, 새 천년에 들어서서 중국 경내 고구려 벽화무덤을 포함한 다량의 새로운 벽화무덤들이 조사되고 그 자료가 공개됨으로 하여 고구려 벽화무덤의 변천과정, 지역적 특징, 무덤의 등급과 편년 등 학술적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근년에 중국 경내에서도 무순시가1호묘, 산성하1408호무덤, 산성하356호무덤, 산성하1020호무덤, 산성하725호무덤, 우산하2174호무덤, 만보정709호무덤, 만보정 1022호무덤 등 벽화무덤들이 새롭게 확인되어 종전에 고구려벽화무덤들이 석실봉토묘가 주를 이루고 전실적석층이 트레이었던 것이 새롭게 석실적석층이 여러 기 조사되었다. 북한 경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9기의 고구려 벽화무덤의 경우 황해북도에서 선후하여 문화리벽화무덤, 송죽리벽화무덤, 천덕리벽화무덤이 조사되었고 평양시 낙랑구역에서는 처음으로 동산동벽화무덤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지역에서 벽화무덤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의 축적은 한편 우리들로 하여금 고구려 벽화무덤의 변천과정이나 지역적 특징 등 종전의 학설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새 천년에 들어와서 북한에서 공동조사나 발굴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실행 가능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10기의 고구려 벽화무덤 중에 송죽리벽화무덤(2002)·동산동벽화무덤(2009)·고산동1호무덤(재조사, 2011)은 일본과, 옥도리고구려벽화무덤(2010)·호남리18호무덤(2013)·천덕리벽화무덤(2016)은 중국 연변대학교와 공동으로 발굴 조사하였다. 또한 2005년과 2006년에는 한국과 북한학자들이 공동으로 고구려 벽화고분 실태조사와 보존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0년에 발굴된 옥도리고구려벽화무덤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이 주체가 되고 중(연변대학교)·남(동북아역사재단) 학계가 참여하여 이룩한 공동 성과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동북아 각 나라 학자들이 유기적으로 공동 협력해 학술교류와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열어 나감을 기대해 본다.

**이밖에 이미 발굴된 중요한 고구려 벽화무덤을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것도 하나의 중대한 과제라 하겠다.**

옥도리고구려벽화무덤이나 태성리3호무덤, 그리고 천덕리벽화무덤<sup>11)</sup>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10가지 중 제3항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정거가 되어야 한다” 및 제4항 “인류 역사의 주요 단계(들)를 보여주는 유형의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뛰어난 사례여야 한다”에 부합되는데 규정에 따라 한 가지만 만족시켜도 세계유산에 만족됨으로 이들을 2004년도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총 63기, 그중 16기가 벽화무덤)에 추가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11) 옥도리고구려벽화무덤 및 태성리3호무덤은 이미 북한의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천덕리벽화무덤 또한 발굴자료가 정리되면 국보유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새 천년에 들어와서 태성리3호무덤 등 북한 경내 고구려 벽화무덤 10기의 조사발굴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벽화무덤 중 옥도리고구려벽화무덤이나 천덕리벽화무덤에서는 새로운 벽화내용들이 확인되었고, 태성리3호무덤은 독특한 무덤구조를 지녔으며, 중국경내에서는 새롭게 석실적석총이 조사되었는가 하면, 송죽리벽화무덤 및 동산동벽화무덤 등 새로운 지역에서 벽화무덤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벽화무덤 자료는 우리에게 수많은 학술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진척과 국제 협력을 통한 고구려벽화무덤 연구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

## ◀ 참고 문헌 ▶

- [1]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1.11, 「태성리에서 새로 발굴된 고구려 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2001년 제4호, p.47.
- [2] 고적발굴대, 2002.02, 「새로 발굴된 태성리3호고구려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2002년 제1호, pp.37~39.
- [3] 김인철, 2002.02,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년대와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02년 제1호, pp.6~13.
- [4] 조희승, 2004.10,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pp.245~263.
- [5] 김경삼, 2004.12, 「최근에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 『사회과학원학보』 2004년 특집, pp.57~59.
- [6] 송순탁, 2005.08, 「태성리3호무덤 및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재검토」, 『조선고고연구』 2005년 제3호, pp.10~14.
- [7] 윤광수, 2005.08, 「연탄군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2005년 제3호, p.20.
- [8] 김인철, 2006.02,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년대와 피장자 연구」, 『북방사논총』 9, pp.195~203.
- [9] 고적발굴대, 2006.02, 「연탄군 문화리돌칸흙무덤」, 『조선고고연구』 2006년 제1호, p.42~43.
- [10] 조선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08, 「고산동일대의 벽화무덤」, 『조선고고학총서 33』 고구려의 벽화무덤(1), 사회과학원, pp.20~22.
- [11] 조선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08, 「연탄군 송죽리벽화무덤」, 『조선고고학총서 34』 고구려의 벽화무덤(2), 사회과학원, pp.34~44.
- [12] 조선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08, 「태성리3호무덤」, 『조선고고학총서33』 고구려의 벽화무덤(1), 사회과학원, pp.89~91.
- [13] 2010.11, 「송죽리벽화무덤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0년 제4호, pp.45~48.
- [14] 朴燦奎 · 鄭京日, 2011.02, 『玉桃里: 조선남포시룡강군옥도리일대역사유적』, 香港亞洲出版社.
- [15] 동북아역사재단 편(고광의 기획), 2011.02,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 [16] 동북아역사재단, 2011.02, 「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 고구려 벽화무덤의 발굴 정황」,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pp.62~66.
- [17] 김광철, 2011.02, 「송죽리벽화무덤의 수렵도」, 『조선고고연구』 2011년 제1호, pp.45~46
- [18] 조선중앙통신, 2011.06, 「룡강일대에서 고구려벽화무덤 또 발견」, 『민족문화유산』 2011년 제2호, p.56.
- [19] 전광진, 2011.08, 「새로 발굴된 옥도리 고구려벽화무덤」, 『민족문화유산』 2011년 제3호, pp.14~15.
- [20] 고적발굴대, 2011.11, 「옥도리벽화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1년 제4호, pp.31~32,39.

- [21] 고평의, 2011.11, 「玉桃里高句麗古墓壁畫考」, 『고구려발해연구』 41, pp.141~158.
- [22] 고적발굴대, 2011.11, 「동산동벽화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1년 제4호, pp.28~30,43.
- [23] 전광진, 2012.08, 「옥도리벽화무덤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년 제3호, pp.15~16,23.
- [24] 김광철, 2013.03, 「송죽리고구려무덤벽화의 행렬도」, 『민족문화유산』 2013년 제1호, p.43.
- [25] 정경일, 2013.11, 「옥도리벽화무덤의 피장자에 대한 약간의 고찰」, 『조선고고연구』 2013년 제4호, pp.12~15.
- [26] 라영, 2013.11, 「동산동벽화무덤의 축조년대」, 『조선고고연구』 2013년 제4호, pp.7~8.
- [27] 고적발굴대, 2013.11, 「민속공원1호고구려벽화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3년 제4호, pp.31~32.
- [28] 김대영·김광철, 2013.11,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 발굴보고(1)」, 『조선고고연구』 2013년 제4호, pp.33~35.
- [29] 徐曼, 2014.02, 「新发现的平壤东山洞高句麗壁画墓」, 『北方文物』 2014年01期, pp.32~34.
- [30] 김광철·안춘성, 2014.05, 「송죽리고구려벽화무덤 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014년 제2호, pp.33~39.
- [31] 리광희, 2014.08, 「김일성종합대학에서 2010년 이후 새롭게 발굴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 『2014두만강포럼』 DB.
- [32] 박찬규·정경일, 2014.09, 「새롭게 발굴된 호남리18호벽화무덤에 대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2), 사계절, pp.530~547.
- [33] 손수호, 2014.09, 「옥도리고구려벽화무덤」, 『김일성종합대학 제3차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역사학)』, pp.67~71.
- [34] 이유리, 2014.12, 『고구려 옥도리 벽화고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김광철, 2015.02, 「송죽리벽화무덤의 피장자」, 『조선고고연구』 2015년 제1호, pp.16~17.
- [36] 김광철, 2015.08, 「송죽리벽화무덤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2015년 제3호, pp.11~14.
- [37] 鄭京日, 2015.12, 『湖南里：2013年平壤市三石區域湖南里高句麗古墳群2區發掘報告』, 香港亞洲出版社.
- [38] 고적발굴대, 2016.02, 「고산동1호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6년 제1호, pp.22~24.
- [39] 정경일, 2016.03, 「최근 북한학계에서 이룩한 고구려 고고학 성과」, 『선사와 고대』 47, pp. 97~102.
- [40] 정경일, 2016.04, 「송죽리 고구려 벽화무덤의 발굴 정형에 대하여」, 『전북사학』 48, pp.303~328.
- [41] 鄭京日, 2016.05, 『玉桃里高句麗壁画墓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 [42] 리광희, 2016.05, 「대성동무덤에서 발견된 귀금속공예품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6년 제2호, pp.12~16.
- [43] 라영, 2016.05, 「동산동벽화무덤의 등급과 피장자」, 『조선고고연구』 2016년 제2호, pp.17~18.

- [44] 손수호, 2016.05, 「최근에 조사된 고구려 고분벽화무덤들에서 주목되는 무제」, 『조선고고연구』 2016년 제2호, pp.9~11.
- [45] 강릉, 2016.05, 「새로 조사발굴된 남포시 룡강군 옥도리일대의 역사유적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6년 제2호, pp.25~26.
- [46] 鄭京日, 2017.12(待刊), 『天德里: 2015~2016年黃海北道鳳山郡天德里新大洞高句麗古墓群發掘報告』, 香港亞洲出版社.

발 표

# 최신 발굴 자료들을 중심으로 본 중국 위진북조 벽화의 특징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 최신 발굴 자료들을 중심으로 본 중국 위진북조 벽화의 특징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 〈목 차〉

1. 머리말
2. 중국 위진북조 벽화묘의 신앙상
3. 맺음말

### 1. 머리말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시기의 중국의 위진북조수당 벽화고분의 비교에 대하여는 1980년대 이후부터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고분 구조, 벽화 제재와 배치 등에서 연구가 되어왔다.<sup>1)</sup> 최근에는 새롭게 발굴된 위진북조수당 벽화묘들이 나와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고구려 벽화의 대외관계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위진북조 벽화묘를 소개하여 고구려 벽화 연구에서 대외적 연관 관계나 외래요소를

1) 박아림, 「高句麗 集安 地域 中期 壁畫古墳의 西域的 要素 研究 - 中國 北朝 古墳美術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중국사학회』 50, 2007, pp.25-61. \_\_\_\_\_, 「중국 위진 고분벽화의 연원 연구」, 『동양미술사학회』, 2012, pp.75-113. \_\_\_\_\_, 『고구려 고분벽화 유라시아문화를 품다』, 학연문화사, 2015. 서운경, 「북위 平城期 沙嶺벽화 고분의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67號』, 2010, pp.175-208. 송준혁, 「東魏·北齊시기 并州지역 고분벽화」, 『한국고대사탐구』 18,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4, pp.207-252.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韓國古代史研究』, 2012, pp.137-196. 정병모, 「중국 북조(北朝) 고분벽화를 통해 본 진파리 1·4호분과 강서중대묘의 양식적 특징」, 『강좌미술사』 41, 2013, pp.313-334. 한정희, 「高句麗壁畫와 中國 六朝時代 壁畫의 比較 연구 : 6,7 세기의 예를 중심으로」, 『미술자료』, 2002, pp.5-31. \_\_\_\_\_, 「중국분묘 벽화에 보이는 墓主圖의 변천」, 『미술사학연구』 261, 한국미술사학회, 2009, pp.105-147.

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다. 기존에 알려진 위진북조고분미술의 일반적 특징을 벗어난 신출 자료들을 통하여 중국고분미술 자체의 시기와 지역적 변화, 외래문화요소와 대외교류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동시에 고구려 벽화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중국 위진북조 벽화묘의 신앙상

### 1) 신앙과 감속 위진 벽화묘

감속성 문물고고연구소와 고대현박물관은 2007년 9월에서 11월 감속 장액 高臺縣 羅城鄉 河西村 地埂坡墓地에서 약 30기의 묘장을 발굴하였다.<sup>2)</sup> 그 가운데 5 기의 위진 묘의 묘장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여 墓道, 照壁, 묘문, 前甬道, 전실前室, 后甬道, 后室 등으로 구성되었다. 묘실 안에는 黃土로 직접 들보, 천정, 기둥, 두공 등 목조가옥을 모방하여 조각하였다. 벽화는 1호, 2호, 4호의 3 기의 묘에서 발견되었다.

가장 중요한 4호묘는 전·후실로 구성되었으며 묘의 총 길이는 7m이다. 전실은 방형에 가깝고 후실은 장방형이다. 벽화는 토홍색선으로 초고를 그리고 墨線鉤勒으로 그렸다. 전실 천정부에는 목선 채회로 목조가옥구조를 모방하였고, 양측 벽에는 목선 구름의 입주를 그렸다. 묘문 양측은 放牧과 狩獵의 그림이 있다. 후실로 가는 통로가 있는 전실 서벽 양측에는 문리가 각각 한 명씩 있고, 통로의 위쪽에는 세 마리의 神獸가 있다. 희화화된 신수들의 형태가 섬서 정변 학탄의 한대 벽화고분의 동물들을 연상시킨다.

전실 동벽에 그린 악무도는 擊鼓圖와 角抵圖로 구성되었다. 인물이 深目高鼻에 髻發이며, 좁은 소매의 상의에, 장신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 오락도를 소그드계의 기악으로 해석하는 연구에 의하면 격고는 강국과 안국에서 유행한 和鼓로서 應鼓, 加鼓라고도 한다. 각저도는 신체를 접촉하지 않는 특징으로 보아 강국악과 안국악 중의 이인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그드계통의 악무로 볼 경우 지경파 4호묘 벽화는 십육국시기 주천군 表氏縣(현재의 高臺縣)에 소그드인의 취락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sup>3)</sup>

전실 북벽의 목선으로 그린 가옥 내부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서측은 2명의 胡人對坐, 동측은 2명의 漢人對飲이다. 좌측의 인물들은 삼각형 모양의 백색 모자를 쓰고 있으며 큰 눈에

2)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高臺縣博物館, 「甘肅高臺地埂坡晉墓發掘簡報」, 『文物』2008年 9期. 徐光冀 主編, 『中國出土壁畫全集』, 科學出版社, 2011. 鄭怡楠, 「河西高臺縣墓葬壁畫祥瑞圖研究—河西高臺縣地埂坡M4墓葬壁畫研究之一」, 『敦煌學輯刊』, 2010年 1期.

3) 鄭怡楠, 「河西高臺縣墓葬壁畫娛樂圖研究—河西高臺縣地埂坡M4墓葬壁畫研究之二」, 『敦煌學輯刊』, 2010年 2期.

굽슬머리, 팔자수염과 턱수염이 있으며 단령의 흰 복식을 입고 있다. 우측의 두 인물은 색을 사용하지 않고 묘사하였는데 복식이나 얼굴의 형태, 들고 있는 칠기 등이 한족으로 보인다. 묘주의 연회도 자리에 서역인과 한족이 같이 나란히 앉아 묘사된 것이 독특하며, 묘실 입구 벽의 상단에 묘사된 북방·서역계통의 인물들의 가무와 주악의 장면과 함께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중앙아시아계 묘주, 또는 중앙아시아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한 한족 묘주의 생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서지역에서는 이미 3세기경부터 소그드인의 식민지가 있었으며 소그드 상인들의 활동이 그들이 소그드지역과 소통한 편지들을 통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대 지경과 벽화고분의 묘주는 한족일 가능성도 있지만, 고대 지역에 거주하던 소그드인 상인 또는 북방·서역계 거주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벽화고분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출신 문화를 표현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유물로는 복희 여와를 그린 畫像棺, 金花飾, 금귀고리, 金器, 漆器, 絲織品 등이 출토되었다.

지경과 1호, 2호, 3호묘에서 生土로 목조가옥구조를 모방한 것은 위진시기 건축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돈황 출신으로 평성으로 이주한 귀족으로 추정되는 북위 대동의 송소 조묘에서 볼 수 있는 석곽을 예기하는 듯 전실에 목조가옥의 천장 가구 형태를 재현하고 있다. 고대 지경과 위진묘의 독특한 건축 형식과 돈황 출신 송소조의 배경을 고려하면 선비 또는 서역 출신의 묘주의 북조 고분 내에 출현하는 석조 가옥의 기원은 서역문화와 연관된 상징적 건축물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 지경과 벽화묘에서는 서역인의 형상이 출현하는데 고대 지역이 하서주량과 실크로드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대 벽화고분은 주천과 북방·서역계 인물의 가무도, 흰색 단령 복식의 서역계 묘주도와 함께 돈황 불야묘만 위진 벽화묘와 고구려 무용총, 삼실총과 유사한 화분을 이용한 듯한 주작도로 미루어 감속 고대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한 중앙아시아계 인물이 중원지역에서 온 벽화문화와 중앙아시아문화를 혼합하여 새롭게 고분벽화의 전체 도상을 구성하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벽화고분을 통하여 3~4세기의 이른 시기의 동서 교류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계 문화의 동전과 동서 융합의 중요한 사례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새로 나온 중요한 벽화고분은 누란 고성에 위치한다.<sup>4)</sup> 누란은 지금의 로프 노르 서북쪽 일대에 위치했던 오아시스 도시국가로서 동서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번성하였다. 누란의 왕은 扞泥城(지금의 婁羌縣)에 거주하였으며 흉노의 복속을

4) 누란에 대해서 Marylin Martin Rhie, *Early Buddhist Art of China and Central Asia, Volume 1, Later Han, Three Kingdoms and Western Chin in China and Bactria to Shan-shan in Central Asia*, Brill, 2007, 392-425쪽. 『漢書』卷96上「鄯善國傳」,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서 외국전 역주 하 -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2』, 동북아역사재단, 2009.

받다가 중국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한나라와 흉노와 모두 관계를 유지했다. 한의 지배 하에서는 鄯善國이라고 불렸다. 1세기 말부터 서쪽의 쿠산 왕조가 진출하여 2세기 말에는 쿠산의 지배를 받았다. 이후 중국의 분열 시기에 동서 교역로를 차지하여 크게 발달하였다. 선선왕국의 남부에 있었던 니야 유적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카로슈티 문서 덕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4, 5세기에는 하서지방과 중원의 여러 왕조에 계속 入貢使를 보내어 책봉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439년 북위가 하서지방의 양주에 있던 북량을 토벌하자 북량의 남은 세력이 누란을 공격하였고 3년 뒤에 북위의 군대가 누란을 점령한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고 6세기경에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함께 쇠락하여 사라졌다.

누란고성에서 발견된 위진 벽화묘는 남향의 전후 2실묘이며 사파묘도를 갖고 있다. 전실 길이는 4×3.5m, 높이 1.7m이고 평정平頂이며 전실 중앙에 중심주가 설치되었다. 후실 길이는 2.3m이며 평정이다. 전실 사면 벽에 벽화가 있고 5구의 목관이 발견되었다. 전실의 중앙의 중심주는 사각형 기단 위에 원형의 스투파를 올리고 연화문을 그렸다. 적색 또는 회색으로 바깥에 원을 돌리고 가운데에 바퀴살을 돌린 듯한 연화문이 크게 여러 개 그려져 있다. 내부의 방사선은 불교의 법륜의 표현과도 유사하나 바퀴살처럼 연화문 안을 장식한 것은 신강 투르판 출토 복희 여와도의 일월상과도 흡사하다. 투르판 출토 복희여와도의 원형의 내부에 방사선을 채운 일월상과 상하수직구도의 배치의 출현 배경은 소그드계 상인들과 그들이 도입한 조로아스터교로 추정된다. 고창국 시기 투르판 지역은 한족, 토착민인 車師人, 서역에서 상업활동을 하던 소그드인들이 거주하였고, 불교, 조로아스터교가 수용되었다. 『위서』와 『북사』에 의하면 고창국은 “俗事天神, 兼信佛法”이라 하는데 천신이 조로아스터교의 신이라는 주장이 있다.<sup>5)</sup>

또한 누란 벽화묘의 전실 중심주와 연화문은 쿠산 왕조가 세운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의 파야즈 테페와 카라 테페의 원형 스투파와 바퀴살 모양의 연화문 장식과 유사하다. 테르메즈의 초기의 불교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탑으로, 우즈베키스탄 남부를 포함하여 박트리아 지역에도 널리 확산되었다. 카라 테페에서는 1세기 후반~2세기 초에 조영된 초기 불탑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기단에는 석고와 진흙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연꽃잎을 붙여서 장엄하였다. 파야즈 테페에 남아 있는 불탑은 기원전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직경 2.62m의 탑신 표면은 진흙 칠 위에 석고 혼합물로 덧칠을 하였으며, 황토로 만든 연꽃과 法輪으로 장식되어 있다.<sup>6)</sup> 파야즈 테페, 카라 테페, 달베르진 타페의 불교 사원지의 석굴 사원들은 중앙아시아와

5) 임영애 외, 『동양미술사』 하권, 미진사, 2007, 339-342쪽. 송재희, 「투르판 아스타나, 카라호자 고분 출토 〈복희 여와도〉 도상연구 -日月像을 중심으로-」, 『中央아시아研究』 8, 중앙아시아학회, 2003, pp.131-149. 지배선, 「사마르칸트(康國)와 고구려 관계에 대하여」, 『백산학보』, 제89호 (2011. 4), pp.95-137. 『北史』 「西域傳」 第85高昌.

6) S. 피다예프, 「우즈베키스탄의 불교와 불교미술, 근래의 테르메즈 지역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동서문명의 십자로-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국립중앙박물관, 2009, pp.84-85, p.221. Marilyn M. Rhie, 『Early

중국에서 발달한 중심주 굴의 원형으로 보인다. 테르메즈의 불탑 형식이 중국의 신강성의 미란과 누란 벽화고분에 나타난다는 것은 양 지역간 교류상을 짐작하게 한다. 박트리아, 쿠산으로부터 시작된 동서간 종교와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테르메즈 지역 불교 건축과 장식이 중국 지역까지 전파된 것은 이후에 소그드가 박트리아와 쿠산의 뒤를 이어서 동서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 간에 경제, 종교, 문화적 교류대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누란벽화묘 전실 서벽은 侍者鬪駝圖이다. 검은색 윤곽선에 적색과 회색으로 각각 색을 칠한 낙타 두 마리가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그려 스키타이, 흉노, 그리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동물투쟁상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동물투쟁상은 6세기의 섬서 서안 안가묘와 산서 태원 우홍묘의 소그드계 석각에 다시 출현한다. 낙타의 뒤에 서서 긴 막대기를 들고 낙타의 싸움을 조종하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은 상반신이 지워졌는데 적색의 단이 있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과 같은 옷에 흑색 장화를 입고 있다.

전실 동벽에는 6명의 인물의 연음도가 있는데 쿠산, 박트리아, 소그드 미술문화에 보이는 연회도 묘사와 흡사하다.<sup>7)</sup> 풍성하게 표현된 복식, 잔을 든 형태, 하반신이 잘린 묘사 등은 시기적으로는 후대이지만 에프탈의 활동 시기에 그려진 우즈베키스탄 발라릭 테페의 벽화와 유사하다.<sup>8)</sup>

후실 사면 벽에는 전실의 중심주에 그려진 것과 같은 연화문이 벽면에 불규칙하게 그려졌다. 전실의 스투파 형태의 기둥과 후실의 사면 벽에 그려진 바퀴살 형태의 연화문은 서역계통의 벽화 구성에서 연화가 가지는 상징성이 한층 강조된 것을 보여준다. 불교의 범륜이면서 동시에 조로아스터교의 일상 숭배가 결합된 것인데, 테르메즈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쿠산 왕조의 미술이 기존의 박트리아 장인 외에 페르시아, 인도의 미술가들이 유입되어 각각 영향을 미친 것을 미루어 보면 이해 가능하다. 쿠산 미술의 전파에는 쿠산 왕조가 본래 가진 유목민적 성격도 공헌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인도 미술과 이란 미술의 중국으로의 전파 경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역 고대 석굴에도 천정이 연화문으로 가득 장식된 사례가 관찰된 바 있다.<sup>10)</sup>

Buddhist Art of China and Central Asia, vol. 1, Brill, 1999, p.238.

7) 陳曉露, 「樓蘭壁畫墓所見貴霜文化因素」, 『考古與文物』, 2012년 2기.

8) 최근의 연구에서는 누란벽화묘에 보이는 쿠산 문화 요소에 대해 주목하여 연음도에 보이는 그리스와 쿠산 문화의 특징을 분별하였다. 이러한 쿠산의 주신 제재를 장식한 묘주는 선선에 이주 정착한 쿠산 이민일 가능성이 있다. 기원후 2세기 중엽, 쿠산 제국에 내란이 발생하여 대월씨들이 동쪽으로 유망하여 선선에 정착한다. 누란벽화묘는 이러한 쿠산의 동천 과정의 높은 신분의 인물이 피장자로 추정된다. 陳曉露, 「樓蘭壁畫墓所見貴霜文化因素」, 『考古與文物』, 2012년 2기.

9) Franze Grenet, 「The Nomadic Element in the Kushan Empire(1st-3rd Century AD)」,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Volume 3(October 2012), 1-22.

10) 이주형, 「인도, 중앙아시아의 원형당(圓形堂)과 석굴암」, 『中央아시아研究』 11, 중앙아시아학회, 2006,

고구려 벽화고분에도 연화문만으로 묘실 사면 벽이 장식된 사례가 있는데 비록 연화의 형태는 같지 않지만 장천 1호분의 간다라 양식의 불상이 출현하는 5세기경에 이러한 순수장식문양고분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 그 배경에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연화문 배치 형태가 일정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각저총의 각저도와 무용총의 수렵도에 보이는 독특한 문양은 기존에는 야외활동을 나타내거나 새의 모양을 간략화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누란벽화의 연화문과 함께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벽화에 출현하는 인물들의 복식과 연음도, 동물투쟁도, 스투파 형태의 중심주, 연화문 등이 묘주가 발라릭 테페, 파야즈 테페, 카라 테페와 같은 쿠산 박트리아 지역의 문화권에서 온 서역인임을 확인시킨다. 후에 출현하게 될 북조 서역계 석각의 출현을 예시하면서 6-7세기 이전에 이미 중국 신강지역에 쿠산과 박트리아와 같은 외래계 미술과 문화가 깊숙이 전해졌음을 알려 준다.

## 2) 산서 대동의 북위벽화묘

고구려 벽화고분이 발달한 4-7세기의 중국의 북방지역 벽화고분들을 보면 북위의 수도 평성이 있던 산서성 대동 지역과 동위, 서위, 북제, 북주의 중심지이던 산서성 태원, 섬서성 서안, 영하성 고원에 집중 분포되어있다. 이들 지역은 한위진시대에 흉노를 포함한 북방 유목민들이 한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문화 접변을 이루던 지역이다. 고구려 벽화문화의 형성과 벽화고분의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된 북방기류가 흐르면서 한문화와 북방문화, 서역문화가 혼재되던 문화대이다.

북위벽화묘(관관화 포함)는 20기 이상 발견되었으며 당시 정치중심지역인 雲代지역과 낙양 지역과 경계가 발전한 靑齊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북위벽화묘의 형제는 전실묘와 토동묘의 두 종류로 나누며 弧壁 전실묘가 주를 이룬다. 북위조기에 이러한 弧方形 전실묘를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후에는 북위 중후기의 주된 묘장형제가 되었다. 묘실은 일반적으로 斜坡墓道, 용도와 묘실로 구성되었다. 묘장벽화는 용도와 묘실사벽에 주로 분포하며, 묘실 천장과 묘도에도 소량 존재한다. 그 표현배치상의 특징은 용도에 무사문리를 그리고, 묘실 천장부에 星象과 乘仙장면을 그리며, 묘실 사벽의 벽화제재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묘주를 중심으로 하는 장면이다. 북위 묘장의 부장품은 선비요소를 가진 부장품을 비롯하여 한문화요소의 부장품과 외래요소를 가진 부장품까지 포함한다. 한문화와 외래문화가 빈번하게 유입, 교류되면서 묘장 가운데 선비적 문화 색채가 점차 약화된다. 대량의 俑類와 瓷器와 같이 중원 특징의 기물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고, 동시에 이국 특징의 기물도 부단히 출현한다.

141-171쪽.

북위묘장벽화의 제재는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현실생활, 사후 세계, 진묘벽사의 인물 혹은 신수神獸으로, 세부 내용은 묘주연음, 의위출행, 생산생활, 수렵, 승선상서, 장식도안 등이다. 위진의 전통 제재를 계승하고 선비문화의 특색도 겸하면서 동시에 당시 유입된 불교의 새로운 요소도 있어서 북위의 개방적인 사회풍조와 다원적 문화특징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sup>11)</sup>

중국 산서성 대동은 313년 탁발선비가 평성을 南都로 삼은 이후로 선비의 묘장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494년 낙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1세기 동안 주요 묘장들이 조성되었다. 집중 분포된 곳은 평성의 南郊와 東郊이다. 동교의 묘장으로는 북쪽부터 살펴보면 雁北師院墓群, 迎賓大道墓群, 沙峪墓群, 司馬金龍夫婦墓(484년), 湖東墓群 등이 있다. 남교에는 電焊器材廠墓群, 七里村墓群, 智家堡 石槨壁畫墓, 智家堡北魏棺板画墓 등이 있다.<sup>12)</sup>

북위가 성락과 평성, 낙양의 순으로 수도를 옮기는 동안 고분미술은 지역과 시기별로 변천을 하는데 평성지역의 최근 발견된 벽화묘와 연관된 성락지역의 벽화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가 1993년 발굴된 呼和浩特市和林格爾縣榆樹梁村壁畫墓이다. 雙室磚墓로서 墓道, 甬道, 前室, 後室로 구성되었다. 전체 길이는 22.6m이다. 甬道 兩壁은 破損되었다. 전실은 비교적 큰데 평면 정방형이고 한 변의 길이는 4.6m, 면적은 약 20㎡이다. 후실의 면적은 비교적 작아 5㎡ 정도이다.

前室 벽화 제재는 狩獵騎馬, 馬車, 魚, 水鳥, 山, 樹木, 城, 宴飲, 四神, 出行, 昇仙이다. 그 외에 蓮花, 採桑, 虎牛咬鬪, 牧羊, 鹿의 도상도 있다. 수렵도의 크기는 길이 163cm, 너비 113cm이다. 벽화에 사용된 색은 紅, 黑, 橘黃과 石青 등이다. 화법은 먼저 홍색 선을 사용하여 초고를 그린 이후 묵선 구름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색을 칠했다. 용필이 간략하고 고졸하다. 주로 현실생활주제에 승선의 도교적 요소, 蓮花 같은 불교 요소도 있으며 胡漢이 섞인 특징이다. 인물은 모두 앞의 옷깃이 열린 넓은 소매의 장삼과 단삼을 입고 있으며 성년남자는 모두 二梁冠을 썼다. 선비 색채와 한조 복장의 특징이 공존한다. 묘 연대는 486년 북위 효문제에 복제 개혁을 시작한 이후와 낙양 천도 이전으로 본다. 인물의 얼굴이 작고 어깨는 좁으며 바지나 포의 하단이 날카롭게 각이 진 형태는 북위시대 불교조각이나 벽화의 공양자상들을 연상케 하며, 화면에 홍색을 위주로 사용한 것이나 神獸 표현 등에 사용된 선의 형태는 사령 벽화분과 동가만벽화분과 같은 대동지역 북위벽화묘와 유사하다. 虎牛가 서로 싸우는 제재는 위진시대 누란고성벽화묘나 북방초원미술의 동물투쟁도와 유사하다. 낙타의 입체감을 살리지 못한 몸체 묘사나 인물의 비례가 어색하여 성락의 지역화공의 솜씨로 보인다.

11) 吕朋珍, 『北魏壁画墓研究』, 內蒙古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년.

12) 韋正, 『魏晉南北朝考古』, 北京大學出版社, 2013, pp. 213-214. 吕朋珍, 『北魏壁画墓研究』, 內蒙古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년.

비교적 최근에 산서 대동에서 발견된 평성시기의 북위벽화묘들은 기존에 알려진 북위 고분 벽화의 이해를 크게 변환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2008년 발굴된 大同南郊全家湾北魏壁画墓, 2009년 발굴된 大同云波里路北魏壁画墓, 大同云波里北魏壁画墓, 大同御东新区文瀛北路北魏壁画墓이다.

2008년 5월 山西省考古研究所와 大同市考古研究所가 연합으로 大同市南郊全家湾村 남쪽의 10기의 북위 묘장에 구제성 발굴을 진행하여 그 중 M9는 紀年文字와 벽화가 보존된 벽화묘였다.<sup>13)</sup> 梁拔胡墓로 잘 알려진 大同南郊全家湾北魏墓M9는 대동시에서 두 번째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북위 벽화묘로서 중요하며 2015년에 발굴보고논문이 나왔다.

坐北朝南의 묘로서 사파묘도 磚築單室墓이며 墓道, 過洞, 天井, 墓門, 甬道와 墓室로 구성되었다. 전체 길이 19.9m이다. 墓室 頂部에 盜洞이 殘存한다. 甬道는 墓室 南端에 위치하며 길이 1.7m, 너비 1.2m, 높이 1.6m이다. 벽체에 벽화를 그렸는데 서벽 벽화가 손상이 심하고, 동벽은 紅黑彩鉤勒의 괴수형상과 朱書題記 및 墨書가 있다. 묘실은 甬道北部에 있으며 平面은 거의 방형이다. 墓室 底部는 길이 3.4m, 너비 3m, 지표로부터 거리 8.6m이다. 墓室四壁은 彩繪벽화를 그렸는데 벽화의 높이는 약 1.2m이며 四壁에 두께 약 1cm의 黃泥 위에 그렸다. 용도 동벽에 있는 주필제기는 모두 30여자이다. “大代和平二年歲在辛□/三(五)月丁巳朔十五日辛未/□□(散) 騎常侍選部□□/安樂子梁拔胡之墓”라고 기록되었다. 좌측 상방에는 묵서로 “和平二年”의 네 글자가 써있다. 和平二年은 461년이다. 제기 북측에는 龍形 도상이 있다. 용도 서벽 위의 화상은 虎形 도상이다. 문미 위에도 화상이 있는데 모호해서 분명하지 않다.<sup>14)</sup>

벽화는 묘문 상방 문미, 용도 양벽, 묘실 사벽에 분포한다. 朱彩로 윤곽선을 그렸으며 총면적 30㎡이다. 제작 방법은 먼저 벽돌 벽 위에 두께 약 1cm의 黃泥를 바르고, 황니 위에 직접 채회를 하였다. 벽화는 주로 홍, 흑, 백 삼색으로 색을 칠하고, 먼저 홍색을 사용하여 기초를 잡고, 묵선구름화로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색을 칠한다.

묘실 사벽에는 수렵도, 연음도, 악무도, 우경도와 車馬氈帳圖 등을 그렸다. 北壁 중앙은 묘주 연음도로 墓主는 기타인물보다 크게 그렸으며 유장 아래에 장방형 위병 좌탁 위에 단정하게 앉았다. 墓主는 黑色鮮卑帽을 쓰고 白色交領袍衫을 입었다. 위병 뒤편 좌우에는 시녀가 있다.

연음도의 서측 벽화는 많이 손상되었고 중부는 거의 탈락하여 보이지 않는다. 상부에 네 명의 인물이 묘주를 향하였는데 가장 서측의 인물이 深目高鼻의 胡人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13) 山西省考古研究所,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南郊全家湾北魏墓(M7, M9)发掘简报」, 『文物』, 2015년 12기.

14) 张庆捷, 大同电厂北魏墓题记壁画初探, 中国社会科学报, 2009-11-05. 徐光冀 主編, 汤池, 秦大树, 郑岩 編, 『中国出土壁画全集』, 2권 산서 편, 科学出版社, 2011, 도 27.

왼손에 쟁반을 들었다. 나머지 인물은 정확하지 않다. 하부에 두 마리의 말을 포함한 묘주를 향한 전마형상이 보인다.

연음도의 동측벽화는 복잡한 악무도이다.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단에 白色交領袍服과 紅色바지를 입은 인물은 머리를 어깨 위로 구부리고 왼쪽 어깨에 십자형 기둥을 세우고 왼손으로 기둥을 잡고 있다. 기둥 위에는 6명의 작은 인물들이 곡예를 부리고 있다. 기둥을 든 인물 앞에는 비파를 연주하는 인물로 白色小帽를 쓰고 紅色袍를 입었는데 옷의 아래단이 파도 모양으로 구불구불하며 아래에는 백색 바지와 모전신발을 신었다. 악무도 상부에는 네 명의 인물이 고깔모자를 쓰고 양손을 넓게 벌리고 한 다리를 올리고 다른 다리로 서서 춤을 추고 있다.

동벽은 대형수렵도로 黑彩와 紅彩구름으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산악을 그려 화면을 남북으로 양분했다. 산의 중간에 홍채구름으로 수목과 가지를 그렸다.

서벽은 홍색의 선을 그어 화면을 남북으로 양분하였다. 북부는 牛耕과 방아를 찧는 생활장면이다. 남부는 차마전장도이다. 북부는 홍색의 선으로 화면을 네 등분하였다. 상부에는 세 마리의 소가 병렬로 우경하는 장면이고, 우경도 우측은 방아를 찧는 장면이다. 그 아래에는 세 마리의 말이 마굿간에 있으며 말의 뒤로는 부엌이 보인다. 서벽 남부 벽화는 많이 탈락이 되었는데 상부에 홍채구름의 방형 전장이 있고 그 남단에는 마차가 있다.

출토벽화로 봐서 M9는 북위사령벽화묘보다 늦으며, 대동에서 발견된 보존이 비교적 잘된 명확한 기년을 가진 북위묘이다. 묘주부부병좌연음도는 위진시기 벽화에서 유행한 제재로 고원 북위칠관화, 대동지가보북위석곽벽화, 사령북위벽화묘에 잘 보존되었다. 동가만벽화의 위병상 탐에는 남자묘주만 보이는데 발굴된 목관과 시신이 두 구이므로 부부합장묘이나 남묘주가 먼저 묻히고 나서 여묘주 사후에 합장하여 묘실 벽화 중에 아직 생존한 여묘주를 그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용도 동벽 제기에서 “和平二年”(461)은 남성묘주의 하장 연대일 것이다.

묘장벽화 중의 인물복식은 선비 특징이 분명하다. 벽화 중 출현한 잡기 악무도, 호인전마도, 우경생활도, 전장도 및 수렵도 등은 북위가 평성에 수도를 정한 후 선비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연구 및 당시의 동서 문화 교류 등 진귀한 자료이다.

山西大同雲波里路北魏壁畫墓(09SDYM1)는 2009년 4월 山西大同市城区南端雲波里路의 도로건설 중에 발견된 북위벽화묘이다.<sup>15)</sup> 大同市考古研究所가 발굴을 하고 陝西省考古研究院科技保護中心이 벽화에 대해 현장보호와 보존처리를 하였다. 묘장형제는 서향의 長斜墓道單室磚墓이며 墓道, 封門, 甬道와 墓室로 구성되었다. 묘장 동서 길이는 21.6m, 남북 너비는 4.56m 이다. 묘장은 일찍이 도굴당해 묘정, 용도정이 전부 붕괴되었다. 墓室은 弧邊正方形이며 길이 2.5m이다. 묘실의 잔존 높이는 2.75m이다. 사벽의 상부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15) 张庆捷, 刘俊喜, 「大同新发现两座北魏壁画墓年代初探」, 『文物』 2011년 12기.

葬具는 묘실 중후부에 놓은 목관으로 관의 사각에 각각 하나의 석주초를 놓았다. 북면과 남면의 석주초 옆에는 棺上部帷帳木構造 흔적이 있다. 묘실 사벽에 원래 벽화가 가득하였으나 현재는 동벽, 남벽과 용도 양측부분에만 벽화가 잔존한다. 연음도, 수렵도, 수문시종도 등이다. 약 10㎡의 벽화가 묘실 사벽과 용도 양벽에 남아있다. 점토의 백회층을 벽돌에 직접 접합하였는데 두께가 균일하지 않다. 묘정은 벽돌이 노출되어 백회층과 벽화가 이미 사라졌다. 사용된 안료는 紅, 黑, 藍의 三色이다.

동벽(정벽)은 묘주연락도로서 주변 인물들보다 크게 그려진 묘주부부가 목주가옥 가운데 앉았다. 좌측에 耳杯와 壺를 든 두 명의 시자가 있다. 시자 좌측에는 상하 삼단으로 인물을 그렸는데 상단의 두 줄은 손님으로 보인다. 묘주부부와 시자, 손님 모두 머리에는 鮮卑帽를 쓰고 몸에는 선비복장을 입었다. 가장 아래줄에는 5명의 호인악사로 모두 심목고비이며 원령장포를 입고 짧은 검정색 장화를 신어 전형적인 서역복장을 하고 있다. 손에 각각 琵琶, 橫笛, 排簫와 鼓 등을 연주하는 모습이다.

목주가옥 안에 앉은 선비묘주가 손님을 접객하는 장면은 사령벽화묘, 공가만벽화묘와 같다. 공가만벽화묘의 묘주연음도의 좌측 하단에도 서역인복장의 악사를 그렸는데 악사의 수는 운파리 벽화묘보다 소략하다. 북위평성유지와 송소조묘 등을 포함한 북위묘장에서 나온 호인악기용들은 평성시대에 유행한 서역악무의 존재를 알려준다. 공가만벽화묘는 北魏和平二年(461)으로 운파리북위벽화묘와 제재, 구도, 위치상 유사하여 운파리북위벽화묘의 연대도 태화연간으로 추정된다.

묘실, 동, 남, 북 삼벽의 상하에 인동문대로 경계를 삼고 하단에 삼각형문양대를 둘렀는데 내몽고유수량북위벽화묘, 대동운파리북위벽화묘와 유사하다. 남자묘주가 입은 복식의 하트 모양의 문양은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직물의 선비공양인상과 발라릭 테페의 에프탈인 연회도의 인물 복식과 유사하다.

2009年, 大同御東新區文瀛北路에서 발견된 北魏壁畫墓는 남향의 單室墓이다.<sup>16)</sup> 묘장 頂部 墓葬과 벽화의 파손이 심하다. 甬道, 墓室牆壁과 棺床 주위에 花草, 人物 등을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墓室 내의 北壁과 西壁에 棺床 두 개가 붙어있으며 관상의 사이에 낮은 단을 설치하였다. 북벽관상 동단과 서벽관상 남단에 각각 한 명의 신체가 건장하고 상반신과 다리부분이 나신인 인물이 있다. 오른손을 구부려 들고 손으로 관상의 가장자리를 받들었다. 서벽관상 남단의 인물은 이미 사라지고, 북벽관상 동단의 인물은 아직 알아볼 수 있는데 왼손에 곤봉 같은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묘의 용도에는 한 쪽의 무사도가 잔존하는데 전형적인 서역풍격이다.

문영로벽화묘는 기년문자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심각한 도굴과 훼손을 당하였다. 묘장 형제,

16)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文瀛路北魏壁画墓发掘简报」, 『文物』 2011년 12기.

출토기물, 묘장에서 사용한 벽돌, 부장기물 등이 이전에 발굴 정리된 북위묘의 부장기물과 기본적으로 같아 시대특징이 분명하다. 묘에서 출토된 도용은 大同下深井北魏墓와 대동북위송소조묘 출토의 도용과 조형과 복식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선비복장의 도용은 모두 北魏孝文帝太和十八年(494) 복식개혁 이전의 풍격으로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평성시기에 속한다. 문영로북위묘벽화 중의 낙타도상과 출토기물은 사마금룡묘(484년), 대동안북사원M2(송소조묘, 477년)에 보이는 낙타도용과 수장기물과 유사하여 서로 시대가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며 문영로북위묘벽화는 태화연간으로 북위가 천도하기 이전으로 추정된다.<sup>17)</sup>

묘실벽화내용도 모두 북위평성시기의 풍격이나 대동사령북위벽화묘와 대동지가보북위묘석곽벽화와는 회화풍격이 다르며 외래문화특징이 분명하여 북위평성시기 중서문화교류가 발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문영로벽화묘의 용도 동벽 벽화의 인물상은 홍색선을 사용하여 얼굴과 옷주름의 음영을 표현하였는데 영하 고원의 북주 이현묘에 보이는 얼굴 음영표현으로 북주 이전에 이미 북위 평성시기에 들어온 중앙아시아 화풍의 전래를 잘 보여준다.

### 3) 하북, 산서, 섬서의 동위, 북제 벽화묘

동위와 북제, 북주 벽화묘들은 하북 자현, 산서 태원, 섬서 서안 등에 위치하고 있다. 하북 자현은 중국의 동위, 북제의 통치중심지로 동위와 북제 왕실의 고분들이 위치하여 있다.<sup>18)</sup> 하북성 자현 지역의 묘실 벽화의 특징은 묘도의 벽화는 사신 가운데 청룡과 백호를 가장 앞에 두며, 청룡과 백호의 얼굴이 무덤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며, 유운과 인동을 배경에 배치한다. 묘도의 양옆 중간에 출행하는 의장행렬이, 묘문의 바로 위쪽에 정면상의 주작, 양옆에는 신수 등의 도상이 배치된다. 용도의 옆벽에는 시종하는 護衛人像이 그려진다. 묘실 안의 벽화는 후벽에 묘주상과 그 옆에 시종과 호위무사, 좌우벽에는 수레, 남자 관리와 시녀, 묘실 천장은 하늘의 모습, 사신도상을 그렸다.<sup>19)</sup> 6세기중 이후로 편년되는 이들 벽화묘들은 고구려 벽화의 발달과 비교할 때에 묘실 구조와 주제상의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고구려 후기 벽화의 중심제재인 사신도의 배치가 분리되면서 중국 북조 벽화묘에서는 묘도에 청룡과 백호가 선두에 그려지게 된다.

그러나 2006년 하북 자현 북조묘군에서 발견된 東魏皇族元枯墓는 기존에 알려진 동위시기 벽화 제재 배치와 다른 새로운 벽화 자료를 제시하였다.<sup>20)</sup> 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하북공작대는 2006년 9월-2007년 7월 하북성 자현 북조묘군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磁縣北朝墓群

17) 张庆捷, 刘俊喜, 「大同新发现两座北魏壁画墓年代初探」, 『文物』 2011년 12기.

18) 杨效俊, 「东魏, 北齐墓葬的考古学研究」, 『考古与文物』, 2000-5, pp. 68-96.

19) 楊泓, 「중국 고분벽화 연구의 회고와 전망」, 『미술사논단』, 2006, 하반기, 제23호, 7-42쪽.

20)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河北工作队, 「河北磁县北朝墓群发现东魏皇族元枯墓」, 『考古』 2007년 11기

MO03號墓(元枯墓)를 발굴하였다. 자현북조묘군은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서 鄴城考古隊와 磁縣文物保管所가 1986년부터 자현북조묘군에 대하여 조사, 편호를 진행하였는데 125기의 북조묘가 보존된 것을 확인하였다. 묘실의 천장부분이 무너져 현재는 묘실의 벽화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벽화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어렵지만 묘실 동벽의 남부에 청룡 도안이 그려져 있고 서벽에 백호 도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청룡과 백호의 뒤에는 한 명의 관리 형상이 있으나 가슴 위쪽의 벽화는 탈락하였다. 묘실 북벽에는 三足坐榻을 그렸으며 중앙에 정좌한 묘주인 형상이 있고 묘주의 뒤로 7폭 병풍이 있다. 동서로 나뉜 남벽에는 각각 한 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묘실 동, 서, 북벽에 각각 세 개의 기둥을 가진 건축이 그려졌고 두 기둥 사이에는 橫梁이 있으며 횡랑 위에는 人字拱이 있다. 인자공 위에는 지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묘실 가운데에 청룡, 백호를 그린 배치는 북조벽화묘에서 드문 것으로 고구려 후기 벽화고분을 연상시킨다. 원고묘 벽화는 동위의 회화로 드문 사례이며, 출토된 墓志로 보아 東魏天平四年(537)의 황족이자 徐州刺史였던 元祐의 묘이다. 원호는 북위황제 拓跋焘의 증손자로 동위의 개국공신이며 관직은 徐州刺史를 지냈으며 동위천평사년에 56세로 사망하였다. 북조묘군 가운데 드물게 도굴되지 않은 묘로 풍부한 부장품이 190여건 나왔으며 현재 까지 발견된 동위묘 가운데 가장 이른 벽화묘로서 북위에서 동위로 넘어가는 단계의 벽화의 변천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2013년 봄에 발견된 山西忻州市九原崗北朝壁畫墓는 기존에 알려진 북위와 북제, 북주 벽화묘가 벽화 제재와 배치, 화풍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던 점을 새롭게 재고하고, 두 시기의 벽화묘의 연관관계를 제시해주는 동시에 북제 벽화묘와 수당 벽화묘의 계승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벽화묘이다.

九原崗北朝壁畫墓는 山西省考古研究所와 忻州市文物管理處에 의해 2013-2014년에 발굴이 진행되었다. 山西省忻州市忻府區蘭村鄉下社村에 위치하였으며 忻州市市級文物保護單位이며, 九原崗墓群 가운데 도굴을 심하게 당한 고분이나 벽화내용이 풍부하다. 동시대 출토벽화 가운데 최대규모의 수렵도와 정교한 목조건축도를 생동감 있게 재현하여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다.

구원강묘군은 山西省忻州市忻府區蘭村鄉下社村에 위치하며 2007년 6월 6일 훈주시문물 보호단위가 되었다. 2013년 山西大學考古學研究生이 현장 조사를 하다가 구원강북조벽화묘를 발견하였다. 山西省考古研究所와 忻州市文物管理處가 보호성발굴을 진행하였다. 현존벽화가 200㎡이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북조묘장이다. 전문가들은 묘장 규모에 근거하여 묘주가 북제를 세운 고씨 일족 가운데 핵심인물로 추정한다.

구원강북조벽화묘는 남향의 단실묘로서 墓室, 甬道, 墓道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묘실은 궁륭정으로 높이는 8.8m이고 평면은 방형이며 길이와 너비는 약 5.8m이다. 묘도북벽, 용도 위쪽에 목조건축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건물의 지붕 위에는 거대한 연화좌가 있고 연화좌의

위에는 박산로 형상의 물체가 있다. 묘도 양벽 벽화는 각 4층으로 상하 구분하여 각층마다 제재와 내용을 달리했다. 제1층은 선계의 인물과 신수형상으로 배경을 운기문으로 채웠다. 기존에 알려진 북제 벽화묘와의 큰 차이점은 묘도에 거대한 수렵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제2층은 중국 내에서 발견된 예로서 최대의 묘장수렵도로서 면적이 70㎡에 달한다. 인물 가운데 심목고비의 호인형상이 보이며 수렵을 하는 인물들의 표현이 자유롭고 호방하다. 제3, 4층은 대규모의 의장출행도로서 이는 다른 북제벽화묘와 공유하는 제재이다.

묘도북벽에 그려진 건축도는 회화형식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북조건축을 재현한 첫 번째 사례이다. 진양시기 북조건축양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화식 문루의 출현시기를 크게 앞당긴 중국미술사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의 “界畫”이다. 벽화 중에 표현된 건축에 斜栱과 雙柱式斗拱을 사용하여 중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당 벽화는 현재까지 발견된 두공구조의 가장 이른 고건축 자료만이 아니라 건축가 梁思成이 오대산에서 발견한 당대 불광사 동대전의 斜栱구조건축보다 100년 이상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구원강벽화묘는 벽화 내용이 풍부하며 전에 자주 보이지 않던 제재와 표현으로 북조 만기의 역사문화와 사회생활의 중요한 자료이다.<sup>21)</sup>

세련된 화풍의 특징상 북제 고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면서 동시에 북위 벽화고분의 특징이 북제에 전달되고 북제가 다시 수당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고분으로 생각된다. 천정 북벽의 건축도는 북제와 수당 벽화고분에서 종종 보이는 주제이나 대개 기와지붕과 목조 골조가 단순하게 그려지는 다른 고분들에 비하여 복잡한 형태의 공포가 두드러지게 입체적으로 장식되었고 문을 지나다니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문루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한편 묘도 양측에 4단으로 나누어져 그려진 행렬도와 괴수도의 형식은 북제 벽화고분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한편 함께 그려진 수렵도는 북제 벽화고분이 잘 보이지 않던 주제로서 북위 벽화고분의 수렵도의 전통을 잘 잇고 있다.

인물들이 수렵하는 장면은 고구려 감신총, 장천1호분 등을 연상시키는 복장과 수렵 형태를 볼 수 있다. 대동 지가보 관관화와 같은 북위 대동 지역 벽화고분의 수렵도의 구성과 유사하면서도 공간표현능력이 뛰어나 북제시기에 와서 한 단계 성숙한 수렵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렵도는 수당대 벽화고분의 묘도나 용도 양측의 주제로는 거의 사라지고 장희태자 이현묘의 폴로 경기장면에서 수렵 사이의 인물들의 운동을 볼 수 있다.

陝西 靖邊縣 統萬城 부근의 北朝壁畫墓는 2011년 9월 정변현 紅墩界鎮白城則村八大梁墓地에서 도굴된 묘장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2011YJBM1의 묘실 내에서 목조건축을 모방한 구조와 벽화가 발견되었다.<sup>22)</sup> 북조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陝北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

21) 霍宝强, 「忻州九原岗北朝壁画巨制」, 『文物世界』, 2015.6

22) 陕西省考古研究院, 榆林市文物保护研究所, 榆林市考古勘探工作队, 靖边县文物管理办公室, 靖边县统万城文

이다. 이후 八大梁墓地에서 그외 두 기의 도굴된 묘장(2011YJBM2, 2011YJBM3)에 대한 구체 발굴을 하였다. 이들 묘장은 십육국시기의 大夏國(407-431年)의 都城 統萬城에서 4km 거리이다. 10월에는 席季灘村劉梁組谷地梁墓地的 두 기의 도굴된 묘장(2011YJGM1, 2011YJGM2)에 대해서도 구체발굴을 하였다

八大梁墓地M1 묘실벽화는 간단한 선묘로 그려진 벽화의 솜씨가 고졸하나 불교색채와 호풍이 강하여 기존의 북조 묘실 벽화 내용과 제재에서 차이가 있다. 墓室 북벽 서측에는 불탑에 예배하는 호인이 있는데 원령에 좁은 소매의 포를 착용하여 소그드인으로 보이며 묘주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벽에는 胡床에 앉은 비교적 젊은 僧人의 형상이 있으며, 남벽에는 胡床에 앉은 老年의 僧人 형상이 있다. 벽화 내용은 묘주인이 생전 불교를 믿는 모습을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신강, 감숙을 거쳐 산서 대동까지 이어지는 불교의 전파에서 통만성과 주변지역은 북조시기에 중서교통의 요지로서 북위시기에는 북량의 수도 姑臧의 소그드인이 통만성을 경유하여 평성에 이르렀다.

북벽 벽화의 비천상은 운강석굴 제2기말에서 제3기(5세기말-6세기초), 특히 제3기에 한화된 후의 비천양식과 유사하다. 동벽 양측의 역사형상은 고원 북위칠관화묘의 칠관 앞판 양측의 역사형상과 유사하다.

谷地梁墓地M1은 잔존 벽화가 홍색 채색이 주이고 목선구름기법과 삼각형문양장식대와 구불 구불한 굽은선의 문양 등이 산서대동운파리로북위벽화묘와 유사하다. 통만성벽화묘는 5세기말-6세기초보다 이르지 않은 북위 만기로 추정되며, 하한은 서위로 본다. 북조시기 통만성과 주변 지역의 중서교통로상에서의 교류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정변은 한대에는 흉노와 접하여 호한문화가 접변하여 공존하던 지역이다. 북조시기에 와서도 이 지역이 북방기류가 흐르는 중요 지점으로서 소그드인이 이 지역까지 들어와 상업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전파하였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묘실 안에 목조건축을 모방한 구조를 만든 것은 돈황에서 대동으로 이주한 산서 대동 송소조묘의 가옥형 석곽이나 감숙 고대 지경파 위진묘, 북조의 소그드계 가옥형 석곽 또는 석당, 석탑과 같이 소그드계 또는 중앙아시아계 석조 건축의 상징에 중국의 전통 목조 건축을 결합한 장의 건축 형식으로 생각된다.

山西朔州水泉梁北齊壁画墓는 山西省考古研究所, 山西博物院, 朔州市文物局, 崇福寺文物管理所에 의해 2008년 6-8월에 발굴되었다. 벽화묘는 山西省朔州市朔城區翟子頭鄉水泉梁村的 서쪽 약 1.5km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墓道, 甬道, 墓室로 구성된 塼築墳이다. 고분의 용도와 묘실 벽면에 0.3-0.5cm의 백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렸다. 용도의 양벽에 文吏와 侍位와 騎馬隊를 그렸다. 묘실 천장을 삼단으로 나누어 가운데에 天象圖를 그렸는데 深灰色을 발라 하늘을 표시하고 서남에서 동북으로 은하수가 가로질러 흐르며 은하수 내에는 세밀한 비늘 같은 水波

物管理所, 「陝西靖邊縣統萬城周邊北朝仿木結構壁畫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2013年 第3期.

紋이 있다. 은하수 양쪽에 백색 원으로 별을 드문드문 표시하였다. 천장의 동쪽에 해와 까마귀, 서쪽에 달과 약을 찢는 토끼와 두꺼비 형상이 있다. 천상도 바깥의 원에는 사신도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있고 사신의 사이에는 神獸를 그리고, 사신과 신수 사이의 하늘에 목선구름으로 流雲을 그렸다. 사신도 다음의 바깥원에는 十二時의 十二生肖 형상을 구름선으로 그렸다. 북벽 중앙부터 시계방향으로 12지를 그렸다.

묘실 북벽 중앙에 묘주부부가 帷帳 중의 床榻에 앉아있다. 서현수묘와 거의 같은 구도와 배치이다. 유장의 양측에는 남녀기약시종이 서있다. 유장 가운데에는 방형 床榻이 있고 위에 황색 毛毯와 같은 직물을 덮었다. 동벽은 鞍馬儀仗圖, 서벽은 牛車出行圖, 남벽은 鼓吹圖이다.

수천량묘의 斜坡墓道、甬道、弧邊方形磚室은 북제 전실묘의 특징이나 양층으로 구성된 궁륭정은 북조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묘실벽화의 배치, 제재, 내용 등이 루예묘와 서현수묘와 유사하여 진양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나 표현형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북제시기 朔州지역의 특징도 드러난다. 묘주, 용도의 문리 등 주요인물의 그림은 비교적 정세하나 시종, 고취악사 등의 얼굴 부분이나 옷의 문양 처리가 딱딱하여 한 사람의 솜씨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물 윤곽과 얼굴 세부, 채색이 각각 다른 솜씨의 화공들이 분업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북조시대의 중앙아시아계 경교화상석

북조 고분미술 중 소그드 등 중앙아시아계 인물들이 등장하는 고분미술은 6세기 후반의 섬서성 서안과 태원 근교 고분들에서 주로 출토된다. 姜伯勤은 이들 경교화상석을 3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sup>23)</sup> 제1유형은 雙闕型 石棺床 화상석, 제2유형은 石槨型 石棺床 화상석, 제3유형은 石屏風型 석관상 화상석이다. 제1유형에는 하남 안양 석관상 화상석, 일본 滋賀縣 미호박물관 소장 화상석각이 해당된다. 제2유형에는 우흥묘 발견 석곽이 있다.<sup>24)</sup> 제3유형은 서안 북주 살보 안가묘 화상석과 천수 隋唐 병풍 석관상이 있다. 선비족과 같은 북방민족이 남천하면서 石室 등 장례의식이 발전하였으며, 시체가 泥土에 닿는 것을 금지하는 경교 장례의식의 관습을 지닌 페르시아인과 소그드인들이 중국의 석상 장식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sup>25)26)</sup>

탁발선비 계통의 북위, 북제 고분미술이 중원의 한계와 북방, 선비계의 결합을 보여준다면,

23) 姜伯勤, 「中國藝術史上的波斯風」, 許虹, 『最新中國考古大發現』, 山東畫報出版社, 2002, 139~144쪽.

서윤경, 「중국(中國) 상장미술(喪葬美術)의 동서교류(東西交流): 북조(北朝)시기 서역민족(西域民族)의 석장구(石葬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007. 정완서,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 -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2010.

24) 鄭巖, 「青州傳家畫像石與入華粟特人美術」, 『文物』, 2001年 5期.

25) 姜伯勤, 「中國藝術史上的波斯風」, 許虹, 『最新中國考古大發現』, 山東畫報出版社, 2002, 139~144쪽.

26) 羅豐, 『固原南郊隋唐墓地』, 文物出版社, 1996.

소그드계 석각은 북조의 일반 고분미술과 일정 형식을 공유하면서도 외래계 묘주 또는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거나 교류를 한 묘주의 취향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병풍형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도 조로아스터교와 연관된 석당 형식도 반영하면서 연음, 수렵, 조로아스터교 의식 등을 제재로 구성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사례 외에 2012년 日本收藏家 堀内紀良이 국가박물관에 기증한 石堂은 祆教 의식을 새긴 北朝石堂이다.<sup>27)</sup> 孫機와 楊泓의 검증 후 북조시대 석당임이 확인되었다. 북조시대에 외래종교가 중국에 전파되고 교류 융합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석당이다. 국가박물관에서는 “房屋形石椁”으로 명명하였으며 북조에 들어온 소그드인이 제작하여 소그드 귀족 수령의 매장 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葬具는 중국에 들어온 소그드 후예의 귀족들이 석조 구조의 공간을 자신의 사후에 몸을 묻을 장소로 애호한 것이다. 石堂은 길이 2.12m, 너비 1.25m이다. 石堂正面에는 방형의 문이 있고, 문미 아래 좌우에는 철환 흔적이 있어 원래 유장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문의 양쪽에는 각각 한 명의 문을 지키는 守護神형의 무사의 부조가 있다. 한 명은 곱슬머리에 심목고비, 짧은 수염에 긴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단도를 차고 있고 상체는 노출하였다. 다른 인물은 深目直鼻에 짙은 수염이 아래로 나고 翻領胡袍를 입고 아래에는 가죽 장화를 신었다. 양손에는 圓環柄短劍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서있다.

석당에는 立柱橫枋을 조각하고 주두에 두공과 人字拱을 조각하였다. 두공 사이에는 북조 때 유행한 畏獸, 玄武, 騎獸人物 등을 새겼다. 石堂 네 모서리에는 번령호복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긴 칼을 든 시위의 부조가 있다. 기존의 소그드계 석각에서 아직 출현하지 않은 예이다. 안가모 등과 같은 彩繪貼金痕迹이 없다.

도상제재는 群胡의 首領謁見圖, 女性侍立圖, 群胡出行圖, 牛車出行圖, 出行儀仗과 備馬圖, 侍女와 胡人樂舞圖, 祆教大會場面圖로 나눈다.

群胡首領謁見圖는 석당 정면 좌부에 얼굴 가득 수염이 난 胡人수령이 곱슬머리에 화관 형상의 두식을 하고 작은 방형의 부드러운 모자를 쓰고서 손에 水杯盤을 들고 책상다리를 하고서 투조의 方榻 위에 앉아 있다. 호인수령은 앞에서 두 명의 호선무를 추는 인물들을 보고 있다.

女性侍立圖는 石堂正面右部에 一群의 女性服侍者가 일렬로 서서 높은 귀빈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群胡出行圖는 石堂 좌측 立面에 인물을 가득 그렸는데 모두 곱슬머리가 텃수룩한 머리모양을 하였다. 호인수령은 장식이 화려한 말을 타고 있는데 마구 장식이 페르시아 사산조의 마식과 유사하다. 말위에 탄 호인수령은 日月輪王冠을 썼는데 祆教의 主神 아후라마즈다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拜火大會를 거행할 때에 祆主는 軟帽를 벗고 花冠을 써야했다. 수행하는 인물들 가운데 높이 든 화개와 깃털부채를 든 인물들이 뒤따르고 말을 타거나 걸으면서 호인수령을

27) 葛承雍, 「北朝粟特人大会中祆教色彩的新圖像——中国国家博物館藏北朝石堂解析」, 『文物』, 2006년 1기.

둘러싸고 있다. 출행대오의 가장 앞면에 연주문 火壇을 높이 든 호인이 행렬을 인도하고 있다.

牛車出行圖는 石堂右側 立面에 높은 휘장이 쳐진 우차를 두 명의 곱슬머리 호인이 소의 좌우에서 인도하고 있다. 두 명의 호인이 우차의 전방에 호송하고, 우차의 후방에는 한족복식을 입은 네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걷고 있다. 우차의 주위에는 심목고비의 호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머리에 상투를 튼 漢人도 있다. 모두 圓領袍服을 입었다. 그림의 아래에는 시내가 흐르는데 이러한 시내는 祿教장례의식 중에서 영혼이 진입하는 친왓다리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

시녀호인악무도는 石堂背面 중심 장면의 좌측에 있는 한 폭의 호인악무도로서 모두 13명의 호인 남성이 서 있다. 후면은 악대로서 비파, 장구, 배소 등을 연주하고 있다. 전방은 두 명의 호인이 대무를 춘다. 石堂 正面의 胡旋舞 형상과 유사하며 다리 아래에 胡瓶鉢碗을 놓았다.

중심 장면 우측에는 한 무리의 시녀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대칭 위치의 호인남자들의 가무에 호응하는 듯 보인다. 여성악대는 四弦 또는 五弦琵琶와 排簫를 연주하며 가장 앞에는 大型箏篋를 연주하고 있어 호인들이 연주하는 악기와 차별이 있다. 화면 중심에는 두 명의 舞女가 대무를 추고 있다. 무용은 소그드의 天神 祭拜와 장의의 중요내용이다.

祿教大會장면도는 여섯 칸 구조의 앞이 트인 대청건물 안에 막이 걸린 가운데 胡人 수령 부부가 주인으로 탑좌 위에 앉아있으며 뒤에는 병풍이 있다. 호인수령은 중앙아시아 변령장포 같은 모피 옷깃의 망토를 걸치고 긴 소매를 아래로 내리고 있다. 곱슬머리에 뺨에 구레나룻이 있으며 책상다리를 한 호인수령은 한 손에 잔을 들고 다른 손은 긴소매 안에 감추고 여주인과 마주보며 대화를 나눈다. 여주인은 긴 치마를 걸치고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았다. 국가박물관 소장의 석당의 선각화는 동시대 북조의 다른 석관상과 석당과 같이 출행, 악무, 의장, 聖火로 구성되었으며 群胡의 호인수령알현도, 천교대회도, 천교화단의 행렬도 등이 주목된다. 출토지를 알 수 없어 묘주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없으나 북조시대 소그드계 묘주의 장의미술의 새로운 사례로 비교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 3. 맺음말

고구려와 중국 위진북조의 고분미술의 비교는 대개 고분의 구조나 벽화의 배치, 주제의 구성에서 비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부터 668년까지 지속된 반면, 동시기의 중국은 한대부터 위진남북조, 그리고 수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가 흥망을 거듭하였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요녕성 환인, 길림성 집안, 북한 평양의 세 곳의 수도를 중심으로 벽화고분이 산재하며 북한지역에는 평양 외에 안악, 남포 지역에도 중요한 벽화고분이 분포하지만 비교적 넓지 않은 구역 내에서 집중 분포하면서 평양과 집안지역이 유사한 발전과정을 겪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고분의 구조나 주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한위진북조수당의 벽화고분은 서북에서 동북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으며 고구려보다 짧은 왕조 교체, 정치와 문화 중심지의 변화를 거치면서 지역적, 시기적으로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인다. 북위가 수도를 가졌던 성락, 평성, 낙양 가운데 성락에서는 벽화묘가 드물게 축조되었고, 평성은 4세기 말에 천도하였기 때문에 천도 이후에 대개 벽화묘가 축조되었다고 볼 때 고구려의 초기 벽화고분인 안악3호분의 357년보다 그 시작이 늦다. 따라서 중국학자들도 북위 벽화묘의 정면 묘주부부초상이나 수렵도의 연원을 한위진 벽화묘와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찾고 있다. 한편 북조가 북위의 평성과 낙양을 거쳐,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나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 군사, 문화 중심지가 변화하면서 앞 시기의 전통을 잇는 한편 새로운 문화상이나 화풍상의 현격한 발전을 보여주는 벽화묘가 출현한다. 북조의 벽화묘가 고구려 벽화묘보다 시작이 늦은 만큼 고구려에서는 그 영향력을 소실한 생활풍속도의 표현이 북제와 수당에 걸쳐 존속되며 이러한 특징은 송, 원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장의미술의 주제로 건재하게 남게 된다.

따라서 고구려 벽화묘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주제라든가 화풍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북조의 시기는 북위라고 할 수 있으며, 고구려 벽화의 주제의 연원이나 화풍 또는 모본의 유사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는 위진십육국시기이다.

위진북조 벽화묘가 비교적 최근에 여러 기 발견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위진북조 벽화의 특징을 재고하면서 특히 중앙아시아계통의 문화의 전파를 고려할 수 있는 사례들이 추가되면서 고구려 벽화의 외래요소 가운데 중앙아시아계 또는 불교계 문화요소의 전파, 유통 경로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고구려와 동시기 중국 벽화고분의 비교에서 중국 고분미술의 변천에 따라 시기적, 지역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고구려 벽화고분의 연원이라고 평가되는 한위진시기 벽화고분들이다. 감숙성의 고대 지경파벽화묘, 신강성의 누란고성벽화묘와 같은 새로운 자료들은 산서 대동에서 북위시대에 출현할 중앙아시아계 문화요소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 전파경로에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둘째는 고구려 초기 벽화고분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출현한

북위 벽화고분들이다. 위진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고구려의 영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선비적인 변용도 보여준다. 셋째는 짧은 시기동안 존속하였지만 독특하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동위, 북제, 북주 벽화고분들이다. 이 시기는 고구려가 사신도로 묘실 벽면의 주제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천장 벽화를 예로 다루지 않는다면 벽화 구성과 주제상의 유사점을 찾는 비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벽화 제재의 배치를 본다면 공간인식의 변화가 고구려와 후기 북조 벽화고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시기 구분을 넘어서 북조 고분미술의 하나의 흐름인 중앙아시아계통의 석각 부조 화상들이다. 도상은 중앙아시아문화, 한문화, 북방문화의 복합적 조합을 보여준다.

중원으로 이동한 북방유목민을 중심으로 벽화묘의 축조를 살펴본다면 남아있는 벽화묘의 존재로 미루어 모용선비는 벽화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듯 하고, 탁발선비는 내몽고에는 북위대 벽화묘가 많지 않고, 대동에서도 통만성, 고원, 돈황 등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벽화나 석조 가옥 형태를 받아들인 것이 보인다. 탁발선비가 직접적으로 벽화를 채용해서 그리기 시작한 것은 5세기 중에서 후반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고구려에 비하면 1세기 정도 늦은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도 생활풍속 주제가 1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것처럼 북조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중국 북조벽화묘는 묘도 양벽에 화려한 장식을 하였는데 만장북제벽화묘, 구원강북제벽화묘 등의 묘도 벽화를 보면 몇 단으로 나눈 뒤 상단에 神獸를 그린 것이 고구려 후기 사신도 벽화묘의 천장 벽화의 구성과 유사하다. 북조 벽화묘 묘도의 역사상이 고구려에서는 묘실의 네 모서리에 출현하는데 결국 유사 제재의 공간 배치에서 차이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벽화 구성, 도상 구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 배경은 장의미술에 대한 인식, 사후세계의 인식, 각 제재의 기능과 상징성에 대한 인식, 장의 공간 내부의 상징성이나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출현한다고 보인다. 또한 북조 고분의 생활풍속과 묘주의 지위를 과시하는 의장행렬에 더하여 소그드계 등 중앙아시아계 석장구의 장의미술이 혼합되어 발전하면서 북조 고분미술의 회화 표현, 주제가 다양해진 것이다.



발 표

##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사 복원

— 동북아역사재단 수행 사업을 중심으로 —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 서용 (동덕여자대학교)





#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사 복원

— 동북아역사재단 수행 사업을 중심으로 —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 서용 (동덕여자대학교)

## 〈목 차〉

- I. 사업 배경 및 경과
- II.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III. 사업의 주요 내용
- IV. 벽화 복원 과정 및 결과물
- V. 사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I. 사업 배경 및 경과

고구려 고분벽화는 1902년 강서군수 일행이 강서대묘·중묘에서 처음 벽화를 발견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0여기가 알려져 있다. 특히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고구려 고분벽화가 등재됨으로서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활용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가 북한과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연구자나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벽화의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유네스코 등 관련 기구에서 벽화의 보존과 수복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06년 국책 기관으로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과 보호 및 연구에 대한 현실적 조건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적극 모색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는 덕흥리 고분벽화, 강서대묘, 안악 3호분, 수산리 고분벽화 등 북한

지역의 고구려 고분벽화를 대상으로 전통 기법과 컴퓨터그래픽을 접목한 디지털 모사복원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사업 연도	사업 대상	주요 사업 내용	비고
2007년	덕흥리 고분벽화	2D 모사	
2008년	강서대묘	2D 복원	
2009년	강서대묘	3D 제작	
2010년	덕흥리 고분벽화	2007년도 결과물 2D 보정 및 3D 제작	
2011년	안악3호분	2D 복원 및 3D 제작	
2012년	수산리벽화	2D 복원 및 3D 제작	
2013~2015년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2D 복원 및 3D 제작, 조우관 사절 부분 등 서벽 일부 실벽모사도 제작 및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중앙아시아실 설치,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박물관 2D 복원도 전달 및 3D 영상실 설치 운영, 벽화 보존·보호 관련 기자재 설치	

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벽화<sup>1)</sup>를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복원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그간 동북아역사재단이 수행한 고구려 벽화를 비롯한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의 복원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II.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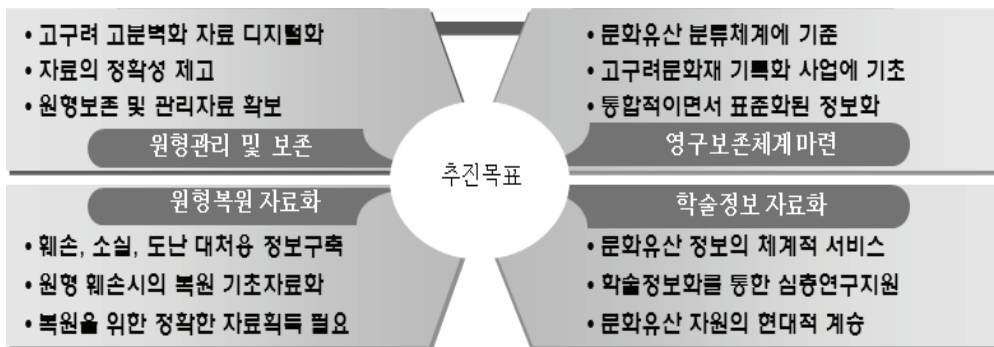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물리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훼손은 불가피하다. 북한과 중국 당국 및 국제사회 유관 기구들이 나름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벽화의 보존과 보호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벽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기록은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재단에서 수행한 고구려 고분벽화 복원 사업은 우선 북한 및 중국지역에 소재해 있어 현장

1) 주지하듯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궁전벽화에는 7세기 중엽 사마르칸트(소그디아나) 왕국에 도착한 사절이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고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상이 있다. 머리에 깃털을 장식한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둥근 고리가 있는 ‘환두대도(環頭大刀)’를 휴대하고 있는 2명의 인물은 당시 국제관계로 보아 고구려의 사신일 가능성이 크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면 및 사진 등 시각자료들을 현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변국들의 관련 자료까지도 폭넓게 조사·정리함으로써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 문화유산인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벽화에 대한 현장 접근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아울러 고구려 고분벽화를 입체영상으로 복원하여 관람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시킨다.

디지털 자료화된 고구려 고분벽화 자료는 국·내외 전시, 도록 발간, 각종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교육·홍보자료로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고자 한다.

### Ⅲ. 사업의 주요 내용

본 사업은 크게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벽화를 보이는 그대로 복원하는 2D 작업이다. 그리고 벽화무덤의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분 내부를 구성하고 복원된 벽화를 제 위치에 배합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2D·3D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분벽화의 가상체험 웹사이트 및 3D 입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영상물은 대략 10분 이내로 구성하고 다국어로 더빙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 **고분벽화 2D 복원**

- 벽화 원천자료 확보
- 300dpi 이상의 고해상도 드림스캐닝을 통한 원천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여 고품질의 이미지 DB 구축
- 도상에 대한 전문가 고증을 거쳐 벽면, 천장 등의 모든 벽화에 대해 모사·복원

○ **벽화무덤 실측 사이즈 3D 제작물 데이터 작성**

- 실측된 벽화무덤의 도면자료를 바탕으로 3D 모델링
- 벽화무덤의 내·외부의 형상을 도면에 따라 모델링
-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모델링

○ **벽화무덤 고분벽화를 이용한 매핑**

- 벽화무덤 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널길, 널방 등의 벽면 실사 그래픽 작업
- 인물도 및 천장도를 실사 벽면과 합성, 결과물을 이용하여 텍스처 매핑
-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매핑

○ **가상체험 Web site 개발**

- 홈페이지 및 다국어 홈페이지 메인사이트에 해당 언어별 ‘벽화무덤 3D 가상체험’ 추가
- 수동/자동 네비게이션 방식으로 VR 구축
- 3D 가상체험 내에 고분 개요, 벽화 설명 등 콘텐츠 개발
- 가상체험 콘텐츠에 나레이션 한글, 영문, 중문, 일문 등 더빙

○ **홍보영상 제작**

-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데이터를 이용, 벽화무덤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 전체 영상은 5~10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 벽화무덤의 특징점이 부각될 수 있는 내용 구성
-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문, 영문, 중문, 일문 등 나레이션 버전 제작



콘텐츠 개발시 이미지 DB구축을 위해 원천자료 확보 및 스캐닝, 모사복원 및 스캐닝, 이미지 보정, 칼라복원, 원자료 복원 등 작업공정별 이미지 데이터(DWG, PSD, TIF, JPG 등)를 모두 축적 보관함으로써 향후 작업 과정에서 활용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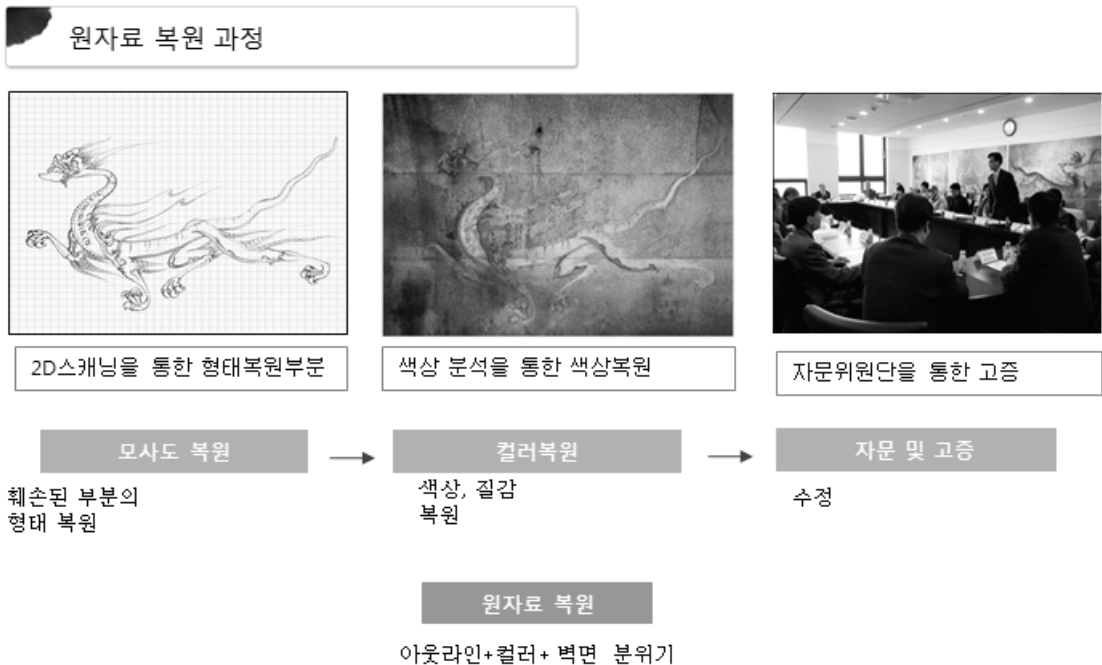
디자인 측면에서는 HTML 포맷을 기반으로 한 웹기반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고, 화면의 크기를 1024×768 모드로 함으로써 화면 디자인은 기존 구축된 벽화복원 페이지와의 콘셉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레이아웃, 아이콘, 상호작용, 타이포그래피, 네비게이션 등)를 구성하며, 일관성 및 편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저작도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웹 브라우저 내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파일 다운로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였다. 콘텐츠는 별도의 팝업창으로 구성하고,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메타파일을 작성토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 IV. 벽화 복원 과정 및 결과물

복원을 진행하며 고구려 벽화의 현 시점에서 보이는 도판의 이미지를 토대로 유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미지는 제외하고 약간의 흔적이라도 유추가 가능하면 각종 참고 이미지를 수집 분석하고 복원한 후 점차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고 박락되는 현상을 따라 형태를 지워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은 도상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형태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과다한 복원이 이루어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시 원형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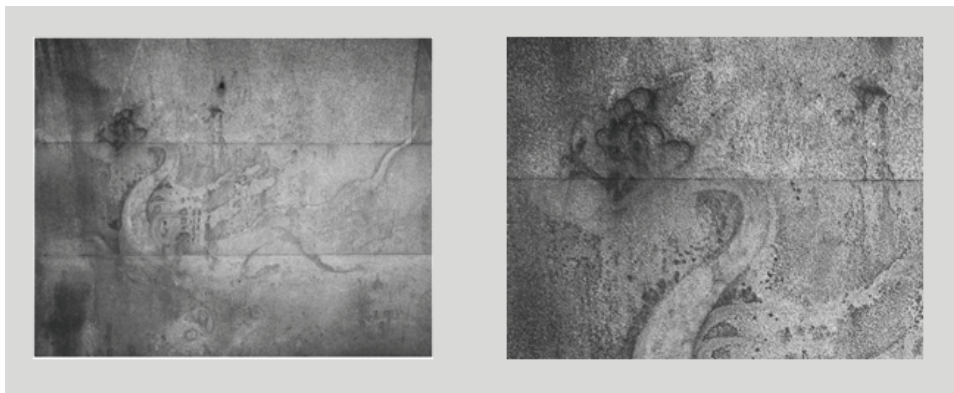
고구려 벽화뿐만 아니라 모든 벽화의 복원을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복원의 시점을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것인데, 본 작업의 궁극적 목적이 고구려 벽화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있으므로 벽화 자연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복원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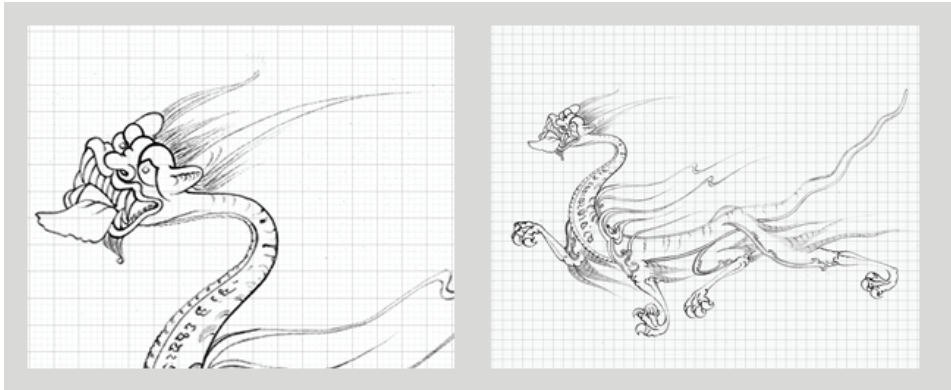
○ 원본 확보 - 촬영 이미지 원천 자료



○ 형태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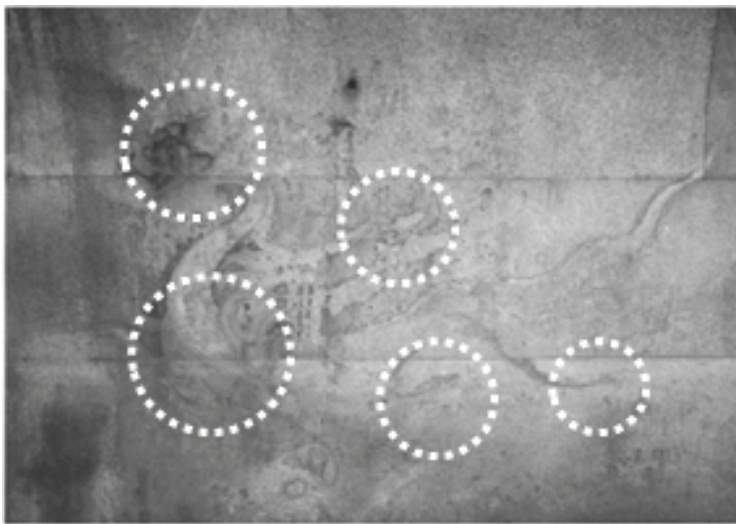
세월의 흐름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미세한 흔적을 추적하고 각종 참고 도판과 기타 지역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선으로





○ 색상 복원

색상 및 질감의 구현은 자료의 원형에 충실하도록 하여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처음 벽화가 그려질 당시의 색상은 현재의 색상과 차이가 있으며 오랜 세월 쌓여진 때를 어느정도 벗긴 상태의 색상을 추출하여 결정된 색상에 라인아트와 결합하여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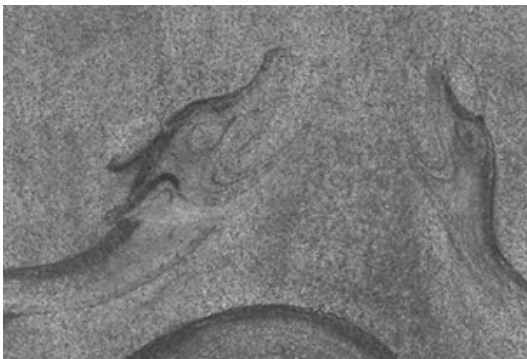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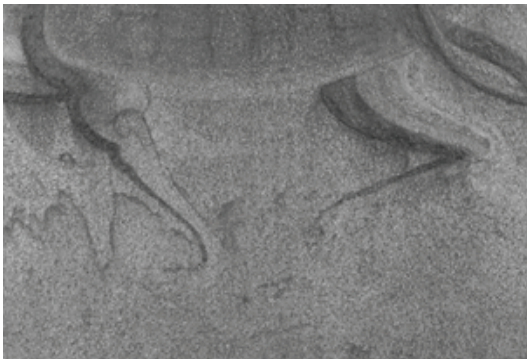


원자료의 색상분석



착색과정

□ 2D 복원 결과(강서대표)



□ 3D 복원 결과(홍보영상)

▶ 덕흥리고분

- korean : <https://youtu.be/iD4IGqG4gio>
- english : <https://youtu.be/dPIHnRYSnwQ>

▶ 강서대묘

- korean : <https://youtu.be/aJs8HUZT5PU>
- english : <https://youtu.be/9XsO4Repapc>

▶ 안악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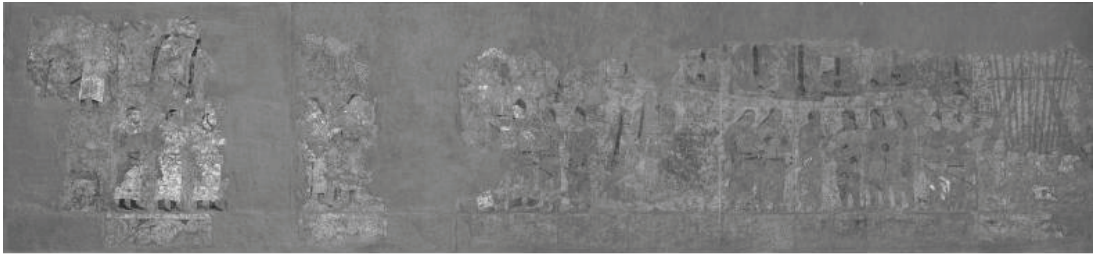
- korean : <https://youtu.be/fjCVkTahTi8>
- english : [https://youtu.be/IUs\\_zQ2KlQY](https://youtu.be/IUs_zQ2KlQY)

▶ 수산리고분

- korean : <https://youtu.be/XbdYPqEsXsM>
- english : <https://youtu.be/xlDnxMs0Hag>

▶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 korean : <https://youtu.be/6vYTtY6hQPc>
- english : <https://youtu.be/HuuHrNQugt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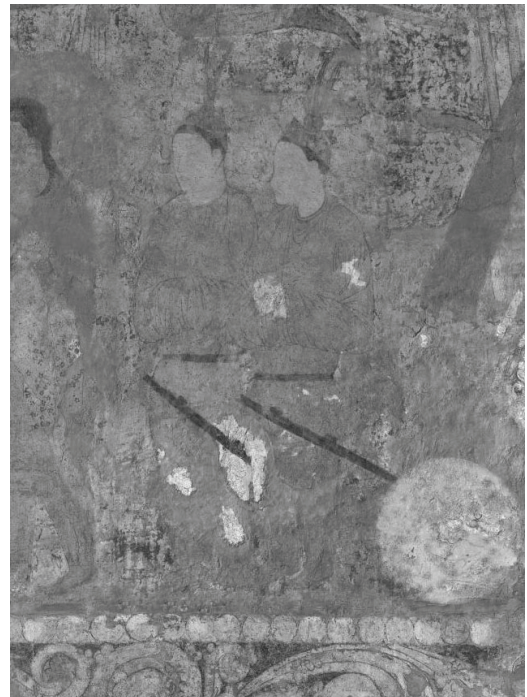
서벽(복원 전)



서벽(복원 후)



고대 한국인(복원 전)



고대 한국인(복원 후)



아프로시압 유적 궁전지 3D 복원



아프로시압 궁전 내부 3D 복원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실벽모사도 전시

## V. 사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행한 고구려 벽화 복원 사업의 의의를 몇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 등 문화재 복원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화의 전통적인 모사 방식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모사복원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의 체계적 DB 구축을 통해 훼손되거나 망실되어가는 물리적 환경을 극복하고 자료의 항구적 보존 및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현재 재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각종 자료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터키, 중앙아시아, 인도, 프랑스, 북한 등 지역의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간 재단이 수행한 고구려 벽화 복원 사업은 현장 작업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아프리카 시암 궁전 벽화 복원 사업의 수행을 통해 벽화의 정밀 촬영, 적외선·자외선 촬영, 안료 분석 등 벽화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 축적과 경험은 향후 북한과 중국 지역의 고구려 벽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현장 조사가 가능해지면 벽화의 보존과 보호 및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